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2 / April / 2005

0504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표지사진 _ 비전하우스(브니엘교회교육관)

건축사

Korean Architect

건축사 2005 / 04

Korean Architect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5년 4월호 통권 432호

Contents

27

29

37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5 04 432호

칼럼	국책(國策)건축사업과 설계경기 및 발주제도의 개선	장양순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시론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김광현	22
회원작품	비전하우스(브니엘교회교육관)	강대화	24
	선문대학교 본관동	김광섭	32
	순복음새소망교회	최두길	40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스포츠파크	유경일 + 조대희	48
	오륜교회	한상운	54
계획작품	대불자유무역지역	김종국 +오근석	60
작품노트	성북동 안가(城北洞 安家)	안명제	64
기고	新 · 재생 에너지 형 설계모델 마련하자	류재경	70
연재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1	박진호	75
건축마당	협회소식		82
	건축계소식		87
	보고서		92
	회원갤러리		96
	해외잡지동향		100
	현상설계		104
	통 계		120

발 행 인 이철호
편 찬 위 원 장양순, 손기찬,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 편 번 호 137-857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6-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인 (주)영림인쇄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3

53

56

Korean Architect

Vol. **432**
April 2005

Column
Ameliorating the System of Design Competition and Ordering in Government Policy Projects — Chang Yang-soon 18
Cartoon — Yoo Won-Jai 21
Focus
A man's fo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 Kim Kwang-hyun 22
Works
Vision House — Kang Dae-hwa 24
SunMoon Univ. Main Bldg. — Kim Kwang-sup 32
Full Gospel New Hope Church — Choi Du-gil 40
Kyung Hee University Sports Park, Soowon — Yoo Kyung-il & Cho Dae-hee 48
Oryun Community Church — Han Sang-woon 54
Process works
Dae-Bul Free Trade Zone MasterPlan — Kim Jong-kook & O Kun-sok 60
Design note
Seongbuk-dong Ahn's House — Ahn Myung-jei 64
Feature
Searching for a New Energy-Recycling Design Model — Ryu Jae-kyong 70
Serial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 Park Jin-ho 75
Architects' Plaza
Kira news 82
Archi-Net 87
Report 92
Gallery 96
Overseas Journal 100
Competition 104
Statistics 120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Sohn Kee-cha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본협회 이사, 한서대 겸임교수
by Chang Yang-soon

국책(國策)건축사업과 설계경기 및 발주제도의 개선

Ameliorating the System of Design Competition and Ordering in Government Policy Projects

현 정부의 선거공약인 행정수도 계획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좌절된 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다. 또한 11곳의 혁신도시를 충남을 제외한 각도에 만들어 지역균형을 꾀하며, 이곳에 국가 및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조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향후 10년에 걸쳐 이전 건축될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190여개에 달하는 굵직한 사옥들은 행정도시의 건축과 함께 향후 전무할 정도의 프로젝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 외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경쟁적으로 내 놓는 문화 프로젝트 중 최근에 발표한 서울의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나 경기도의 한류우드는 건축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우리는 건축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각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짧거나 긴 공사기간, 막대한 예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그리고 공연 레파토리 시스템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바 이는 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싫든 좋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러한 프로젝트가 어차피 진행된다면, 이는 건축사라면 누구나 수주하고 싶은 매력적이며 탐나는 프로젝트들인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극소수의 건축사만이 참여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대부분은 구경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에 있어 현행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케 하거나 또는 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을 하는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며, 지명경쟁 입찰을 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소위 PQ제 요소가 적용된 것으로 대형사무소와 오랜 경력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결함에 대하여, 기술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기본성격이 다른 건축설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현상설계 응모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바, 이는 널리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좋은 설계 작품을 선정하고자하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프리젠테이션만 강화되어 객관적 판단 및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 그리고 당선작과 실제 시공되는 건물이 전혀 다른 경우가 발생함에 있어 설계경기가 당선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다.

본 협회는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방식에 대하여 설계경기를 통한 발주방식이 기본(원칙)이고 보조적으로 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것.

둘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제도는 약간의 긍정적 요소도 없는 바 아니나 대부분 실적위주의 기준으로 부조리가 조장되고 진취적이며 실력 있는 젊은 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설계경기의 단계별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응모 시에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을 절감하여 많은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1단계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2단계로 1단계 공모에서 채택된 소수의 건축사들에 한하여 본 설계경기를 시행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제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

넷째, 설계경기는 주최 측이 사전에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어 당선작의 설계변경 금지원칙을 확립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작가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 것.

다섯째, 설계경기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개의 원칙을 확립할 것.

여섯째, 설계경기의 심사위원 선정도 건축심의제도와 연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협회나 전문가 단체를 통한 캐비넷제도의 법제화 등 방법을 강구할 것, 즉 심사위원은 강의 행정 등의 이론가보다는 실무경험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건축사가 주체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미 1995년부터 국내건축사와 함께하는 외국건축사의 영업행위와 작품 활동을 인정하였고, WTO의 규정에 의해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허안 작업을 건교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의 기본원칙이 투명성, 동등성 등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향후 많은 나라와의 FTA협정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의 주장과 제안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제 많은 개선책 중 이 문제도 반드시 뿌리 채 개선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만의 것이 아니고 미국의 상징이 되었으며, 캄보디아는 앙코르왓트 사원을 자국의 국기에 담았다. 캥거루로 표현되던 호주는 이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그 이미지를 바꿔 버렸다.

선진국의 경우 인프라 성격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하지만 예술성격이 강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건축물은 문화 이벤트 성격으로 현상설계로써 운용하고 있다.

이제 서울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를 현상설계하기 전에 하루 속히 건축설계경기 및 발주제도를 본 협회의 안대로 바꾸어야한다. 그리하여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어야 하며, 그 속에서 행정도시의 관공서나 각 지방에 산재할 공기업 청사는 물론 오페라하우스도 시드니나 코펜하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탄생하여 유명해짐으로써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건축을 우리들의 손으로 탄생시켜야 한다. 이는 시대의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김광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im Kwang-hyun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A man's fo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최근 학교만큼이나 바쁘게 건설교통부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회사의 설계 겸업허용 여부는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는 이른바 '논리'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왜 건설회사가 설계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대해 산업구조적인 대응방식을 갖는데 논리가 없을 뿐 아니라, 구사하는 단어도 내재적이다. 건축은 문화이고 예술이며, 건축사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설계는 시공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외국에는 시공사가 설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일본 등이 고작이며, 아마도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시공사가 건축사사무소를 갖는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체자로 계속 남을 것인가, 종속자로 전락할 것인가? 시공사 소속의 건축사사무소는 과연 어떤 건축사사무소를 지향하여 만들어질 것인가? 시공사의 설계부서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견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무소의 출현이 기대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문은 계속된다. 이 문제 이전에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산업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건축사사무소가 초대형 사무소로서 성장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초대형 사무소는 건축설계 영역의 맏형으로서 일을 분배하고 기술력을 키우며 세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디자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이런 규모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무소로 성장하려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왜 대형사무소만 기술발전에 주역이라고 보는가? 일본의 지도적 건축가들은 모두 대형사무소들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들은 독자적인 이론과 디자인으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록 작은 수이기는 하나 일본이 일본다운 세계적 건축집단을 소규모 안에서 성립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정한 설계경기와 소규모 공공프로젝트에 작은 규모의 건축집단이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서 자칫하면 건설사의 규모 여부를 떠나 이에 종속되는 건축사사무소가 많이 속출하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건축가를 양성하겠다고 불과 몇 년 전에 겨우 제대로 된 학제를 출발하였는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학에도 있다. 과연 몇 명을 사회에 배출해야 일하기에 적당하고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늠이 전혀 없이, 거의 대부분이 5년제를 택하였고, 건축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한 대학이 1년에 100명 150명씩 양성하여 내보내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학에서 얼마의 학생이 나와야 그들이 대접 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늠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양산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공식이 있고 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대학 입학 정원. 공식적인 건축관련 단체가 셋씩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가늠자가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면 문제는 건축계 내부에 있다.

설계비에 관해 논의할 때, 필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늘 느낀다. 그것은 건축사만이 설계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축설계비는 건축만이 아니라 구조설계비, 설비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축사만이 설계비를 말하고 있는가이다. 건축사들은 우리가 받는 설계비에는 컨설팅 비용이 들어 있어서 많은 부분이 거쳐 지나갈 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비용이 타당한가라고 조사하고 과연 진지하게 협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설계비가 이렇게만 내부의 문제로 단순히 주장되고 인식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과 기술이 발전을 위해 설계비를 이렇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대사회적 발언력을 높여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문턱 앞에 놓인 위기에 대해 별다른 논리를 갖지 못한 이유를 이전에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서, 국가가 정책을 세워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문화를 몰라주어서,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는 선비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졸부들이 도시를 망쳐서 라는 식으로 이유를 외부에 전가하였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건축계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경쟁하고 변화하는데, 구조적으로 변혁을 꾀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장 원인이 건축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에 관련된 산업임에도 제도와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주어진 제도를 철저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제도의 개혁자가 아니라 제도를 받아 적는 자요, 제도에 충실히 밀착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변혁하려면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내부가 암초가 되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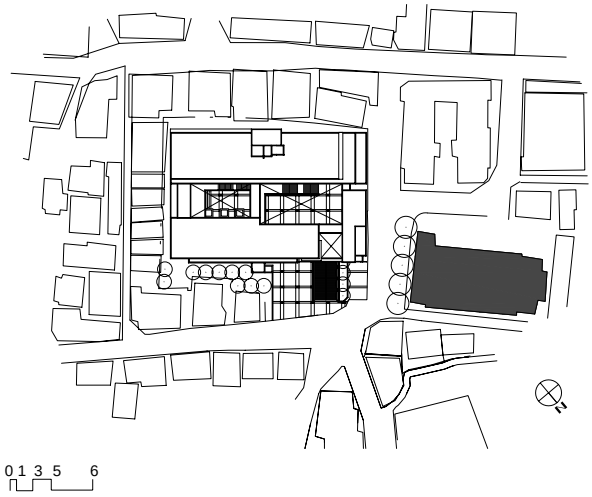
필자는 다시 생각하고 싶다. 건축계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부의 모순이라고. 개혁하고자 하는데 개혁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건설과 설계는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으며,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도 같은 선상에 있지 않고, 대학의 발전이 알고 보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암산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감리 시장을 설계와 결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라져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면. 여러 항목을 나열하자면 모순은 내 속에 가득 발견된다. 그래서 성서는 말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마태오 10:36)라고.

강대화 / 건축사사무소 토탈
by Kang Dae-hwa

비전하우스(브니엘교회교육관)

Vision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43-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163㎡
건축면적	1,275.71㎡
연 면 적	4,618.80㎡
건 폐 율	58.98%
용 적 률	141.84%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직물벽지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토탈시스템, 마천석 버너마감
설계담당	탁현경, 안광순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다양한 복합교육기능

비전하우스가 수용할 기능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회의 교육 및 부속시설이 외에도 신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배치되어야 하고 아동시설과 중예배실 외에 30여 개의 개별실이 요구되어졌다. 다양한 각각의 기능들은 그 성격에 따라 개별단위로 분절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용시점에 따라 범위가 확장되고 겸용되어야 하는 유연한 연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끌어들임과 에워쌈

어프로치나 개별영역들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문제로 외부영역을 깊숙이 끌어들인다. 또한 직교하는 두 방향 –건물의 전면이 되는 북측 일방진입도로 측과 기존교회로의 방향– 모두를 건물로의 진입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접지 층의 넓게 개방된 영역은 매개영역이 되어 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으로 향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공경험과 사적인 실체를 모두 접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평면적으로 고밀 하고 혼잡한 지역환경의 특성과 열려진 공간의 만남은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통합의 의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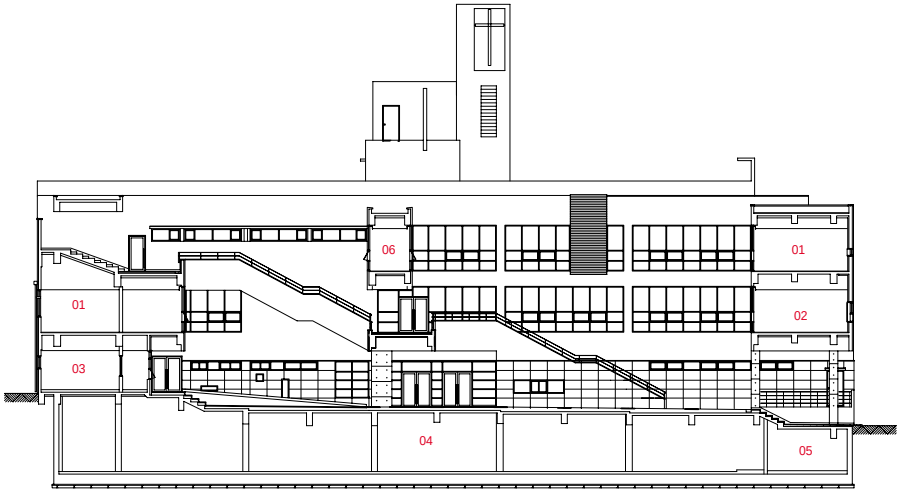
부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교육공간으로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지역민에게는 개방되어 쉼의 공간으로 배려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매개적공간의 의미는 교회와 지역모두의 공통의 가치적 배경으로 자리잡으며 상호의존적이 될 것이다.

룸 나누기를 통해 발생하는 에워쌈은 공공으로부터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갖게 하고 수직으로의 관통으로 개방감도 획득하여 다양한 기본단위들이 복합체로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구축한다.

건축물로 유입되는 수평 · 수직의 이동경로와 데크들은 확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경험의 시퀀스로 공간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며 건축적 틈이 되어 이용자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뜻밖의 활동이나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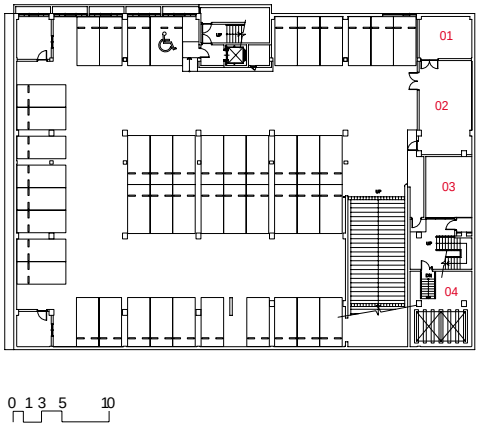
또한 내 · 외부의 어느 시점에서나 이용자 모두에게 움직임이 관찰되고 보여지고 마주하는 것은 친밀함과 생동감 있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임을 기대해본다.

01_ 교실
02_ 사무실
03_ 유치원
04_ 주차장
05_ 전기실
06_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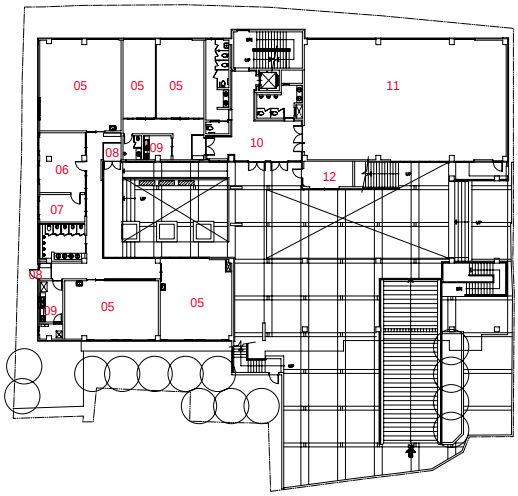


0 1 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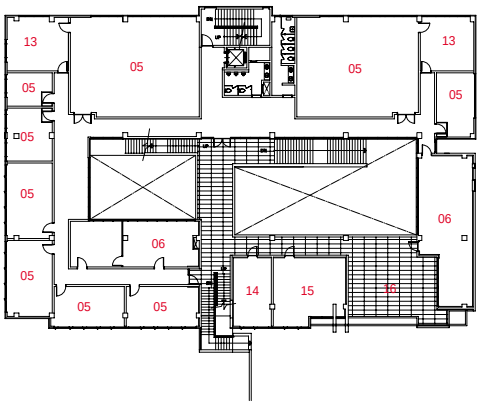
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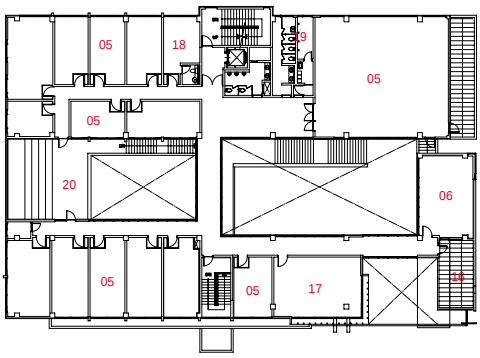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1_ 비상발전기실
02_ 전기실
03_ 관리실
04_ 물탱크실
05_ 교실
06_ 사무실
07_ 교재실
08_ 현관
09_ 주방
10_ 로비
11_ 강당
12_ 경비실
13_ 부속실
14_ 영상팀
15_ 도서실
16_ 테라스
17_ 회의실
18_ 게스트룸
19_ 샤워실
20_ 옥외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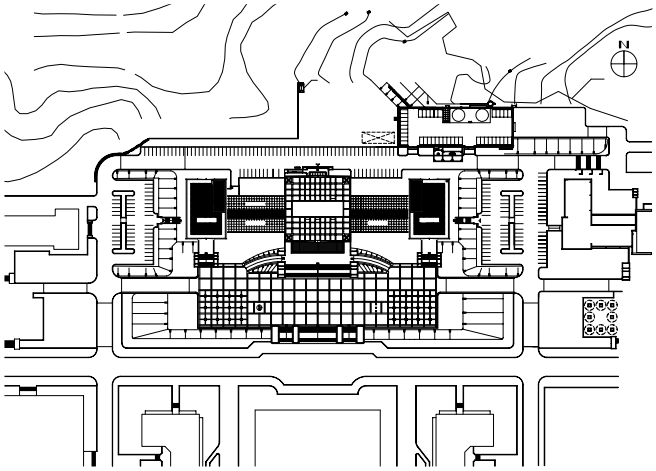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김광섭 / (주)원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by Kim Kwang-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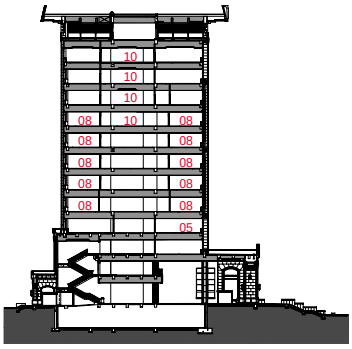
선문대학교 본관동
SunMoon Univ. Main Bldg.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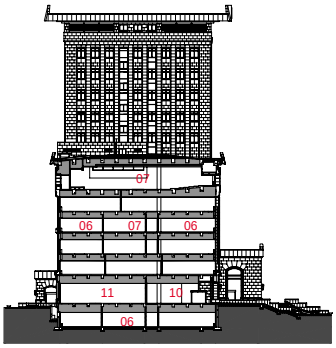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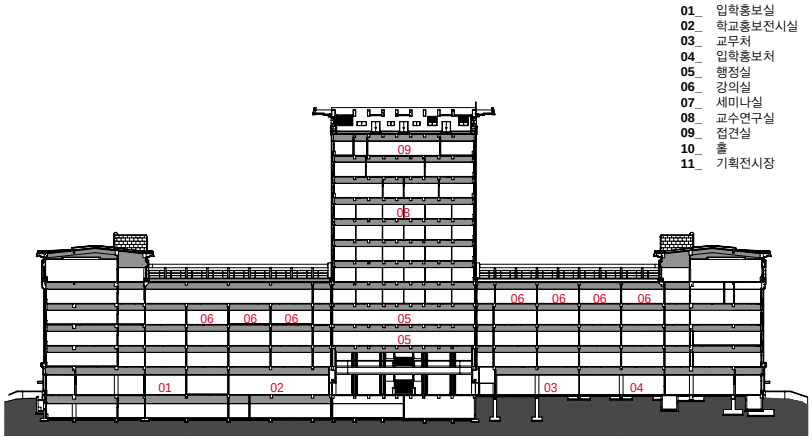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남 아산군 탕정면 갈산리 산 9-1외 140필지
대지면적	613,851.0㎡
건축면적	4,530.7㎡
연 면 적	30,521.34㎡
건 폐 율	5.78%
용 적 률	20.34%
구 조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12층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화강석 건식 붙이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사 진	채수옥(34쪽 : 건축사사무소 제공)



종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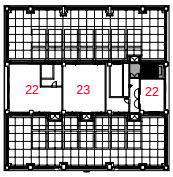
횡단면도

01_ 입학홍보실
02_ 학교홍보전시실
03_ 교무처
04_ 입학홍보처
05_ 행정실
06_ 강의실
07_ 세미나실
08_ 교수연구실
09_ 접견실
10_ 홀
11_ 기획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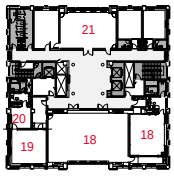
충남 아산군 탕정면에 건립되어진 이 건물은 충청도의 여유와 넉넉함을 지닌 대지의 풍광과 함께 대자연의 산수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오던 종합대학으로서의 마스터프랜과 함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된 건물의 배치는 전체 부지 북단의 삼봉산을 기점으로 남쪽의 국사봉에 이르는 중심축상의 위치에 놓이며, 전체 마스터플랜의 완성된 축과 함께 다른 건물군과의 균형된 배치로 지세의 흐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1차적 완성이다. 본관의 기능은 종합대학의 총괄된 중심이자 전체를 통합하는 기능으로서 건축주의 교육철학과 이념이 담겨진,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세계속의 국제적 대학본관이 되려면 외관 역시 선문대학만의 우리건축문화의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그리고 한번 더 스크린된 모던크라식의 디자인과 함께 구조, 기능, 한국적미의 의미를 절제된 종합디자인으로서 표출하였다.

EXHIBI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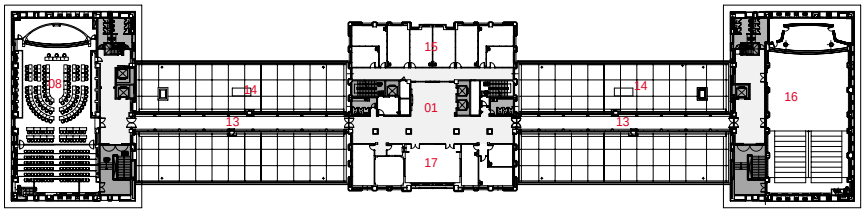
01_ 홀
02_ 학교홍보전시실
03_ 기획 홍보실
04_ 기념전시실
05_ 처장실
06_ 교무처
07_ 계단강의실
08_ 세미나실
09_ 강의실
10_ LAB실
11_ 공조실
12_ 행정실
13_ 회랑
14_ 지붕
15_ 교수연구실
16_ 대강당
17_ 라운지
18_ 접견실
19_ 거실
20_ 방
21_ 식당
22_ 공조실
23_ 물탱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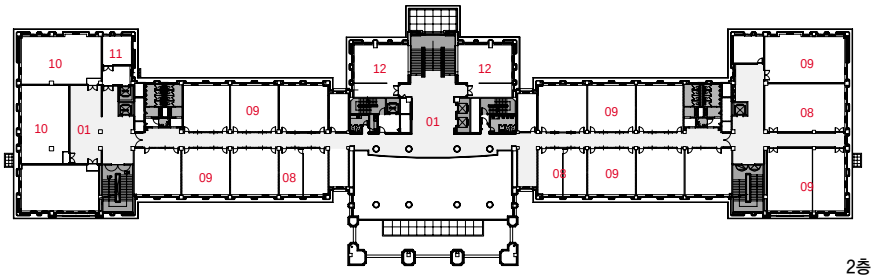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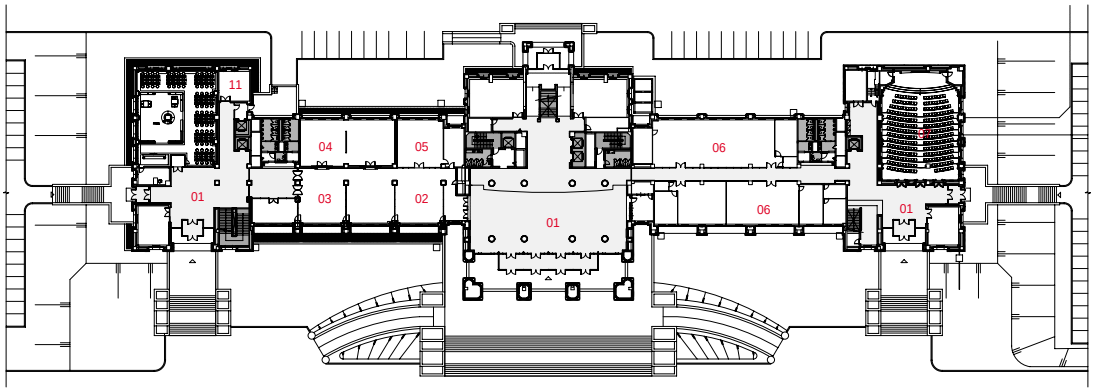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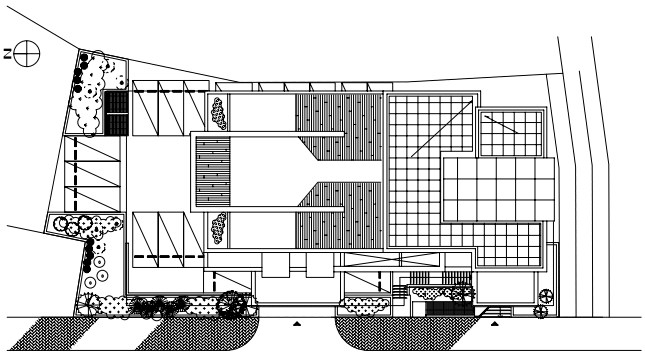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최두길 / (주)아긴건축사사무소
by Choi Du-gil

순복음새소망교회
Full Gospel New Hope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14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대지면적	971.75㎡
건축면적	520.31㎡
연 면 적	2,233.62㎡
조경면적	155.35㎡
건 폐 율	53.54%
용 적 률	156.75%
주차대수	22대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벽 : 내수합판 위 오크무늬목 천정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쉬트, 베이스패널
설계담당	설계3팀(박병준, 김지훈)
사 진	채수옥

교회가 현존하는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교회론의 개념이 없다.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정당화하려거나 혹은 한 특정한 문제를 밝히기 위한 것들을 제외하고 개신교입장이 반영되어있는 교회론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거의 2000년 전에 생겨난 신약의 가르침이 그 당시 시대를 대상화 했지만 또한 현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신학자들도 앞다투어 교회에 관한 다양한 교회론을 주장하지만 일치된 교회론에 관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한국교회가 일치를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면에서도 나타난다. 이 문제는 교회건축의 개념정립에서도 혼란스러움을 가져온다.

종교성으로서 상징성과 기능성을 어떻게 조화로이 건축계획에 적용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항상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신학자들의 다양한 교회론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건축에 대한 개념적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공간의 형식성과 공간적 특징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 형식과 내용들은 개혁할 때 까지만 유효하다'라했고 여기서 개혁은 영어성경에서 'New order'로 되어있고, 주해석서들을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신 사역의 총체성을 규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사역의 총체성

은 교육의 사역, 구제의 사역, 친교봉사의 사역, 예배의 사역 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의 공간적 위계를 가지므로 결국 현대교회의 기능성은 교육, 봉사, 친교, 예배 등의 성서적 사명을 가장 잘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제공이 교회의 성경적 모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종교건축공간의 형식성과 지나친 상징성은 이미 개혁 이전의 패러다임이었고 예수님 이후는 이부분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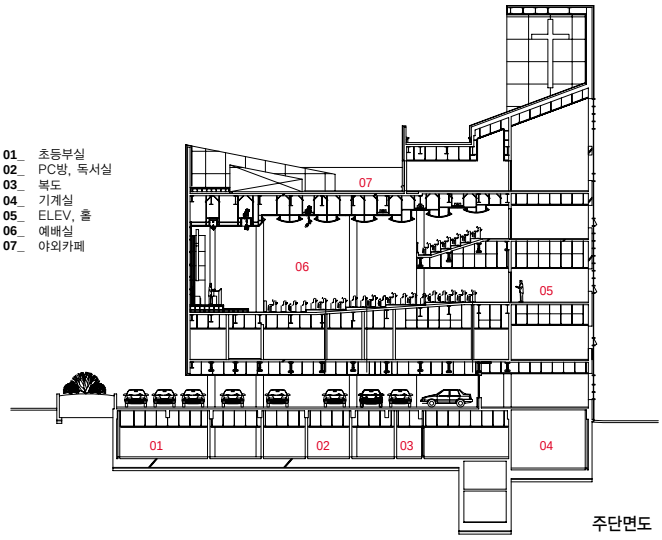
또 하나는 예수님의 특징적 사역중에서 문화사역을 들 수 있다. 리처드 니버는 '하나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며 예수는 문화의 개혁자'라고 했고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생활의 변혁자이다'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문화적 열망을 성취시키고 진정한 사회기구를 회복했으며 문화안에서 인간을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회의 공간은 프로그램에서 교회구성원만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 카페에서 차도마시고 영화, 연극, 콘서트가 주중 내내 열리며 예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교육공간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실은 지역주민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부천순복음 새소망 교회의 설계는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이 이점에 맞추어져 설계 되었다. 특상 옥상의 야외청소년 극장과 카페 등은 젊은이들의 활력적 공간이 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교회가 감당해야할 주요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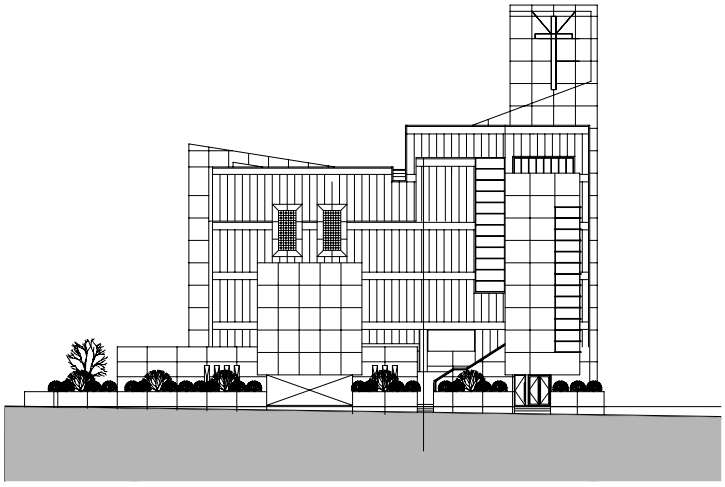
청소년이 겪는 집단속에서의 소외와 같은 현상, 즉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했듯이 사회구조속에서 자기와 빛깔이 유사하지 않을때 토해버리거나 추출해버리는 앙트로포에미아 현상과 같은, 우리청소년들이 고통받는 왕따 현상과 같은 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편협성을 극복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교회가 사회와 유기적 관계그물망 없이 존속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건축 과정도 보면 반드시 기독교인 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편협성, 비기독교인이면 참여기회 조차도 잘 주어지지 않은 편협성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최초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건축과정에서 감독자들은 가나안 지방의 이방인들이 그 역활을 수행했다. 즉 비기독교인이 성전건축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교회는 비교적 모든 과정에서 교회건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잘 진행되어진 교회이다. 반대로 사회도 교회를 굴절되고 왜곡된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기능적 모습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메타테제들이 이

시대에 가장 시원적이며 심층적 진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시대의 철학이나 지적담론을 복속시키지 못하고 신학적 범주 내에서만 자보성의 형태로 공진되어지고 있는 현상은, 타문화의 영역과의 관계에서 지적그물망(에피스테메)이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타영역의 문화와 공존의 양태로 특이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문화적 양태로 전이되고 변환되어 신학적 범주 내에서 극복되어 사회적이고 에큐메니컬 영역으로 진화되어질때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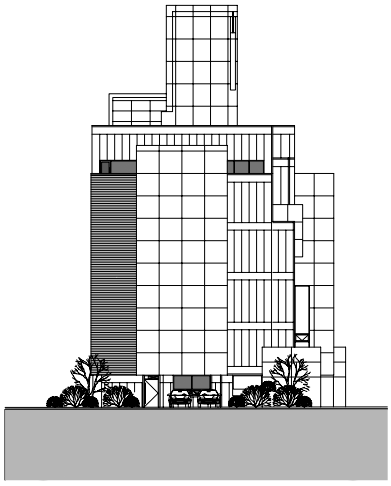
이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설계과정에서 형태언어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교회는 빌딩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다'라는 바울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되는 형태는 인간적 척도에서 비롯되는 소담한 형태일 것이다. 많은 현대교회가 권위지상주의적 볼륨으로 한뼘이라도 높아야 되는 종탑 등 원시적 힘의 현현에서 비롯된 크라토파니적 상징체계를 극복하는 점이었다.


01_ 초등부실
02_ PC방, 독서실
03_ 복도
04_ 기계실
05_ ELEV, 홀
06_ 예배실
07_ 야외카페
07
06
05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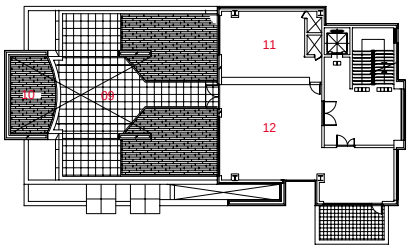
주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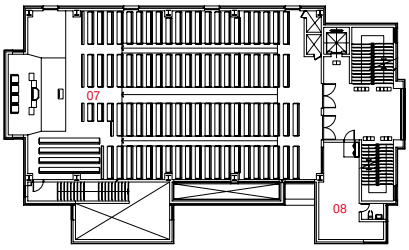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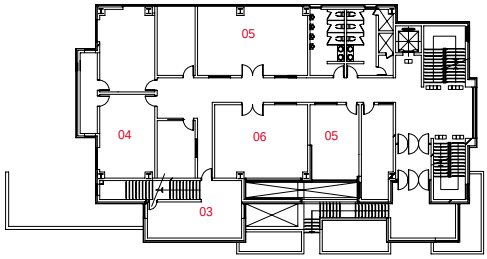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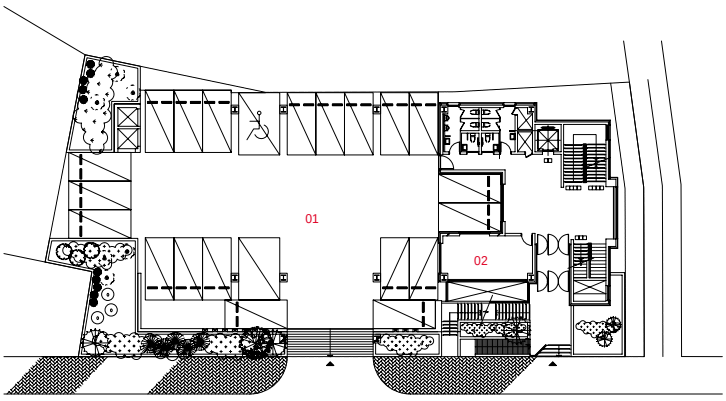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행정, 교회사무실
03_ 성가대실
04_ 담임목사실
05_ 여선교실
06_ 안수 및 제1,2남선교실
07_ 예배실
08_ 자모실
09_ 야외카페
10_ 야외무대
11_ 주방
12_ 식당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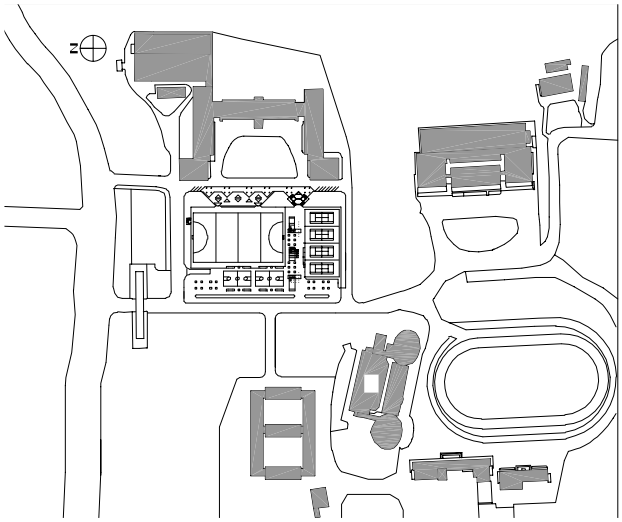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유경일 / 건축사사무소 모인터 + **조대희** /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by Yoo Kyung-il & Cho Dae-hee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스포츠파크

Kyung Hee University Sports Park, Soow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지구
용 도	체육시설(하키장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2면) 휴게공원, 주차장(431대)
대지면적	667.3㎡
건축면적	34.7㎡
연 면 적	12,638.2㎡
건 폐 율	7.7%(캠퍼스 전체)
용 적 률	24.1%(캠퍼스 전체)
규 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에폭시페인트
외부마감	고탄성 아크릴페인트
설계담당	황유선, 김선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 프로젝트는 당초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승용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의 주차난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넓은 캠퍼스를 자랑하는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공간질서 속에 몇 백대의 옥외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지라, 기존 운동장의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부분은 기존의 용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대지가 넉넉하여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겠기에 설계의 관심은 캠퍼스의 공간 구조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본 캠퍼스의 공간은 건물과 전면공지가 짝을 이루면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개개의 건물은 너른 옥외공간 위에 오브제로서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시각적인 개방감과 건물이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대신, 인간 중심의 보행체계를 구성함에는 한계를 갖는다. 동선은 길어지게 되고 옥외공간은 구심력이 없어 사람을 머물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설계대지는 정문을 들어서자 마자 왼편으로 나타나는 공학관 앞 운동장이다. 캠퍼스가 확장되면서 운동장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운동장은 건물군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나, 사천여평의 모래 운동장은 하나의 섬처럼 존재할 뿐 변화된 여건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지는 주변 건물을 통합하는 오픈스페이스로 변신해야 할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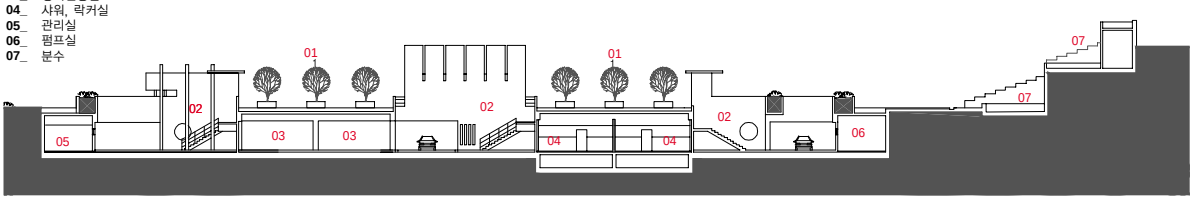
주변 건물 간의 보행 소통을 위한 지름길을 확보하면서 아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보행자들과 지상의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함께 묶는다면 사람을 머금고 있는 휴게공원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다. 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을 갖는 인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기존의 보행 흐름과 접한 면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로변 휴게영역을 마련하였고, 대지를 관통하도록 새로 설정한 보행

영역은 보행자를 모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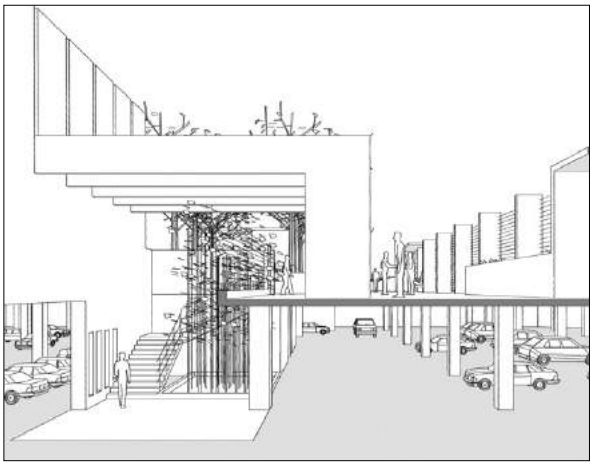
건물간의 간격이 멀고 대지가 넓은 관계로 평면적인 구성으로는 공간의 영역성이 살지 않는다. 보행영역 좌우로 가벽을 세워 느슨하나마 공간을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성장이 빠르고 위로 벌어지는 느티나무를 심어 휴게공간의 지붕이 되게 하였다. 세워진 백색 가벽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남측 햇빛을 반사시켜 주는 장치이기도 하며, 체육시설로부터 날아드는 공을 되튀겨 주는 가림판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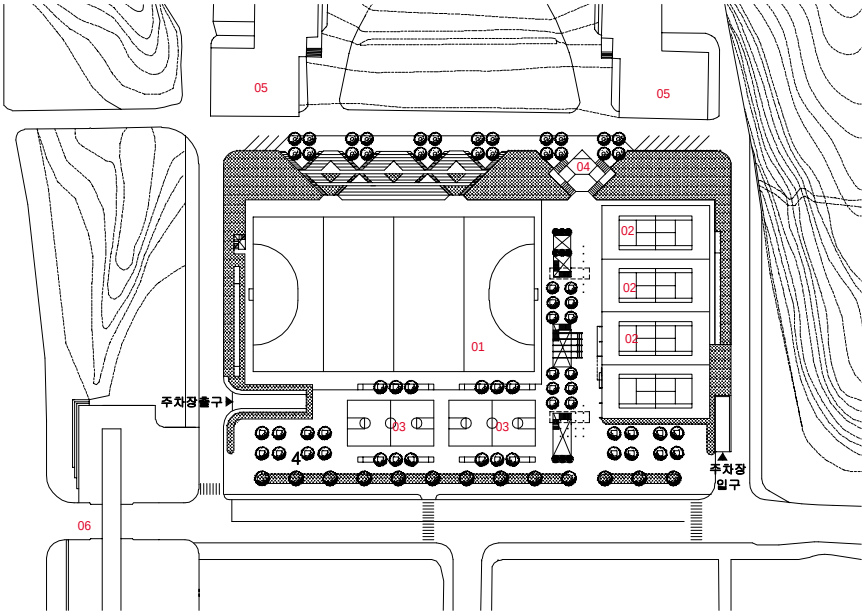
지하 주차장에서는 동선,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기능적인 측면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공간적 경험을 통해 지하와 지상 공간의 연계를 가늠할 수 있는 건축적 장치를 넣고자 하였다. 세 군데에 마련된 오름계단 부분을 넓게 뚫어 채광과 환기를 도모함과 아울러, 각각 특징있는 건축적 표정을 갖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수직 기둥의 다발이 위로 솟아 오르는 서측 계단은 기숙사 방향의 출구임을 알리는 것이고, 여러 개의 보가 그림자를 드리우는 오픈공간은 중앙계단임을 나타낸다. 녹색 넝쿨식물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으면 공과대학 쪽임을 느끼게 한다. 빈 칸을 찾아 한참 돌아다니다 방향감을 상실한 운전자에게 화살표보다는 건축적 경험으로 안내하자는 생각이다. 저녁에 인공빛을 받은 가벽은 주차장 출입구를 안내하면서 휴게공간에 은은한 빛을 뿌리어 준다. (글 : 조대희)

01_ 휴게공간
02_ 계단실
03_ 경기진행실
04_ 샤워, 락커실
05_ 관리실
06_ 펌프실
07_ 분수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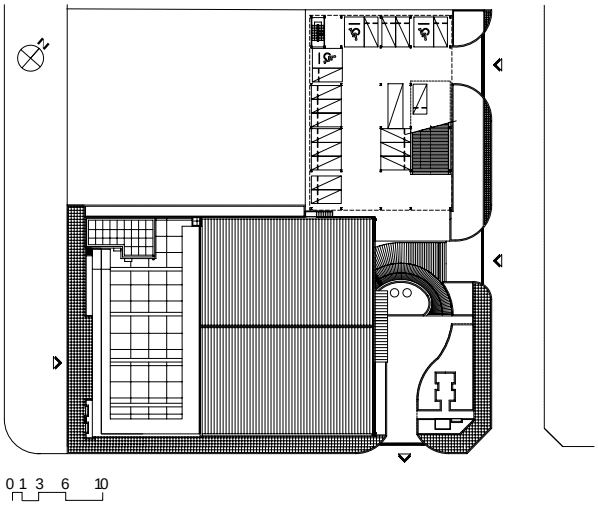
0 5 10 20

01_ 하키구장
02_ 태니스장
03_ 농구장
04_ 분수
05_ 공과대학
06_ 정문

한상운 / (주) 씨티건축사사무소
by Han Sang-woon

오륜교회
Oryun Community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동구 성내동 449-7호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교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대지면적	3,789.60㎡
건축면적	1,703.10㎡
연 면 적	16,523.78㎡
건 폐 율	44.94%
용 적 률	214.34%
규 모	지하 4층, 지상 10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내부마감	1층 바닥 : 화강석(가평석) , 벽 : 화강석버너구이 천정 : AL.SYSTEM 천정판
외부마감	전면 : AL.커튼월 (24mm 파스텔 복층유리) 기타 : 화강석 버너구이 판석
설계담당	고재광 , 김희창 , 김수광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이 오륜교회는 당초 전이건축사사무소(전은배 건축사)에서 1차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작품을 납품 받은 후 설계자의 동의를 받아 2차에 걸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완공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설계변경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륜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건축의 새로운 건축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전개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설계방향을, 열린 교회를 추구하는 오륜교회의 목회 비전이 건축에 담아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념을 재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1. 문턱이 낮은 교회건축
2.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건축
3. 미래사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건축
4.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교회건축

이러한 개념 하에 건물 외관을 전통적인 교회건물 이미지에서 탈피한 일반 건물과 같은 모양으로 설계하였으며, 전면 외관은 ALL.GLASS.AL커튼월로 처리하여 시각적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물의 매스도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성되는 단순한 박스 형태로 하여 지역 환경과 도시적, 시각적 연계성을 고려하며 주변 건물과 조화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회건물이 주일과 정해진 일정시간에만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활용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의도였다.

내부 공간구성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오륜비전센터
ENGLISH SERVICE
TIME : SUNDAY 2:00 PM PLACE : EBENEZER HALL

기능(예배, 선교, 나눔, 교육, 친교 등)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예식, 공연, 전시, 세미나, 독서 등)와 체육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1층에 다목적실과 5층에 독서실, 6층에 겔러리카페, 10층에 체육관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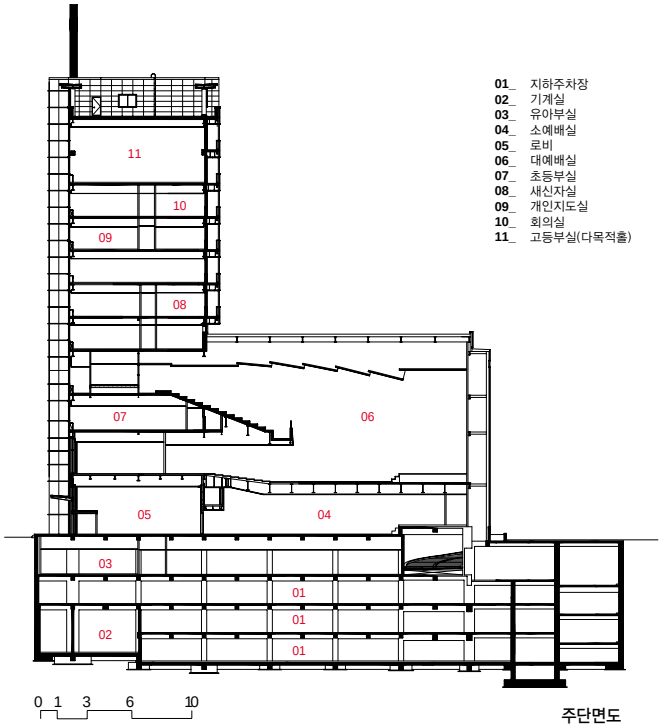
진입동선 처리는 1층 로비에서 2층 대예배실 홀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Open 계단을 설치하여 동선을 단축 하였으며, 하부에는 화단박스를 만들어 실내조경이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계단에 대한 설계자의 의도는 Open 계단을 그대로 외부로 Sunken 시켜 지하1층과 지상 2층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1층로비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건물관리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내부계단으로 변경 하게 되었다. 이점 매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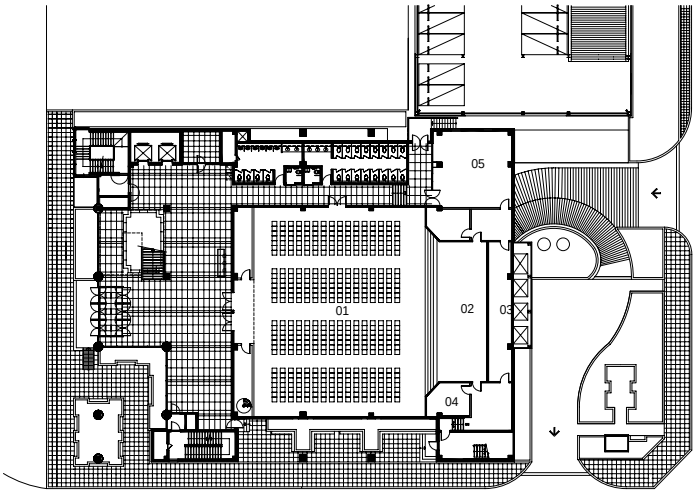
그리고 대예배실과 다목적실의 음향, 영상, 조명, 무대설비를 디지털화 된 첨단설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의 연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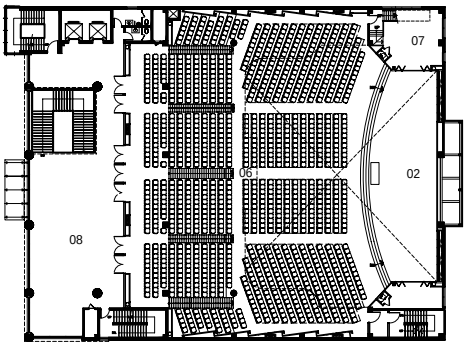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오륜교회 건축은 조형성이나 작품성 보다는 실용적인 기능 위주로 설계하여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과정에서는 교회설계라는 특성에 의해 발주처와 건축해석 차이로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실용주의 건축도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다는 자세변화로 설계를 마무리 하였다.

현재 오륜교회는 추구했던 비전대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개방되어 매일 사람들이 북적이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요구되는 기능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성공한 건축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끝으로 섬기는 오륜교회 건물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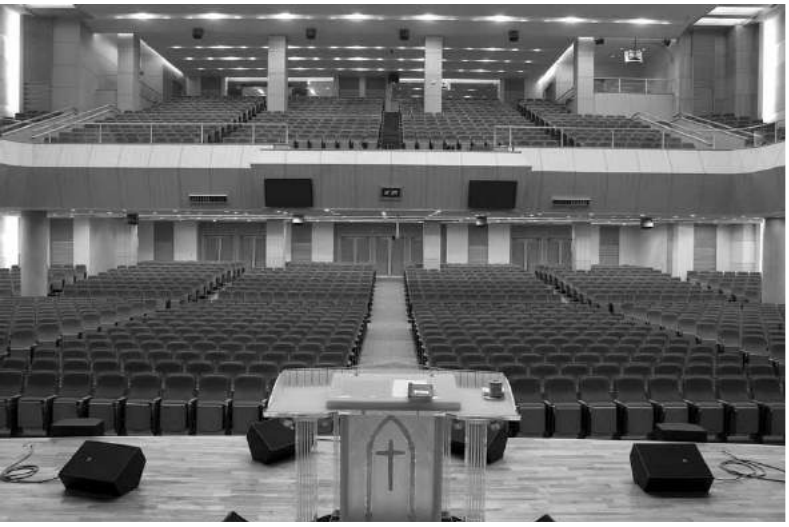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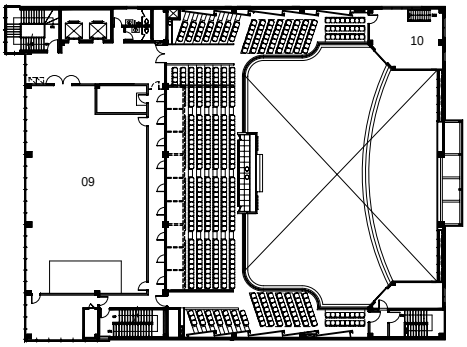


0 1 3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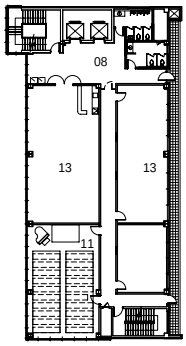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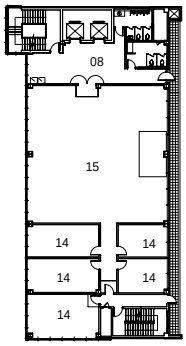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소예배실
02_ 강단
03_ 문서고
04_ 공조기계실
05_ 사무실
06_ 대예배실
07_ 준비실
08_ 홀
09_ 초등부실
10_ 창고
11_ 성가연습실
12_ 휴게실
13_ 새신자실
14_ 분반공부실
15_ 유년부





3층 평면도

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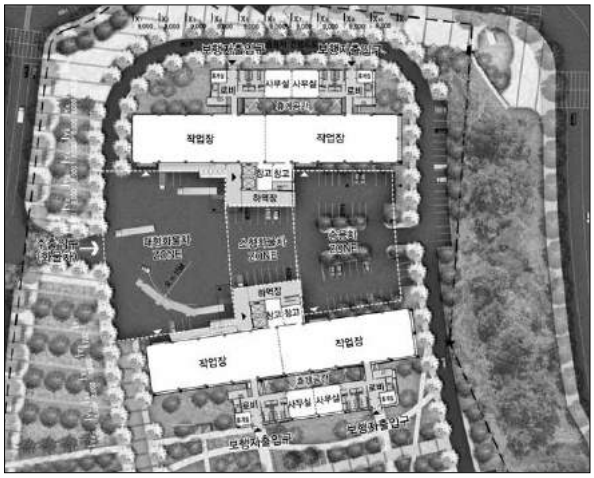
김종국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오근석 / (주) 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ong-kook & O Kun-sok

대불자유무역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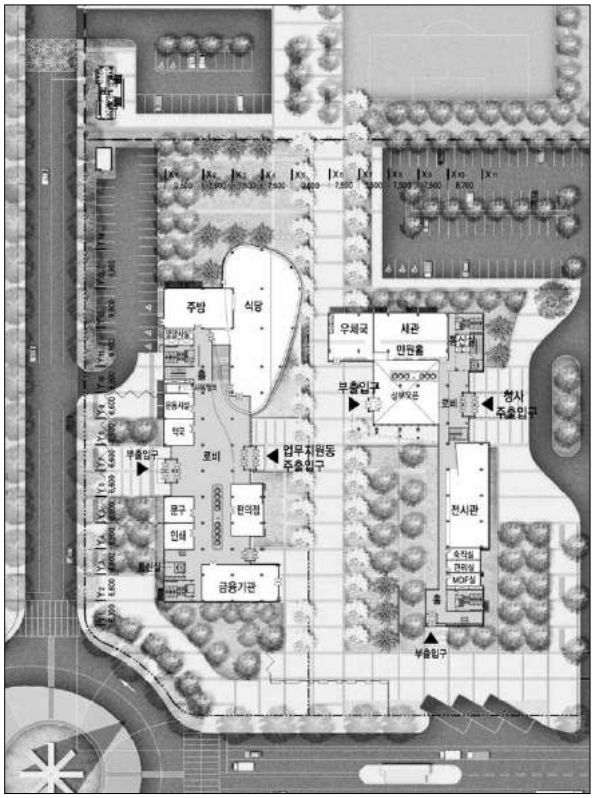
Dae-Bul Free Trade Zone MasterPla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상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5,9BL)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용 도 청사 및 업무지원시설, 표준공장, 물류창고(업무시설, 공장)
대지면적 1,157,844.80㎡(287,412.78평)
건축면적 표준공장 : 18,797.06㎡, 물류창고 : 6,175.10㎡
청사동 : 1,677.11㎡, 업무지원동 : 2,439.25㎡
연 면 적 표준공장 : 50,758.14㎡, 물류창고 : 6,340.84㎡
청사동 : 6,299.75㎡, 업무지원동 : 4,557.75㎡
건 폐 율 표준공장 : 22.72%, 물류창고 : 23.52%
청사동 : 14.65%, 업무지원동 : 30.67%
용 적 률 표준공장 : 61.15%, 물류창고 : 24.15%
청사동 : 46.53%, 업무지원동 : 53.09%
규 모 표준공장 : 3~4F, 물류창고 : 2F, 청사동 : 8F, 업무지원동 : 2F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부마감 표준공장 : 압출성형시멘트판+적벽돌치장쌓기
물류창고 : 압출성형시멘트판+ 샌드위치패널
청 사 동 : 화강석+알루미늄쉬트
업무지원동 : 화강석+알루미늄쉬트
건 설 사 삼성물산 + LG 건설 + 남영건설
설 계 팀 송주원, 서보성, 김진숙, 류창현, 문태현, 류재섭, 황성택(건원) / 박장호, 조병철, 이창동(유진)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김자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안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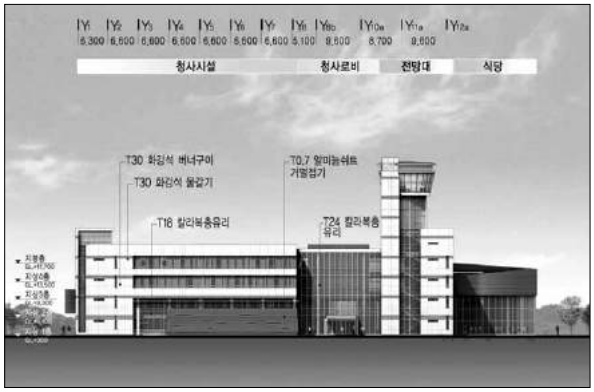


1층 평면도(경공업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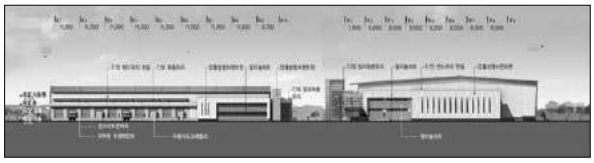


1층 평면도(업무청사동)

1층 평면도(중공업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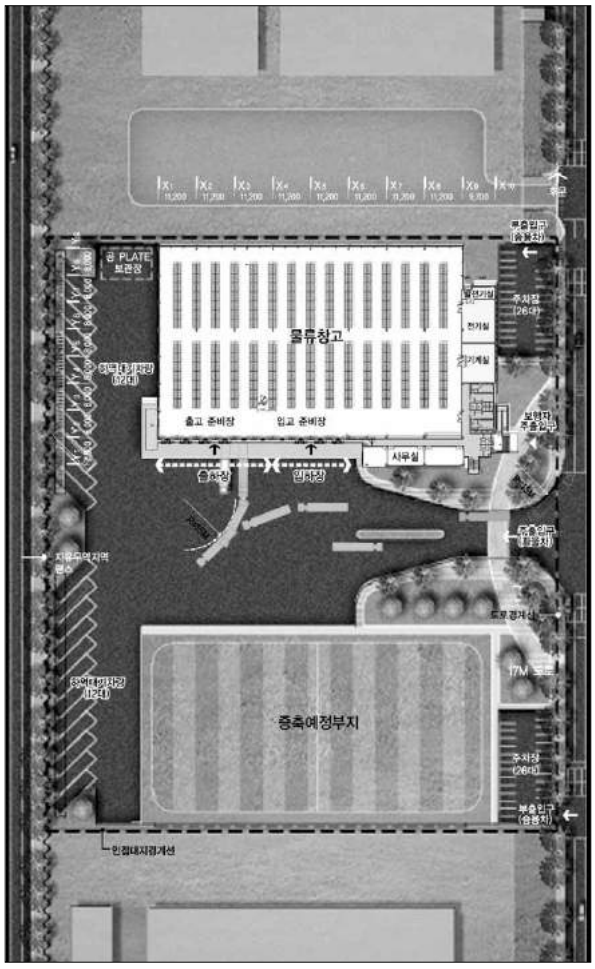


동측면도(업무청사동)



입면도(업무청사동)

단면도(업무청사동)



1층 평면도(물류창고)

설계 Concept

– 호흡(呼吸)

자연과 호흡하는… With Nature

인간과 호흡하는… With Human

환경과 호흡하는… With Environment

도시와 호흡하는… With Urban

① 캠퍼스형 MasterPlan (Green-Network)

미래공장의 개념변화(공장 Science Park Campus Life)를 추구하고, Green Network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꾀하였다.

② 기능성과 다양성의 조화 (Grid & Orga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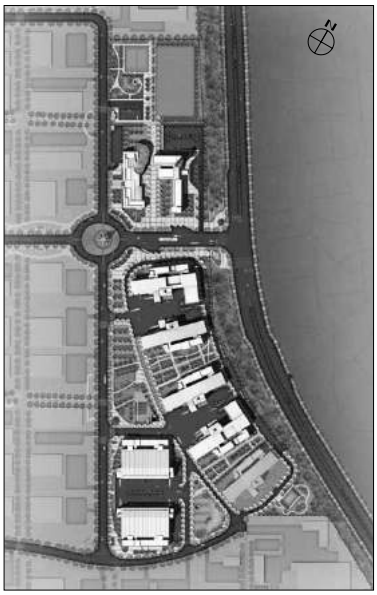
기능중심의 산업단지에 다양성과 활력있는 인간적 공간만들에 주력하였다.

③ 미래지향적 친환경단지 (Eco-Zone)

환경위해시설로서 기존 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Eco-Design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④ 도시경관 만들기 (Urban Band & Urban Filter)

고립된 섬이 아닌 도시의 일부로 도시와 어울리기를 꾀하였으며,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첨단 이미지 필터로서 가로경관 만들기에 주력하였다. 또한 리듬을 갖는 도시가로경관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안명제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by Ahn Myung-jei

성북동 안가(城北洞 安家)

Seongbuk-dong Ahn's House

단독주택 꿈꾸기

이 주택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오다 작년에야 비로소 실현된 필자의 집이다. 내가 설계한 주택에 살아볼 수 있을까 막연히 기대했었는데 다행히 집사람도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하여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탈출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살아온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이다 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과밀해져 주거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 지경이 되었다. 단조로운 아파트 내부구조 또한 너무 닫혀 있어 일상적으로 머무르기에는 갑갑하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살기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어렵다는 통상적인 거부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학군이니 재테크니 하는 주거를 둘러싼 많은 시달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거주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주택을 꿈꾸어 보기로 했다.

살만한 동네 찾기

주택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우리 부부는 살기 적당한 동네를 찾아다녔다. 주말이나 시간이 나는 대로 이곳 저곳 찾아 헤매다 보니 해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동네 찾기는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다시피 했다.

초기에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여 서울근교의 전원주택지인 양평이나 용인, 광주 등지를 찾아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으로 출퇴근 등 생활공간과의 거리가 멀어 길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워 일찌감치 이쪽은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신도시인 일산, 분당의 단독주택지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신도시라는 곳이 알다시피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정리된 필지와 사통팔달 난 도로로 오히려 동네 입구가 어딘지 분간이 잘 안되고 앞과 뒤의 구분이 어려워 무척 혼란스러웠다. 또 일시에 지어진 집들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생경함으로 흔히 말하는 시간성이나 장소성을 느낄 수 없어서 별 매력이 없어 보였다.

다음으로 직주 근접의 이점을 고려해서 사무실부근의 동네도 관심을 가져 보았지만 옛날 강남의 아름답던 주거지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들로 빽빽이 채워져 삭막한 동네로 변해 버렸다. 덩달아 높아지는 땅값 뿐 아니라 더 이상 주택을 지어 살 수 있는 호젓한 동네가 아니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결국 강북 도심에 있는 주택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서울의 도심은 서울이 국제적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등 빼어난 자연 경관에다 궁궐들도 많아 훌륭한 역사, 문화, 환경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다. 무작정 강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겠지만 살펴보면 진흙에 묻힌 보물 같은 동네가 곳곳에 숨어 있다. 우리가 자주 발걸음을 하게 되는 곳으로 경복궁 주위, 북촌이라 불리는 가회동 주변, 삼청동, 청운동 그리고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는 성북동, 평창동, 부암동 등이었다. 점점 자주 가면서 서울도심에 있는 동네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주거지로 형성되어왔고, 별로 개발되지 않아 낯설지 않으며,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구불구불한 길이나 세월의 때가 곳곳에 묻어 있는 인공구조물들,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는 동네 가운데의 오래된 큰 나무들은 건축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장소의 혼(Genius Loci)을 느낄 만한 매력적인 장소들로 보였다. 이런 동네에 어떻게 비집고 들

어가 살아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동네 찾기는 흡사 배우자를 찾는 것 만큼이나 까다롭다. 게다가 빠듯한 예산에 공동건축주인 집사람과의 합의를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무척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그러다 몇 년 전, 오랜 방황 끝에 이 성북동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다. 인접한 삼선교는 학창시절 건축공부모임인 토단이 있던 곳이라 낯설지 않은 동네였다. 그 날, 그 골짜기를 들어가며 계속 펼쳐지는 동네풍경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멀리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짙은 녹음과 숲 속에 파묻혀 있는 집들, 도심 가까운 동네면서도 흔한 아파트 하나 안 보이는 느슨한 풍경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중에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연경관지구로 건폐률 30%, 3층 이하 등 건축규제가 심한 동네였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이 잘 안 되어 결과적으로 땅값도 주변에 비해 낮았다. 이런 여러 조건들은 주택에 살아보려는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졌다. 결혼상대를 정할 때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말처럼 오랜 방황시간에 비해 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땅을 구입한 후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선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아파트 단지에 익숙해 부모의 일방적인 작당이 납득되지 않아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성북동이란 동네가 부촌인줄 알고 왔다가 수더분한 동네풍경이나 아파트 단지와 다른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하며 왜 강남의 말끔한 아파트를 두고 낡은 집을 사놓고 흐뭇해 하는 지 의아해했다.

동네어귀에서 안방까지

필자가 우리 동네로 인식하는 영역의 경계는 동네 초입에 있는 구멍가게다. 막다른 도로 입구에 있는 이 가게는 밤늦도록 부부가 번갈아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서는 낯선 사람과 동네사람을 구별해낸다. 그들은 아파트 경비아저씨나 첨단을 자랑하는 여러 방범설비 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든든한 동네 지킴이다. 동네 입구에서 언덕길을 조금 오르다보면 4미터쯤 높은 축대 위에 이 집 마당이 있다. 누구나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의 건폐율이 30%이니 대지의 많은 부분을 마당으로 쓸 수 있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넓은 실내보다는 넉넉한 마당이 있는 집이 가능했다. 대

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바깥마당은 도로에서 마당이 보이도록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보이는 반대쪽 안마당은 조금 독립적이고 내향적이다. 1층은 안마당을 주위로 한옥의 홑 집처럼 방이 늘어져 있다. 보통 아파트 내부구조가 복도를 가운데로 좌우에 방이 이어지는 겹집이라면 이 집은 각 방들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홑 집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햇볕과 달빛에 노출되고 창을 열면 바람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낮 동안 이 집 어느 곳에도 전등을 켤 필요가 없다. 1층의 중심공간은 식당이다. 식당과 부엌은 각자 생활시간이 다른 가족이 서로 가장 많이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식당 상부는 2층까지 뚫려 있어 1층과 2층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준다. 한실로 꾸민 손님방은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마시거나 머물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 가족을 위한 공간인 거실은 2층에 두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획하고 서쪽으로 서울성이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마주 보이는 앞산을 내부로 끌어들였다. 건폐율한도 내에서 방을 배치하다보니 안방이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3층을 전용하는 우리부부의 처소는 별채 혹은 옥탑방같이 아주 독립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집의 다른 공간은 3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농담처럼 이 방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남산과 남산 타워 그리고 멀리 10킬로미터 밖 테헤란로 고층건물과 북한산까지 안방에 들어와 있다. 어느 날 집에 온 친구부부는 3층에다 방보다 복도와 계단이 더 넓고 많아 오르내리기 힘들고 마당 가꾸기에 골몰하겠다며 걱정스러워했다. 필자 생각에는 이러한 계단과 복도는 마당이나 주변 자연, 도시 풍경을 보는 실내 산책로이며 회랑이다. 그러므로 방만큼 이런 공간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 날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도를 지나면서 주변에 묻히는 즐거움은 따로 시간과 돈을 내고 하는 헬스장가서 땀내는 것보다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집 짓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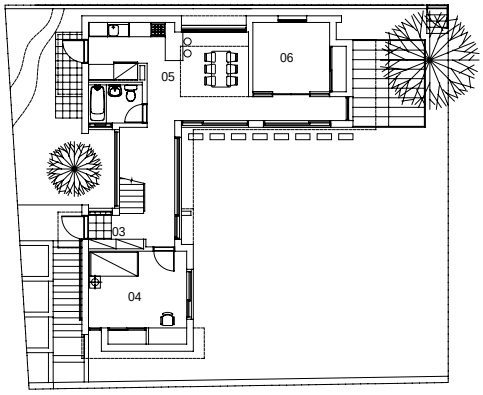
경사진 골목길과 건평 7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일이지만 필자 자신이 직접 지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우리 사무실과 일을 해본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코드가 맞으리라 기대하는 회사에 집 짓는 일을 부탁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대규모, 단순 공사에 익숙한 기술자들에게는 낯설고

도 까다로운 현장이었다. 필자 자신조차도 그 동안 분업화되어 가는 건축직능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실감했다. 평소 사소하다 지나치고 협력 업체들에게 맡겼던 사항들을 새삼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정하고 설계하는 일들이 그리 쉽지 않았다. 건축가들이 가구 디자인에서 도시 설계까지 했던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경설계, 인테리어 설계 등으로 나누어져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 부분이 여러 전문가들의 손에 나누어 맡겨짐으로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우리 주변 환경들은 점점 더 메마르고 열악해지는 것 같다. 우리 집을 짓는 과정에서 유익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평소에 설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던 많은 작업을 직접 해 보았다는 것이다.

집 지을 땅을 찾아다니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 꽃나무에 관심이 많은 아내와 마당에 심을 나무와 화초에 대해 나눈 많은 얘기들 그리고 수년에 걸쳐 나무구경 다니던 일들은 멀리 여행 떠나기 전 마음 설레며 짜는 여행계획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우리가 원했던 마당의 그림은 건축적으로 마무리되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심각한 마당이 아니라 시시각각 철철이 변하는 살아있는 마당이다.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 전부터 자리를 지키던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 여름날 서너달 붉게 피는 배롱나무, 가을에 풍성한 감나무, 고요한 겨울 밤 창에 비친 그림자와 바람에 일렁이는 댓잎 소리를 내는 대나무, 겨울 눈 쌓이는 마당 한켠 담벼락에 기대어 목 길게 빼고 서 있는 자작나무 몇 그루. 이들은 우리 집 마당에 초대된 나무들이다. 이러한 조경 작업 외에도 평소에 주택 설계를 하면서 가구나 소품들을 끝까지 못 챙겨 주다보니 시간이 지난 후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구나 커텐 등 소품들로 실망스러웠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필자가 할 수 일들은 다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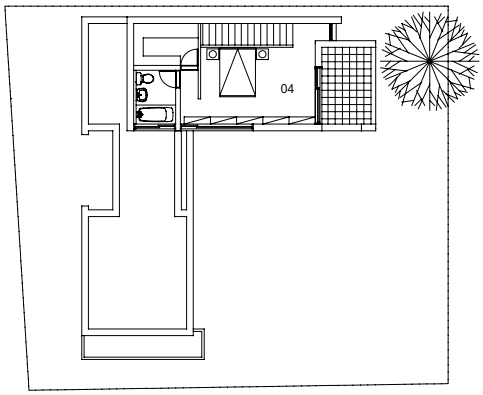
도심 주택에 사는 즐거움

우리가족은 지난 겨울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에도 자연히 민감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 화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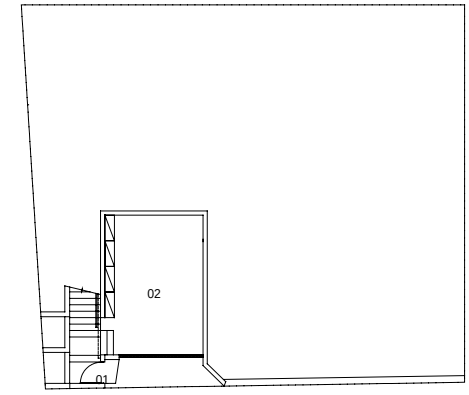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대문
02_ 주차장
03_ 현관
04_ 침실
05_ 식당, 주방
06_ 손님방
07_ 거실
08_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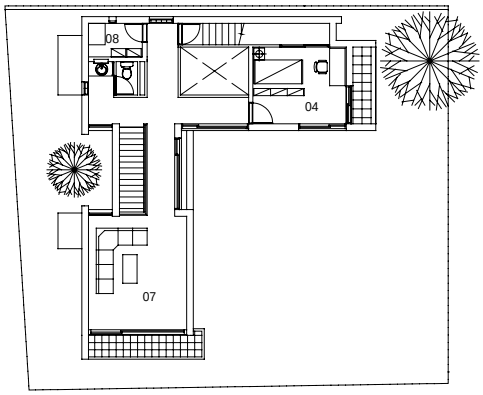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 1 3 6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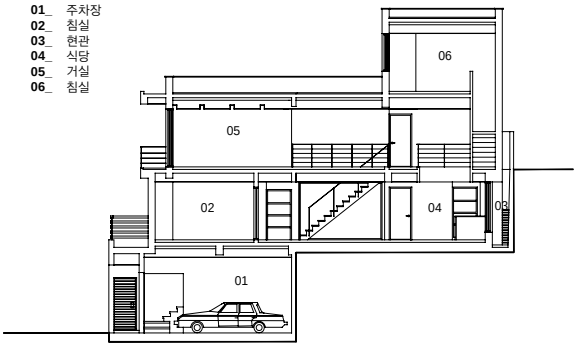
한 날 집안 가득 들어오는 햇살이나, 하얀 벽 위에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 뿐 만 아니라 비가 오면 마당에 비 닿는 소리,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를 온몸으로 느낀다. 주말에는 바로 앞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서울성에 올라 서울 사대문 안 쪽을 보며 삼청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학로를 어슬렁거리면서 창경궁과 종묘까지 걷기도 한다.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 광장시장이나 방산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생활의 즐거움과 여유도 있다. 주택은 아침에 일하러 집을 나서고 저녁에 안식처로 돌아온다는 느낌을 준다. 아파트의 철문 하나를 경계로 안과 밖이 확연히 변하는 단절감이나 집에 머물러 있다 기보다는 집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아파트 구조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요즈음 웰빙이 유행이다. 이젠 느리게 살기, 불편하게 산다는 말이 그렇게 새로운 말도 더 이상 아니다.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푸드에 더 관심을 갖는 시대에 우리의 주거선택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너도나도 다 아파트에만 몰려서 살기보다는 살기 좋은 동네에 건강한 살림집을 장만해 살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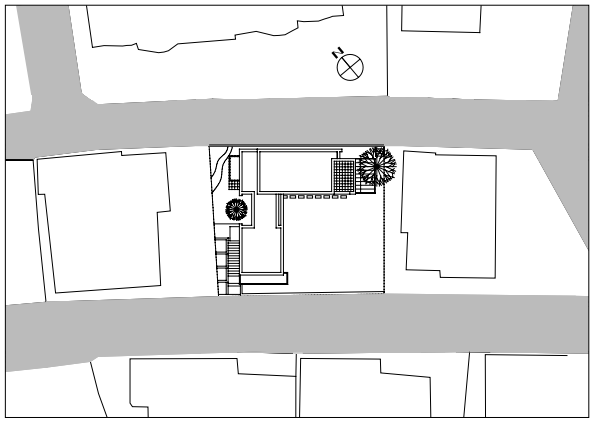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85-33
지역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74㎡
건축면적	80.61㎡
연면적	220.62㎡
건폐율	29.42%
용적률	70.88%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벽단열시스템
시공	예진건설
설계담당	김명희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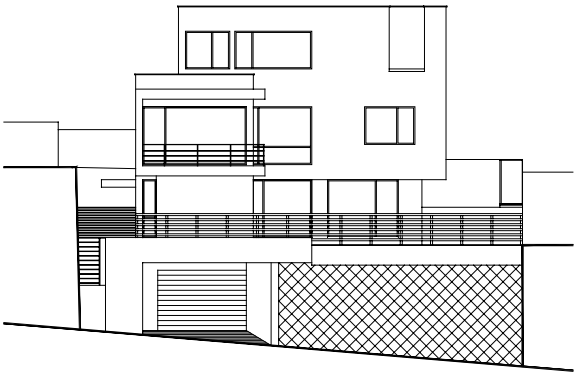


횡단면도



0 1 3 6

배치도



정면도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ng

新 · 재생 에너지 형 설계모델 마련하자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Searching for a New Energy-Recycling Design Model

우리가 사는 도시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도시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지며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 감축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우리 건축사들도 이제는 국제 에너지 정세에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 마음으로 행동할 때이다.

얼마 전 모 방송국 '환경스페셜–태양의 도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매우 심도 있게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본인도 관심 있게 시청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이란 범국가적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작은 도시, 작은 마을, 가정집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획의도에 감사의 찬사를 보내며, 건축문화창달을 목표로 하는 건축사들이 먼저 사고하고 실천하기를 소원한다. '교토의정서' 발효의 사실을 고찰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석유시대 – 지구 온난화 원인(?)

연일 석유가격의 급등이 톱뉴스로 등장하는 '에너지 위기시대!', 이제 석유시대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석유가 2014년이면 생산의 정

점에 올라 2040년 무렵이 되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이미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원이 녹아 해수면이 23cm나 높아졌고, 지구의 연평균 지표면온도는 0.4~0.8℃상승했다. 영화 「투모로우」 이야기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석유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2만여 명이 숨졌고, 2004년 독일에서는 한여름 산악지역에 2m 이상 눈이 쌓였다. 얼마 전 12월에는 동, 서남아 일대를 강타한 '쓰나미(津波)'로 자그마치 28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투발루'는 계속 상승하는 해수면을 막을 수 없어 국토포기를 공식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외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빙하가 계속 녹아내린 다면 약 100년 후면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m 가량 올라가면서 다양한 재앙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감축

기후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8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최근 발표되면서 141개 비준국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란,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 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수소화불화탄소(HFCS), 이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불황유황(SF6) 등 6가지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유보적이던 러시아가 비준함에 따라 전 세계 55개국이상,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라는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 발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39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도 지난 2002년 11월 비준했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멕시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해 개도국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함은 물론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기 때문에 감축 의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미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되면 감축 실적만큼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다른 나라와 기업에 팔수 있기도 한 것을 새로운 위기속의 기회로 보면 좋겠다. 이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같은 의무감축효율화를 위해 '교토의정서'가 채택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응 – 2013년 의무화 전망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계획 중인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자발적 협약사업으로 지원책 마련과 녹색 에너지 가족운동으로 고효율 기기확산과 신축건물 에너지 설계지원 사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활성화, 에너지 관리 진단과 시설 자금 지원,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 향상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 시설 자금 지원, 집단 에너지 사업, 대체 및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보급, 끝으로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제구축 등이다. 또한 산림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490만ha의 숲 가꾸기 사업과 15만ha의 해외 조림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산림경영을 통해 우리나라 임목지 625만ha가 2022년까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100%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우리가 발 빠르게 잘만 대응한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제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의 혁신과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이 필수적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 풍력, 수소에너지 등의 개발에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인증제 – 온실가스 줄여 '돈' 번다

국내의 한 기업이 공장의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세계 4번째로 청정사업체로 등록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고맙고 감사하다. 울산화학은 지난해 대기 중으로 보내지는 불소화합물(HFC23)이 이산화탄소의 1만 100배가 넘는 온난화 지수를 기록하는 심각한 온실가스라는 사실에 '열분해처리 시스템' 공정을

개발해 연간 1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이산화탄소 1톤이 약 8유로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업체는 1100만유로, 즉 150억원 이상의 배출권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금년 1월부터 런던과 유럽 5개국에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해외 조림업체들이 각광 받고 있다고 한다. '한솔홈테크'는 지난 20년 동안 호주에 1만600ha, 뉴질랜드에 9,000ha에 대대적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건산업'도 솔로몬제도에 1만ha, 동해펄프 역시 중국에 4,650ha의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어 국내에 원목을 조달하는 한편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부가적 수익을 크게 올릴 전망이라는 보도는 희망이다.

신 · 재생에너지 – 태양, 풍력, 수소, 지열

현행 법규에 규정된 신 ·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바이오가스,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모두 11종에 달한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신 · 재생에너지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태양광 발전, 풍력, 조력, 바이오 가스, 수소 연료 전지 등의 개발과 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한 내용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14개 발전소가 건립 추진되고 있고 특히 시간당 17MW를 생산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시설이 2006년 완공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전남 해안의 풍속은 초당 6m 이상으로 제주해안의 초당 6.96m에 버금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설건립을 노력중이다. 또 진주 율돌목에 1000kW급 조류발전소의 설치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태양의 도시'프로그램은 고산 태양광단지의 태양 전지판과 25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행원풍력단지의 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는 바람과 햇빛이 제주도 자력발전의 길을 열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외딴섬 육도에는 1,000여장의 태양전지 판으로 세운 태양광 발전소가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이였다. 광주광역시 일원동 맥주공장에 설치된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대구광역시 신천하수도사업에 설치된 태양전지 판의 사례는 이 한곳의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을 70%이상 절감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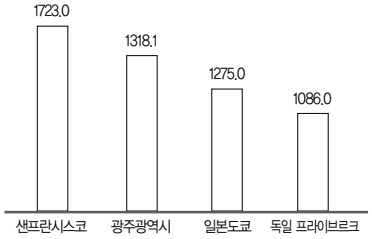
수소에너지는 물에서 뽑아 낼 수 있어서 그 양이 무한하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천연에너지다. 수소와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시스템을 '연료전지'라 칭한다. 이 연료전지는 자동차의 엔진을 대체할 수도 있고, 가정이나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 할 수 있어 21세기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는 단일 최고 품목이라 전문가들은 단언하고 있기도 하다.

농촌진흥청도 최근 땅속 3m 깊이에서 지열을 끌어내 온실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까지 갖춘 히트펌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땅속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특성을 갖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땅속에서 열을 획득하는 '열교환시스템'과 이 열을 이용해 냉방과 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그리고 '보온터널온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열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통해 대형 건축물에 반영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안 – 지붕위의 태양광 발전소

'태양의 도시' 프로그램에서 태양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국내에 제일 적합한 에너지로 평가 되었다. 풍력은 입지조건이 맞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수력, 조력발전소는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자연에너지의 88%는 다름 아닌 태양에너지다.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햇빛은 핵발전소 19기가 만들어 내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일사량은 높은 편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월간 일사량(단위 : kWh/㎡)은

태양전지로부터 발전된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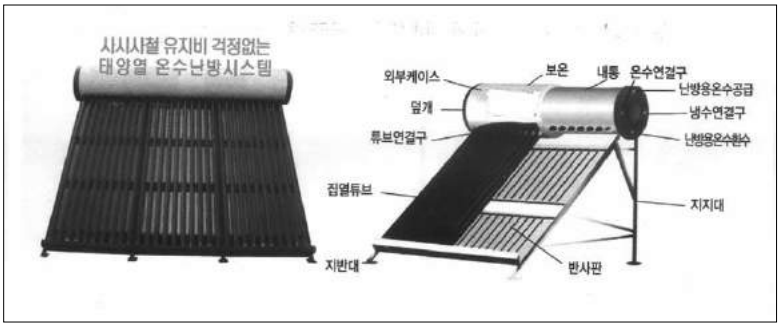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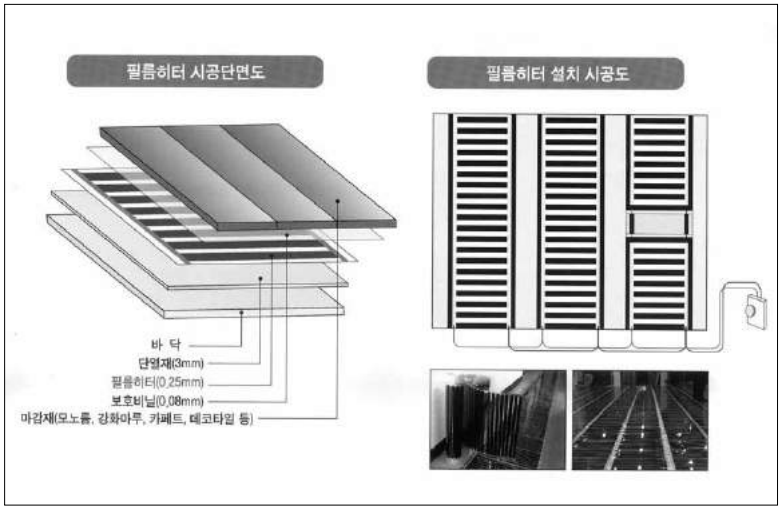
다음과 같다(출처 : 한국에너지 기술 연구원)

그 중에서 독일 프라이브르크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였다는 취재기자의 흥분된 어조는 부러움으로 보였다. 19세기말에 지어진 고풍스런 호텔 지붕에도, 새로 지어진 환경친화적 주택에도 지붕 전체가 태양전지판이였다고 한다.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40%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설치 후 자기 집에서 생산된 태양광전기를 전기회사에 팔수도 있다고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축구장과 같은 공공건물의 지붕에 공동으로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었다. 최근 5년 사이 독일에서는 10만호가 넘는 태양광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사량이 1/3에 불과한 독일의 노력을 거울삼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조속히 '신 · 재생 에너지 형 설계모델'을 제시 하였으면 한다.

실천하자 – 新 · 재생 에너지 형 설계모델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설비위원회를 두고 1990년 「주택편」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을 발간하여 회원들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왔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우리 협회도 새롭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집을 지을 때 단열이 잘되고, 햇빛이 잘 들도록 지어서 난방을 덜하도록 하자'는 모 신문 환경캠페인처럼 구체적인 실천 표어를 제정, 대국민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신기술로 탄생한 고효율 태양전지판과 태양광발전기, 필름히터 등을 적용한 설계모델을 개발, 핸드북을 만들어 에너지 위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한편으로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인들이 조만간 아파트 옥상과 주택 지붕마다 또 오피스 벽면에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팔아 운영비용으로 충당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뭉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진호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Jin-ho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1

Housing Flexibility - Desig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Theory and Practice)'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 10서' 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6회에 걸쳐 연재를 이어가기로 한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 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필자 주)

목 차

01_ 디자인 선례 연구 – 쉰들러의 작품 '쉰들러 쉘터' 에 관하여
02_ 디자인 방법론 Ⅰ : 부분 대칭론
03_ 디자인 방법론 Ⅱ : 비례관계
04_ 쉰들러 이론의 논리적 응용 : 하우징의 배치
05_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 – 네트워크에 기초한 자바모델
06_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하우징 가변성의 실험

※ 저자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 졸업 후, UCLA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강의한 바 있고, 현재 인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건축디자인 및 이론.
박 교수는 미국의 건축가 협회 (AIA) 하와이 건축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4회 아시아 태평양 건축 심포지엄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2년 하와이대학교 평의회 최고 교수상 수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건축대학 협의회 (ACSA) 신임 교수상 수상, 그리고 최근에는 JAAB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의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Nexus Network Journal의 편집위원이며,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Symmetry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디자인 선례 연구 - 쉰들러의 작품 '쉰들러 쉘터'에 관하여
R.M. Schindler's 'Schindler Shelters': Design Strategies and Construction Systems

이미 건축가 루돌프 마이클 쉰들러의 작품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쉰들러의 작품의 중요성이 건축계에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스 홀라인, 찰스 무어, 브루노 제비, 프랭크 이스라엘, 마이클 로턴디, 찰스 꼬레아, 프랭크 게리, 그리고 리베우스 우즈 등을 포함한 수많은 건축가들이 쉰들러의 창의적인 작품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현재 쉰들러의 주택 겸 작업실인 킹스로드(Kings Road) 주택은 로스엔젤레스 건축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쉰들러가 10여년에 걸쳐 계획하고 발전시킨 계획안 '쉰들러 쉘터'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지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빛을 보지도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 바바라 대학(UC Santa Barbara)안의 박물관내에 소재한 쉰들러 문서 보관실의 먼지 속에 소장되어 있던 이 작품관련 도면과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찾아 분석하고, 이 작품의 가치를 인식하며 앞으로의 글에서 이 작품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서론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조립 주택의 건설공법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조립 주택 건설공법을 이용한 주거의 양산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혁신적인 주거개발의 양상은,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하고 가변성이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관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립 주택에 관한 디자인의 질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조립 주택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비 효율성이나 표준 규격화에만 매달려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 결과 조립 주택은 싸구려 주거의 단순반복이라는 오명만을 남겼다. 비록 조립 주택이 다양한 주거유형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되었지만, 실제로 조립 주택의 디자인측면과 생산 수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33년 미국정부의 저가(低價) '도시 정주 장려 주택 정책 (Subsistence Homesteads)' 프로그램에 대하여 쉰들러는 그 스스로 '쉰들러 쉘터'라는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기 시작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공황과 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의 대량생산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루즈벨트 정부 또한 노숙자, 빈민굴, 주택의 부족 및 불량, 노후화에 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었다.

이러한 저가주택에 관한 관심은 새로운 주택 디자인과 건설방법에 있어 당시 건축가들의 접근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벅키 풀러(Buckminster Fuller)의 다이맥시언 주택(Dymaxion house), 리차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의 1+2 디아텀 주택(Diatom House) 등이 이때 계획되었다. '쉰들러 쉘터' 또한 이때 계획되었으나 별로 알려지지는 못했다. 이는 쉰들러가 어떤 사조(ism)나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언제나 홀로 자신의 디자인 언어를 개발,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이해 할 것이다. 이 후 이러한 조립주거에 대한 관심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루시엔 크롤(Lucien Kroll), 어자 에렌크란쯔(Erza Ehrenkrantz) 그리고 존 하브라켄(N. John Habraken) 등으로 이어져왔다.

쉰들러에게 있어 주택의 새로운 건설방법의 개발노력은 건설비의 절감뿐 아니라 건물효율의 증대, 조립의 속도, 부품의 호환성, 노동의 절감, 내구성, 좀더 나은 디자인 그리고 각 주택의 디자인의 특성화와 개인화로 이어진다. 그는 "새로운 건설방법은 주택과 정원에 각 거주자의 개성을 뚜렷이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주택과 거주자 사이에 보다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둘 사이는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없는 사회적인 도구로써 그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립 주택은 개인 주택으로써의 양질을 유지해야 하며 토끼장과 같은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쉰들러 쉘터' 프로젝트에서 그는 체계적인 디자인방법과 건설방법이 통합된 저가주택 아이디어를 주창하였다. 여기서 체계적인 디자인 방법은 공간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에 관한 것이고, 건설공법은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기술적 해법에 관한 것이다. 쉰들러는 기술적으로 항상 틀에 박힌 접근방식을 일탈하였고, 그의 디자인 이론인 '공간건축'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실험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건설기법의 개발은 새로운 건축을 실험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Design Strategy

이 작품에서 쉰들러의 기본 계획은, 이미 쉰들러가 여러 다른 배치계획에서 보였듯이 각 단위주거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고도의 가변성을 허용한다. 기본 계획은 홀을 단위주거의 중심에 두고 그 위에 지붕 채광창을 둔 배치이다. 지붕 채광창은 욕실, 거실 그리고 부엌에도 설치된다. 그리고 부엌, 다용도실, 욕실과 중앙 홀은 기본 배치형태를 가진다. 이 공간들은 코어 유닛으로 모든 배관이 하나의 벽에 집중되어있다. 모든 조립부품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고 공사 현장으로 옮겨져 조립된다. 각 실들은 다양한 크기와 배열형태를 가지며 중앙 홀을 주변으로 바람개비 형태로 배열된다. 각 실의 분할 용도로 사용되는 수납장은 양쪽에서 열리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내부공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차고는 이 주택의 어느 벽면에도 덧붙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을 이용해 쉰들러는 도로변에 다양하게 변형된 단위주거 디자인을 배치하여 그것의 가능성을 적용해 보았다(그림 1). '쉰들러 쉘터' 단위주거가 도로의 양변에 위치하며 차고는 서로 다는 곳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목이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며 각 단위주거의 개인공간을 정의한다. 그는 또한 방의 수, 층 수 등에 따라 다른 단위주거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처음에 이 계획안은 닐 가렛(Neal Garrett)이 고안한 쉘 건설공법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공법은 모든 벽, 바닥, 천정 등의 부재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중막 구조로써 이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은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진 획일적인 쉘 구조체 모양이 된다. 이 공법은 쉰들러에겐 특징이 없는 5피트(약152 cm)의 단위 모듈을 사용하였는데, 쉰들러는 단위 모듈의 크기는 각 건축가의 선택적 요소이지만, 자신과 같은 공간 건축가에겐 디자인의 크기의 조화와 리듬을 주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자신만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피트(48인치, 약122cm)를 그의 기본단위로 제안하고, 그 배수(multiples)와 세분(subdivisions)을 사용하여 자신의 건축형태 및 공간에 필요한 모든 치수를 산출할 수 있게 하였다. 세분에는 1/2, 1/3과 1/4를 사용하였고 방, 창문, 문, 가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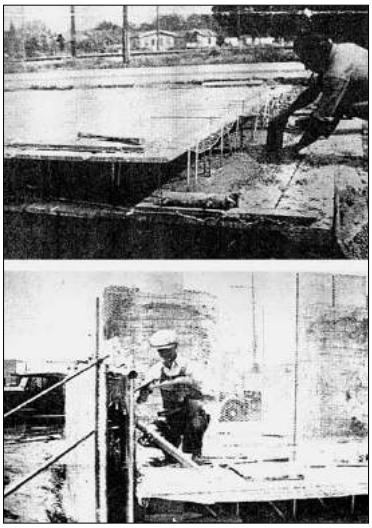


그림 2. 가렛 건설공법 (Garrett construction system)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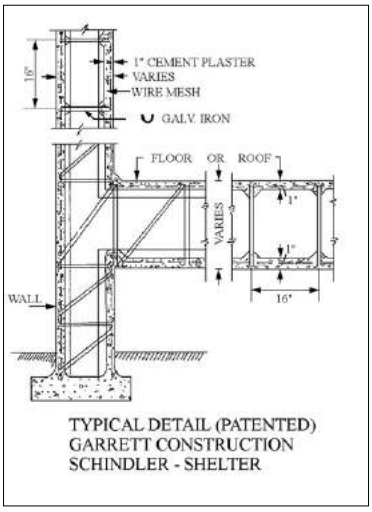


그림 3. 가렛 건설공법 (Garrett construction system) 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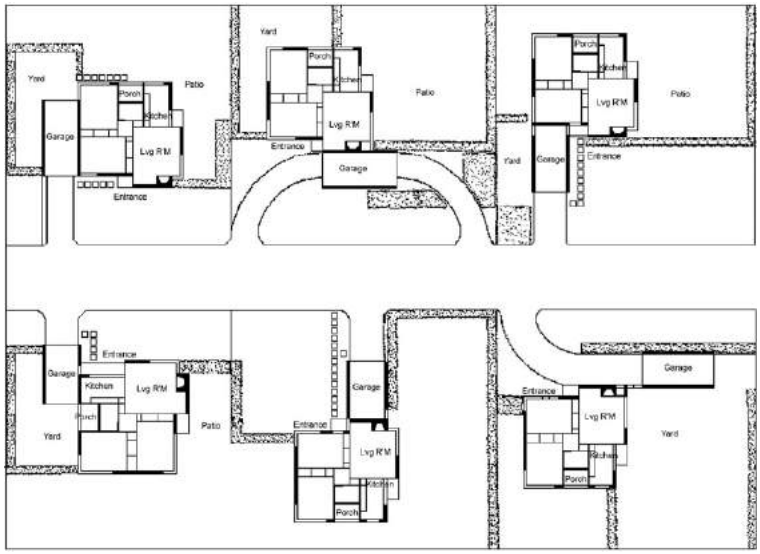


그림 1. 도로 양변의 6 하우징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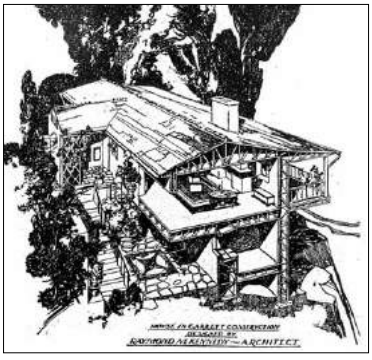


그림 4. 가렛 건설공법 (Garrett construction system)을 이용한 레이몬드 케네디의 디자인(1933년 5월 LA Times의 Sunday Magazine에 실린 가렛 건설공법의 적용에 관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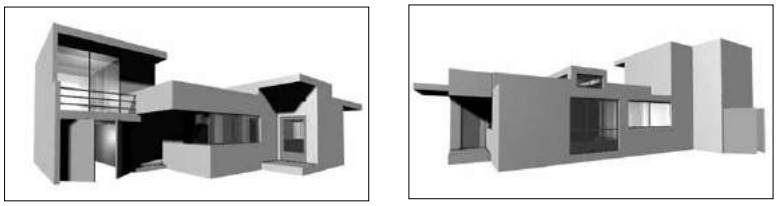


그림 5. 가렛 건설공법 (Garrett construction system)을 이용한 방 3개 형태의 '쉰들러 쉘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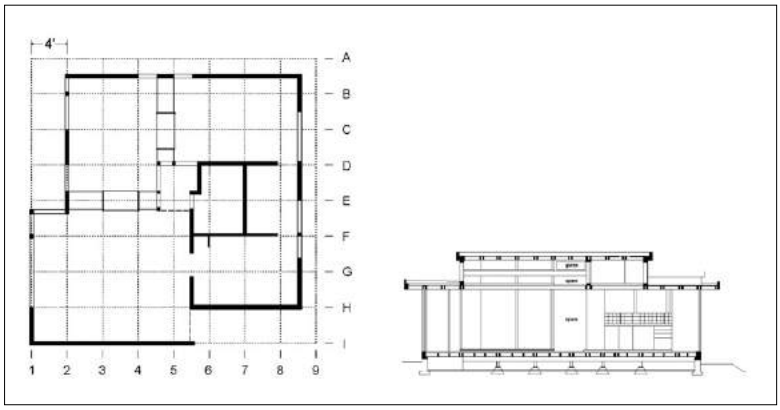


그림 6. 방 두개 형식의 기본계획안과 거실과 부엌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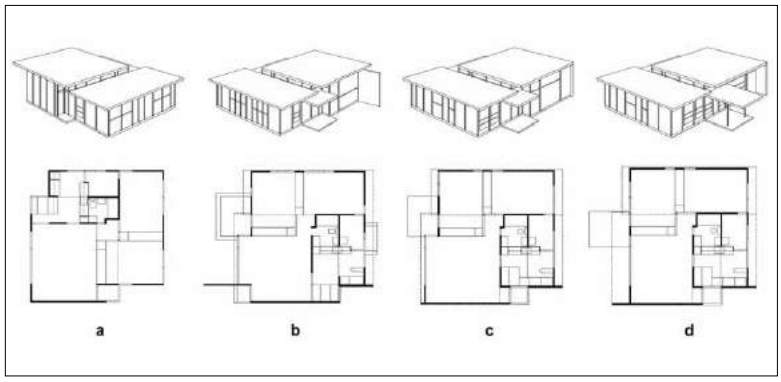


그림 7. Panel-Post공법을 이용한 방 두개 형식의 4가지 변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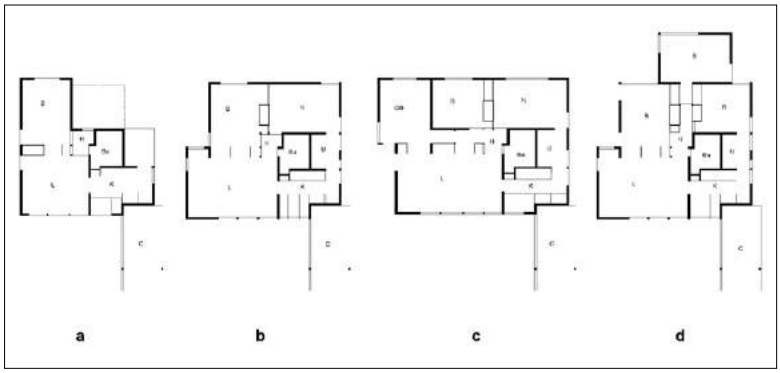


그림 8. Panel-Post공법을 이용한 '쉰들러 쉘터' 프로젝트 계획 대안들

모든 요소의 크기는 이 시스템 하에 통제되며, 이는 곧 건물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고 전체척도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이 부분은 이 연재의 세 번째 '디자인 방법론 II: 비례관계'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935년경 쉰들러는 이러한 가렛 건설공법을, 자신이 개발한 보다 효율적이고 가변성 있는 Panel-Post 공법으로 대체시키고, 가렛 건설공법의 5피트의 단위모듈과는 달리 그의 표준 모델인 4피트 단위모듈을 사용하였으며, 부재들은 콘크리트 대신 나무나 합판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평면을 보면 그의 비례체계의 규범인 숫자와 문자로 그리드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2개의 방을 가진 기본 단위주거 계획안을 바탕으로 쉰들러는 네 가지 변형 안을 제시한다. 자세히 보면 이 안들은 서로가 몇 건축적 요소를 첨가하거나, 약간의 수정에 의해 변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본 단위주거를 이리저리 회전시키고 차고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단위주거 변형 안을 마련하거나 또한 담쟁이덩굴 따위를 올린 퍼고라(Pergola), 캔틸레버식 현관이나 데크(deck), 그리고 붙박이 화분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선택 사항으로 첨가함으로써 시각적 차단 효과뿐 아니라 건물외부의 다양한 외관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수의 다양한 디자인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쉰들러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였다.

쉰들러는 세대의 크기에 따라 Panel-Post 공법을 사용하여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 안으로부터 크기가 다른 여러 변형 안들을 제시한다. 이 안들은 완전히 발전된 것은 아니고, 현재 스케치 수준의 평면도만 남아있다. 이 안들에서 차고의 위치는 부엌에 고정되어있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단위주거의 어느 부위에도 덧붙일 수 있다.

Panel-Post 건설공법

쉰들러는 조립 주택에서 디자인의 차이는 건설공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에 기초한 가렛 건설공법은 너무 가격이 비싼 반면 목재나 합판에 기초한 Panel-Post공법은 훨씬 경제적이었다. 쉰들러는 "기계의 사용에 의한 조립부재의 대량생산은 주택건설의 효율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하향으로 이어지고 주택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쉰들러의 Panel-Post공법은 1943년 그의 글 「조립 주택의 언어」라는 주제로 글이 발표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 그는 Panel-Post공법의 여러 특질들을 34항목에 걸쳐 그림과 더불어 상세히 설명한다.

Panel-Post공법은 대량생산을 위한 훌륭한 조립 공법이다. 모든 건설 부재는 부지에서 떨어진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된다. 또한 부재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재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시도가 고려되었다. 쉰들러에 따르면 "조립 부재들은 간단히 포장되어야 하며 가벼워야 한다. 현장에서 무거운 부재를 들어올리기 위한 특별한 기계가 불필요해야 하며 부재들은 보통의 화물차에도 수송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부재들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부재들의 조립 및 수리도 특별한 기기나 숙련된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쉰들러는 Panel-Post공법의 부재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바닥 패널, 벽 패널, 기둥, 창틀, 문틀, 서까래(end rafter)와 띠벽(facia), 통풍판. 바닥 틀, 그리고 지붕 패널의 9가지로 분류하고, 최소한의 부재수와 각 부재의 가능한 최대 크기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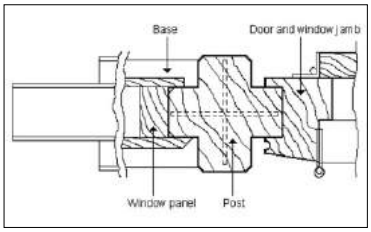


그림 10. Panel-Post공법에서의 기둥과 벽 패널의 접합부위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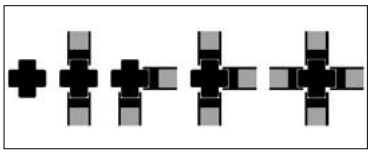


그림 11. 판넬과 기둥의 4방향 접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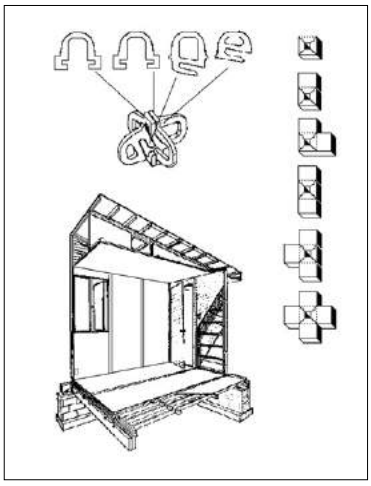


그림 12. 왁스만과 그로피우스의 General Panel System

기둥은 수직하중을 견디도록 모든 부재가 엮이는 구조적인 뼈대의 기능을 한다. 연결부위의 상세도는 현장에서 조립이 용이하도록 단순하게 디자인 되었다. 기둥사이의 간격은 다른 부재들의 표준 크기인 4피트 간격으로 세워지고, 기둥의 형태는 십자형으로 다른 부재들이 기둥 홈 줄에 끼여 맞추어지도록 계획되었다. 기둥과 다른 부재들이 제 위치에 세워 졌을 때 기둥의 네 방향으로 부재들이 삽입된다.

부재 패널들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합판과 같이 값싸고 개조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다. 벽 패널은 0.5인치 두께의 착색된 합을 가지고 이중으로 만들어졌으며 16인치 간격으로 샛기둥이 놓인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패널처럼 샛기둥 사이에 절연재료가 들어가고 창과 문틀 또한 완성된 부재로 디자인되어 기둥사이에 삽입되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바닥 패널은 착색되거나 리놀륨이 깔린다.

여러 관점에서 Panel-Post공법은 이후 등장하게 될 많은 다른 예들, 특히 1941년에 디자인된 콘래드 왁스만 과 그로피우스의 General Panel System과 같은 공법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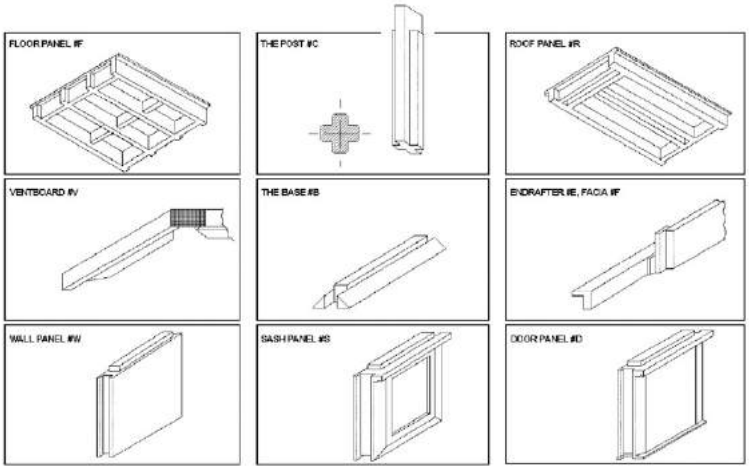


그림 9. 전형적인 Panel-Post의 9가지 부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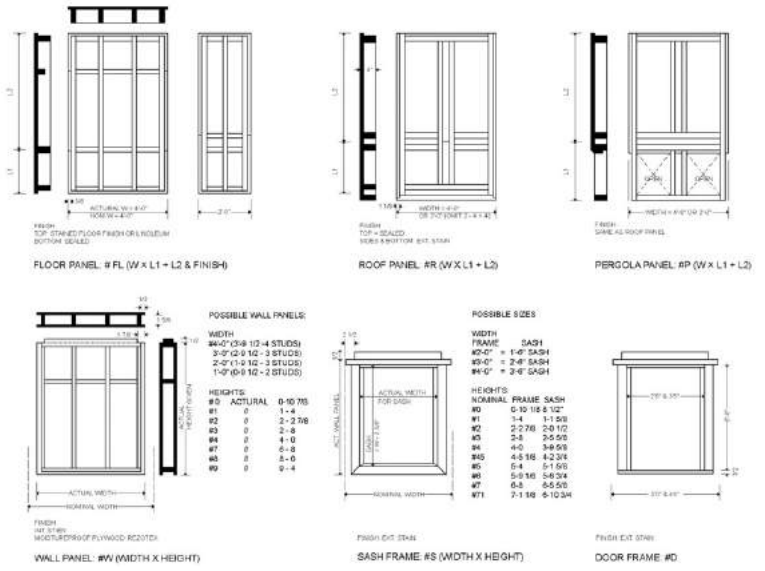


그림 13. 바닥, 지붕, 벽 패널, 문과 창틀 그리고 퍼고라

한 벽 패널은 그 폭이 1, 2, 3 그리고 4피트이고 그 높이는 16인치의 배수 크기로 조절되어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Panel-Post공법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모든 부재가 쉽게 조립 및 해체, 부재교환이 가능하며 비바람을 막기 위해 연결부위를 못이나 꺽쇠를 사용하는 대신 틈새 메우기 코킹을 사용한다. 쉰들러의 단면도는 이 부재들이 어떻게 접합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부재들의 조립이 완성되고 건물이 세워지면 수도, 전기, 배관, 난방설비 시설 등의 여러 기반 시설이 설치된다. 기계설비나 전기공급설비 등은 수리, 변경 등을 위하여 외부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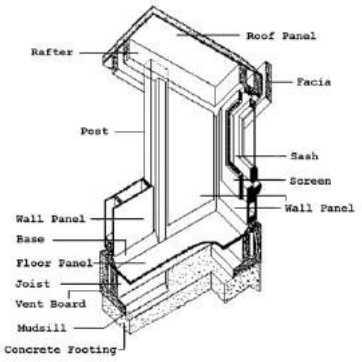


그림 14. 전형적인 Panel-Post공법의 접합 부위 단면도

리 암시한다. 이 공법은 주택의 전체구조가 4방향의 접합 시스템을 가지며 부재의 교환이 용이하게 설계되었다.

Panel-Post공법의 모든 부재 크기는 쉰들러의 비례체계에 준하여 만들어졌다. 조립 주택에서 모든 부재의 크기조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격단위의 모듈조립 방식은 그 기본이 될 것이다. 비록 다양한 크기의 부재가 디자인 되었지만 이 모든 부재의 기본 치수는 쉰들러의 4피트 단위 모듈의 배수(multiples) 및 세분(subdivisions)에 준한다. 예를 들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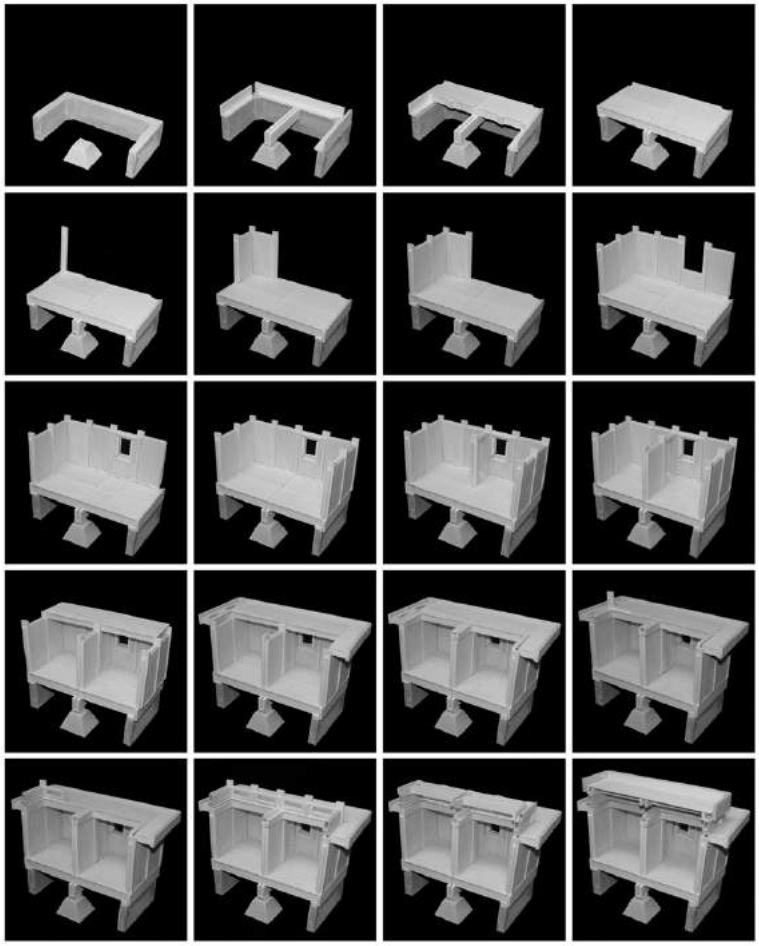


그림 15. 1/2인치 크기의 단계적 조립공정과 각 부재들의 재구성을 보이는 모델

파이프는 부재 내에 미리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는 건설과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현장에서의 작업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납공간, 찬장, 벽장 등도 붙박이나 독립적 가구로 조립부재의 일부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나, 쉰들러는 반드시 Panel-Post공법의 조립 유닛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 한 듯 하다. 왜냐하면 쉰들러는 거주자 자신들이 자기 가족에 적합한 가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 조립식 주택에 각 소유주에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쉰들러의 조립주택 건설공법은 정부나 개발업자와 같은 대규모 주택 건설에 맞게 디자인 되었으나,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크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쉰들러의 Panel-Post공법은 너무 시대를 앞선 것 같다.

이 건설공법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쉰들러 자료실로부터 입수된 도면, 스케치 등의 자료에 근거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측 모형을 제작하였다. Panel-Post 공법의 모든 부재들을 우선 배스나무(Basswood)로 만들고 각 부재를 순서에 맞추어 한 조각씩 조립하여 조립 및 분해공정을 증명해 보았다.

이 과정은 조립과정을 재현하는 것 뿐 아니라 각 부재의 위치 및 접합 상세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한다. 즉, 콘크리트 기초가 완성되면 토대판(mudsill plates)과 함께 통풍판(bentboard)이 그 기초 위에 볼트로 가설된다. 그 위에 바닥판이 올려지고 바닥 틀, 기둥, 벽 패널, 창틀, 문틀 등이 위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론 꼭대기에 지붕과 퍼고라(pergola)가 놓이며 서까래(end rafter)와 띠벽(facia)이 놓이며, 마지막으로 단열재가 처리된 지붕 마감재를 지붕패널 위에 깐다. 여기서 모든 부재는 구조재에 접착제로 붙인다. 못을 쓰지는 않으나 틈들은 잘 메운다. 쉰들러는 이 모든 작업공정의 절차상의 논리를 애매함이 없이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작업공정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짧은 시간 내에 표준 단위주거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었고 그 가변성이나, 다양성, 부재의 교환 가능성 등을 실험하였다. 컴퓨터 내에서 부품의 일람표를 만든 후 필요한 다수의 단위주거 제작은 쉽게 이루어졌다.

결론

이 연구는 쉰들러의 Panel-Post 공법이 당시의 저가 주택 문제들에 있어서 디자인 뿐 아니라 건설공법에서도 훌륭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그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Panel-Post 공법의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체계적인 디자인 방법의 적용으로 인한 이례적인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공간 배치에 있다. 쉰들러의 조립식 공법은 효과적이고 정확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디자인방법과 건설방법이 통합된 저가주택 아이디어는 하우징의 질적 요소뿐 아니라 다양성에 있었어도 계속 응용되어져야 할 잠재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현재 하우징 대안들의 발전에 관한 진행 중인 담론에도 중요한 훈육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아마도 보다 복잡한 하우징 문제들의 규범적인 해결책 그리고 훈육적인 예로 그리고 새로운 하우징 유형의 개발을 위해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글은 '쉰들러 쉘터' 프로젝트에서 추출된 디자인 원리 중 부분대칭 이론에 관해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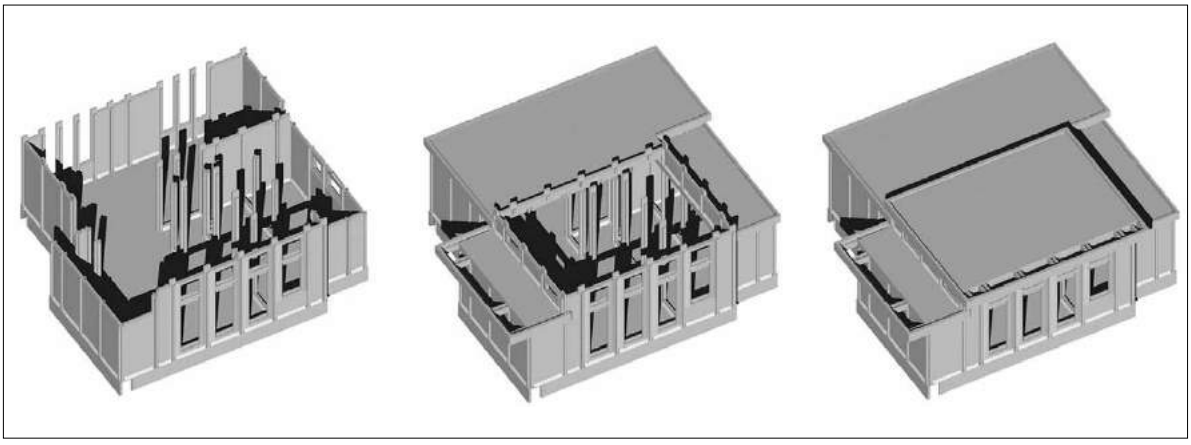


그림 16. 컴퓨터를 이용한 Panel-Post공법의 단위주거 모델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개최

◆제3회(2005. 2. 1.)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안으로 제39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2호의안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39회 정기총회에 원안대로 상정키로 함.
  – 광고미수금은 현황을 파악하여 차기이사회에서 결손처분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시 · 도 건축사회 대여금 상환기준 변경에 관한 건
  – 시 · 도 건축사회 대여금 상환기준 변경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제39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함.
    · 2005. 6. 30.까지 대여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하는 건축사회에 한하여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면제키로 함.
    ·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을 기 납입한 건축사회에는 해당 납입금을 반환키로 함.
• 제4호의안 : 회관건립 계획 변경 승인의 건
  – 회관건립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제39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함.
• 제5호의안 : 제39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제39회 정기총회 의제를 아래와 같이 결정키로 함.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3호의안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의안 : 회관건립 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제5호의안 : 시 · 도 건축사회 대여금 상환기준 변경에 관한 건
    · 제6호의안 : 정회원회비 장기미납회원 징계에 관한 건
    · 제7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제6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 61명을 원안대로 제39회 정기총회에 보고키로 하고,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완납하는 시점부터 추대하며, 추대회원으로 보고 된 총회 당월 분까지의 정회원 회비는 납부하고, 그 이후는 면제키로 함.

▲ 협의사항

• 제 1 호 :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관한 건
  –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함.

▲ 기타사항

• 회관 기공식은 회장 이 · 취임식과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함.

◆ 제4회(2005. 2. 15.)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원신고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정관 및 관련규정 중 회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유보하며 다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작성 통보하기로 함('05. 2. 21. 각 시.도 건축사회에 회원신고관리 업무처리지침 통보)
• 제2호의안 : 임원직무비 지급기준(안) 승인의 건
  – '임원직무비'의 지급과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무회계처리에 적정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원직무비 지급기준을 원안대로 제정키로 함. 시행은 금년도 예산이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키로 함.
• 제3호의안 : 회관 공사감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회관건립을 위한 건설업체가 결정되어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우리협회 회관 건립을 위한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원안대로 체결키로 함.
    · 계약금액 : 일금 190,0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자 :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근석

• 제4호의안 :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분(안) 승인의 건

– 채무자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건축사」지 광고료 미수금을 결손 처분하여 해당 광고료 미수금과 관련한 예산 · 결산업무의 적정화와 회계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광고료 미수금을 원안대로 결손 처분키로 함. (71,940,000원)

• 제5호의안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04년 제13회 이사회('04. 11. 9)의 결과에 따라 부산건축사회회장이 각 시.도 건축사회 회장들의 양해를 구함에 따라 2005 전국건축사대회 부산 개최를 추진하고자 제39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였으나 2005 전국건축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고, 제39회 정기총회에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함.

· 기 간 : 2005년도 상반기

· 장 소 : 부산광역시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 주 관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제6호의안 : 공로패 및 표창장 수여 승인의 건

– 제39회 정기총회 시 수여할 공로패 및 표창장 수여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로패 및 표창장을 제39회 정기총회 시 수여키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회장에게 위임함.

· 공로패 : 정영근 회원 외 8인

· 표창장 : 최성운 직원 외 8인

• 제7호의안 : 「2005 건설의 날」기념 정부포상자 추천의 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로부터 「2005 건설의 날」기념 정부포상자 추천이 있어 건축계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회장에게 위임함.

– 정부포상추천대상자

· 훈 장 : 오운동

· 대통령표창 : 강 신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김성탁, 김선양

▲ 협의사항

• 제 1 호 : 제39회 정기총회 임원 업무분담에 관한 건

– 정기총회 임원 업무를 분담하기여 진행키로 함.

▲ 기타사항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허용방안'에 관한 건

– 제39회 정기총회시 반대결의문을 채택키로 함.

• 정관개정(안)에 관한 건

–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 다만, 정관개정(안)을 포함하여 총회안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하여 총회 전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함.

• 회장 입후보자 사이버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인터넷의 특성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사이버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함.

◆ 제5회(2005. 3. 15.)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이사 업무분장규정 제정에 관한 건

– 이사 업무분장은 위원회 업무와 연계하여 좀더 세분화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 및 담당이사 결정에 관한 건

– 비상근 부회장에는 이길웅 이사와 이근창 이사를 선임하고, 담당이사 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대처에 관한 건

– '규제개혁기획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결정키로 하고, T · F팀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회관건립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되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고, 위원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6호의안 :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 위촉에 관한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 건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는 최명철 이사와 상근부회장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독도 집짓기 운동 추진에 관한 건

– 독도 집짓기 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부하기로 함.

• 제3호 : 친환경건축물 등 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건

– 친환경건축물 등 인증사업을 적극 검토 · 추진하기로 함.

◆제6회(2005. 3. 28.)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5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위원회 조직은 기금연구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업무는 공제사업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장 및 담당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이사업무분장규정 제정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총무이사 및 대변인 선임에 관

한 건

- 총무이사는 이영수 이사, 대변인은 한명수 이사를 선임함.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동영상 장비(750만원)

• 제5호의안 : '독도 집짓기 운동' 추진에 관한 건

- '독도 집짓기 운동'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함.
- 추진본부장으로는 이길웅 부회장을 선임하고, 위원은 본부장과 협의하여 선임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협의사항

• 제1호 : 2005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따른 회원 참여방안 및 예산지원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후원기관 변경(건교부, 건축3단체, 건설협회 등) 및 임시총회 개최시 회의비 지급의 형평성 문제(일반회원과 대의원) 등을 검토

• 제2호 : 회장 공약사항 추진방안에 관한 건

- 이사 3인(강석후, 이양원, 이영수)이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회장 공약사항 추진방안을 검토 · 보완하기로 함.
-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장단기 사업 등을 구분

• 제3호 :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 개최에 관한 건

- '05.4월 둘째주 시.도건축사회 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05.4.19 이사회와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키로 하되, 시간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은 부산건축사회와 협의 결정키로 함.

• 제4호 :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 참석에 관한 건

- 회장과 김규태 고문, 국제위원 1인 등 3인이 참석키로 함.

• 제5호 : 회관 지분에 관한 건

- 향후 회관 지분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키로 함.

• 제6호 : 건축사사무소 대표 초청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 건축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05. 4월 하순경 건축사사무소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키로 함.

▲ 기타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해설집 발간은 건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되, 유가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2005년도 시 · 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6개 시 · 도 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5일 경상북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어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하였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4(목)

▷ 개최장소 :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985명 중 697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대의원 선출의 건

- 선출 대상 대의원의 70%는 구건축사회에서, 30%는 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결의함.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최영집
- 간사 : 신임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최남수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2(화)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47명 중 436명 참석

▷ 의결내용

• FY-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FY-2005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FY-2005 업무대행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FY-2005 건축사신문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박신욱
- 간사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이주권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4(목)

▷ 개최장소 : 대구파크호텔 1층 목련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17명 중 295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 윤종원, 도원회, 임성영, 유흥재, 최재현

– 감사 : 장명환
– 대의원 : 윤종원, 김재우, 김화자, 김팔섭, 장 호, 임해석, 최부영, 임성영, 최혁준, 유흥재, 최재현, 장명환, 최봉상, 전중배, 황종철, 김학상, 박은옥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2(화)
▷ 개최장소 : 로얄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7명 중 124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회비납부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간사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방순필
•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에게 위임(지역 고려)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18(금)
▷ 개최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1명 중 196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김용주
– 부회장 : 김유지
– 간사 : 박동준, 조은식, 주정호
– 감사 : 김동선
– 대의원 : 김용주, 김유지, 김회현, 김후진, 나현엽, 박무길, 윤익상, 이창율, 정재경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5(금)
▷ 개최장소 : 사학연금회관 컨벤션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7명 중 181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이철호
– 간사 : 박순오, 박재일, 이성희, 정미숙, 정종태
• 대의원 선출의 건
– 신임회장에게 위임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3(수)
▷ 개최장소 :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르브르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96명 중 183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최광식
– 간사 : 신임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손진락
• 대의원 선출의 건
– 당연 선출 대의원으로 박문용 본회 직전 회장, 노진달 본협회 직전이사를 선출하고 나머지 1인은 신임회장에게 위임

경기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18(금)
▷ 개최장소 : 경기도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943명 중 283명 참석
▷ 의결내용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본부대여금 상환(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4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정회원 징계(안)에 관한 건
– 원안승인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및 집행부에게 위임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조성원
– 간사 : 신임회장이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선출하기로 의결
– 감사 : 황재성

강원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9(화)
▷ 개최장소 : 원주웨딩타운 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99명 중 74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 강원도건축사대회 개최일시 협의의 건
– 차기 임원 및 지역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로 위임함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이재춘
– 간사 : 김종식
– 감사 : 유은선
– 대의원 : 허민구, 홍순구, 조화진, 이상훈, 박길수

충청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4(목)
▷ 개최장소 : 명암타워 그랜드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29명 중 169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 정익현
– 대의원 및 간사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신상일

충청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3(수)
▷ 개최장소 :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04명 중 91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 일반회계 및 복지회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 일반회계 및 복지회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 조형식
– 대의원 및 간사 : 회장 위임
– 감사 : 신우식

전라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9(화)
▷ 개최장소 : 전북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3명 중 133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김주식
– 간사 : 강신중, 장우섭, 이병곤, 강문수, 김기수, 김동균, 이중철, 장기종, 최현정
– 감사 : 박일영
– 대의원 : 김주식, 이상돈, 장기종, 하정규, 박일영, 이병곤, 강문수, 김기수

전라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18(금)
▷ 개최장소 : 상록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41명 중 88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수지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개선의 건
– 회장 : 장기태
– 간사 : 이재필, 노경윤, 김병삼
– 감사 : 김희곤, 서계원
• 대의원 개선의 건
– 심우석, 김강수, 이봉수
• 비정상운영 건축사사무소 처리의 건
– 차기 집행부에 일임

경상북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15(화)
▷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샹그리라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24명 중 220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추인의 건
– 원안승인
• 2004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김국태
– 간사 : 최용달, 황승환, 최규식, 한정우, 김민성, 김남준, 김재우, 김성태
– 감사 : 이종춘
– 대의원 : 전재기, 임병욱, 장학선
– 지역회장 : 이광우, 정창국, 문경

경상남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22(화)
▷ 개최장소 : 창원호텔 별관1층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84명 중 260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경남건축사회 경조사업 확대 추진에 관한 건
– 원안의 경조사업 관련(안)대로 경남건축사회 경조사업을 추진키로 승인하고, 경조사업 관련 시행시기 및 경조규정 제정 논의는 차기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 2005년도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윤재화
– 부회장 : 장경섭
– 간사 : 신임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이춘식
– 지역건축사회장 : 지역건축사회에 위임(마·창지역, 진주지역, 밀양지역, 하동지역)
– 대의원 : 신임 회장에게 위임
– 경남 대의원(거제 1인) : 거제 지역건축사회에 위임

제주도 건축사회

▷ 개최일시 : 2005. 3. 30(수)
▷ 개최장소 : 제주 KAL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08명 중 63명 참석
▷ 의결내용
• 2004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2005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대행업무운영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박정복
– 간사 : 강철호, 고희범, 나경환, 문석준, 양영진, 이동춘, 장언식
– 대의원 : 김석윤

이순조 회원, 서울산업대 건축학부에 장학금 1억 기증

이순조(명승건축그룹) 건축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산업대학교를 방문하여 앞으로 5년 동안 건축학부 재학생 6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고 장학기금 기탁증서를 윤진식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순조 건축사는 서울산업대학교의 명예 건축학부장이기도 하여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기증식하는 자리가 더욱 뜻 깊었다.

이상림 회원, AIA Honorary Fellow 추대

이상림(주. 공간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미국건축가협회(AIA)가 수여하는 Honorary Fellow of AIA에 추대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AIA Convention 대회 중에 있을 수여식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Honorary Fellow는 AIA가 해마다 그 해 건축과 사회에 크게 기여한 5~10명의 국외 건축가를 추대, 수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으로는 고 김수근, 이광노, 장석웅, 원정수, 이경회, 승효상, 황일인씨 등이 수상한 바 있다.

김석환 회원, 제2회 회화전 개최

김석환(터·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포토하우스에서 두 번째 회화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김석환 건축사의 건축작품과 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는데, 전시도록의 제목은 감상묘현(感想描現)으로서 감상을 그림으로 옮겨 나타냈다는 의미라고 한다.

문의 : 02-3211-3360

건축계소식_ archi-net

2005 한국건축단체연합 윤석우 대표회장 취임

지난 3월 16일 2005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윤석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윤석우 회장은 취임사에서 1년 동안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이며, 작년 대표회장으로 활동한 송수구 회장 및 이리형 공동회장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건축단체연합은 WTO 관련 국제협상 등 건축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하여 지난 2001년에 설립되었다. 3인 공동회장단 실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상기 3단체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을 추대하고 있다.

2005이상건축상 발표

'남남북녀'란 주제로 통일시대 이 땅에 필요한 집합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물었던 제 11회 2005 이상건축상의 결과가 지난 2월 24일 발표되었다.

모두 132점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은 심사위원인 서 현 한양대교수와 김영성 전 북한건축가, 황두진 건축사의 1, 2차 심사를 거쳐 당선 3점, 가작 4점, 입선 8점 등 총 15점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작 3팀은 김진휴(서울대)씨의 '불신천국, 주택택배 시대'와 신동하(목원대학교)씨의 '컨테이너 하우스', 정우석(인하대학교)씨의 '선생님이 군대 간 이유'로서 심사평으로는 "'불신천국, 주택택배 시대'는 구체적 대안보다는 현상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 돋보인 작품으로, 그 이후의 내용은 빈약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불균형이 담고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주택 공급을 물류 산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작품으로 주택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철도로 이동하는 아이디어와 각종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했던 점 등의 창의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인 건축의 질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또한 '선생님이 군대 간 이유'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작업의 완성도, 도판의 짜임새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작업으로 평가했다. 군대 막사를 통일 이후 선생님을 위한 공간으로 해석하였고, 막사를 장기주거로 전용시켰다. 그러나 지나치게 건물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건물 너머의 커뮤니티의 문제로 생각을 전개하지 못했다"고 평하였다.

1. 불신천국, 주택택배시대, 2. 컨테이너하우스
3. 선생님이 군대간 이유

이 외에도 남동호(서울시립대)씨의 '이웃+이웃'과 원계연(강원대)씨의 '흔적 남겨두기', '[싸움]끝에 정든다'의 배용성(건국대)씨, '5호담당제'의 윤지훈(한예종) 씨 등이 가작을 수상하였고, '세상의 중심에서 통일을 외치다'의 진재호(아주대)씨 외 7팀이 입선을 수상했다. 아울러 수상작 전시회가 4월 2일 서초동 세오갤러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문의 : 이상건축 02-549-5383

AQ(U-35)건축상 2005 공모전

- 주제 : 도시 복합체(Compound Body)의 公募
- 발제 및 심사 : 장윤규(국민대 건축대학 교수)
- 주최 : 간향미디어랩
- 주관 : 건축발전연구소
- 신청접수 및 작품접수 마감 : 2005년 11월 5일
- 참가신청 : http://cafe.naver.com/aqlab (네이버 카페명: AQkorea)의 '참가신청' 방에 참가자 이름과 현직(대학원 또는 직장명 등) 및 생년월일을 남겨놓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참가비를 접수하면 개별 등록번호를 교부함.
- 참가신청비 : 5만원(1인 1작 출품 기준)
- 작품접수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21, GML ([AQ(U-35) 건축상 2005] 사무국) 우편접수(11월 5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제출사항 : · A4 용지 크기의 제본된 책자 (표지 두께 포함 5cm 이내로 제작)
- 디지털 이미지작업(A1 용지 크기 기준): jpg 파일로 저장된 CD 1매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택일 (1통)
- 수상작 발표 : 2005년 11월 30일
- 시상식 : 2005년 12월 9일
- 수상작 전시 : 2005년 12월 9일~17일(9일간) 갤러리 정미소(예정)
- 참가자격 :
  - · 대학졸업자 이상 만 35세(1970년생) 이하의 건축인
  - ·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 이상 직장인
- 시상내역: 대상 1점(상금 300만원 및 상패) 外 입선작 10점 내외(상패 및 부상 수여)

문의 : 간향미디어랩 GML 02-3142-1996

호서대학교 건축학 · 건축공학과

2005년도 봄학기 공개 건축 세미나 개최

호서대학교 건축학 · 건축공학 Colloquium은 창립 12주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특강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3번 외래 강사를 초청하여 건축 제 분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사회 예비인으로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 장소 : 호서대 아산캠퍼스 조형과학관 103호
- 날짜별 주제 및 강사
  - 3월 29일 오후 4시
    현대문화의 형성 그리고 도시의 기억 / 김진송(목수, 평론가)
  - 5월 3일 오후 4시
    친환경 건축의 예술성과 기능성 / 김종진(미시간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5월 31일 오후 4시
    LEEUM, 건축과 문화(Mario Botta, Jean Nouvel, Rem Koolhaas) / 한종률(삼우건축)

문의 : 호서대학교 건축학 · 건축공학과
041-540-5770

민건협 2005년 봄 강좌

- 주제 : 세기말 그 이후 ~ 2005년 한국의 건축
- 기간 : 4월 1일~6월 1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민예총 건국빌딩 5층 제1강의실
- 강의내용 및 일정
  - 변화하는 서울
- 4.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울의 미래(권용우/성신여대)
- 4. 8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방향(남진/서울시립대)
- 4. 15 어제의 서울광장, 내일의 용산은?(김진애)
  - 외국건축가와 한국건축
- 4. 22 외국 거대 설계회사들의 한국진출(이영범/경기대)
- 4. 29 3가3색 리움(김원식/안양대)
- 5. 6 RE-세운상가(박성근/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유니버설디자인과 건축
- 5. 13 새로운 디자인 조류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건축(이연숙/연세대)
- 5. 20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장애인 건축(강병근/건국대)
- 5. 27 제품디자인을 통해 본 유니버설디자인(권오재/삼성전자)
  - 유비쿼터스
- 6. 3 생활속의 유비쿼터스(윤훈주/LG연구소)
- 6. 10 디자인 속의 유비쿼터스(김용성/국민대)
- 6. 17 유비쿼터스와 건축(김한준/포스트미디어)

문의 : 02-739-6851, www.kpaf.org

2005정림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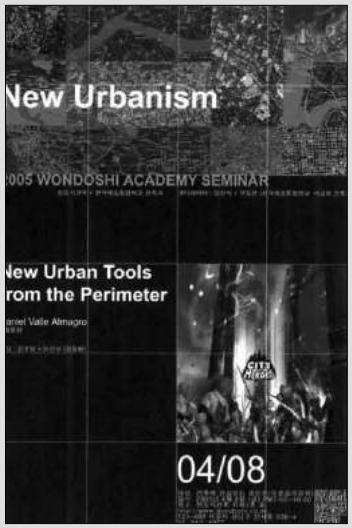
2000년 정림 토요 세미나로부터 출발한 정림 포럼이 올해로 6회를 맞이한다.

올해는 한국성을 국제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여 시행하는 '제1회 정림학생건축상'과 맥을 같이 하여 '세계화하는 한국성 건축을 위해' 라는 큰 주제를 통해 한국 전통건축 및 한국문화의 이해, 건축가 및 타 분야 작가들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강연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장소 : 정림사옥 지하2층 강연장
- 시간 :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일정
- 4월 21일 : 이상해(성균관대 건축학과)/주제 : 한국전통건축의 세계적 보편성
- 5월 26일 : 김성우(연세대 건축공학과)/주제 : 한국건축론의 가능성
- 6월 23일 : 신영훈(한옥문화원 원장)/주제: 집이란 무엇인가?
- 7월 14일 : 이종호(스튜디오메타)/주제: real-reality
- 8월 26일 : 박승홍(정림건축)/주제 : 시적요소를 찾아서
- 9월 22일 : 강석영(이화여대 도자예술)/주제 : 한국의 도자 이야기
- 10월 20일 : 김보희(이화여대 한국화)/주제 : 작가가 바라보는 한국화의 현재
- 11월 24일 : 황병기(이화여대)/주제 : 현대국악의 방향

문의 : 정림건축 02-708-8600

2005 원도시건축 세미나



- 주제 : New Urbanism-현대의 도시론
- 코디네이터 : 민현식, 우동선
- 전반기 진행 및 일정
  - 4. 8 New Urbanism after Modernism (Daniel Valle Almagro)
  - 5. 13 Virtual Environment(이정우)
  - 6. 10 Learning from China(승효상)
  - 7. 8 Metapolis(정기용)

문의 : 02-543-4977,
www.wondoshi.co.kr

2005 건원세미나

- 주 제 : 21세기 도시건축의 방법
- 코디네이터 :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5시
- 장 소 : 건원건축 지하2층 세미나실
- 세미나 일정 및 강사
  - 4월 시설의 건축 / 김광현(서울대)
  - 5월 프로그램의 건축 / 이민아(협동원건축)

- 6월 거대도시의 건축 / 김영준 (김영준 도시건축)
- 8월 유형의 건축 / 신승수(A.rum 건축)
- 9월 표층의 건축 / 강 혁(경성대)
- 10월 지각의 건축 / 김준성(힘마건축)
- 11월 생성의 건축 / 김승회(서울대)
- 12월 시간의 건축 /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문의 : 02-527-1585

2005년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자재 박람회 개최

제7회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재 박람회(7th China International Building & Decoration Fair)가 오는 2005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중국 광저우 국제 컨벤션 & 전시센터(Guangzhou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건축자재 및 장식재와 관련된 유리 제품, 하드웨어, 호텔 및 오피스 설비, 실내 장식/마감재, 욕실, 부엌, 방수제, 코팅 재, 전기, 조명, 석재, 조경, 목재, 장식소품, 창호, 도어, 공구, 설비, 건설기계, 건설장비, 건축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 빌딩자동화, 건물관리시스템 등이 전시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전시면적을 보다 확대하여, 총 130,000sqm(약 7,000여 부스)의 전시 면적에 각국에서 2,500여 업체 출품, 10만 여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들이 본 박람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6회 행사(2004년 7월 개최)에는 14개국 1,647 업체가 참가했으며, 11개국 52,000명 이상의 관련 산업분야의 해외전문 바이어가 방문하여 꾸준히 발전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박람회이다.

특히 광저우(Guangzhou)는 광동(Guangdong)지방의 성도(省都)로, 중국 남부지역의 중요한 상업도시이며, 홍콩, 마카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함께 중국 31개성, 직할시, 자치구 중 경제 규모 1위의 도시로, 2004년 광동성의 총 GDP는 중국 전체 GDP 성장률 9.4%보다 훨씬 높은 14.2%를 달성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광저우 지역의 3대 전통 지주 산업 중 하나인 건축자재 산업은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16회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확정되어, 2010년까지 경기장과 선수촌의 신설 또는 개 보수, 지하철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2,000억 위안(약 28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건축산업 시장이 보다 큰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SBA Korea 02-725-4080

KCC, 고기능성소프트코팅유리 상업생산개시

최근 세계 판유리 산업은 유리의 단순한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복합기능성유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소프트 코팅유리이다. 소프트 코팅유리란, 플로우트 판유리 원판에 금속물질 코팅을 통하여 가시성, 채광성 등 유리의 기본 특성 이외에 빛의 투과율, 반사율을 조절하고, 단열 성능을 향상 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도록 만든 고기능성 제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고기능성 소프트 코팅유리를 국내 최대 판유리 생산업체인 KCC(대표: 金春起)가 2005년 3월 부터 본격 상업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소프트 코팅유리 생산은 지금까지 단순한 용도로 쓰였던 유리에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판유리 시장에 고품질의 유리를 유통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KCC 소프트 코팅유리는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특성에 따라 반사유리, 로이유리, 복합기능성유리로 구분되는데, 반사유리는 유리의 반사율을 조절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여름철 뜨거운 태양열 차단 및 사생활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이다. 로이유리는 일반유리의 단점인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으로, 유리표면 결로 예방이 가능하고 겨울철 난방비 및 여름철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이다. 그리고 복합기능성유리는 반사유리의 장점인 여름철 태양열 차단성능과 로이유리의 장점인 겨울철 우수한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제품으로서 KCC가 내세우는 전략 품목이다. 특히, 로이유리와 복합기능성유리의 경우, 해외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 주는 건축 자재로 이미 판유리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제품이다.

KCC는 소프트코팅유리가 소비자에게 조기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사유리는 그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인 '선마일드(SUNMILD)'와 코팅 후 강화 가공이 가능한 '선하드제품군으로 나눠지며, 로이유리는 '이글라스(E-GLASS)', 복합기능성유리는 '이맥스(E-MAX)'로 브랜드명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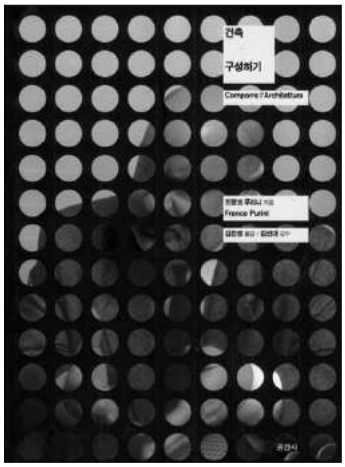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신간

건축 구성하기

이 책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축가이자 이론가, 교육자 중 한사람인 프랑코 푸리니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베네치아 건축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모은 저서 『Comporre l'architettura』를 번역한 책으로서 건축인들이 만나는, 또한 고민해야 하는 수많은 건축적 지식, 문제, 담론들에 대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고의 구조와 관점으로 자유롭게 서술하였는데, 특유의 문장과 복합적 논리 전개 속에서 신합리주의의 마지막 주자인 프랑코 푸리니만의 독특한 관점과 논리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가 건축조형의 원리에서 시작하여 기술적이며 실용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면서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푸리니 교수의 '건축 구성하기'는 건축의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론적인 측면을 부상시키며 건축하기의 구석구석을 조명해준다.



프랑코 푸리니 지음 · 김은정 옮김 · 김선아 감수 /220쪽/9,000원/(주)공간사 발행 02-747-2892

건축가는 어떤 집에서 살까

이 책은 멋들어진 건축물을 보며 "이런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까?"라는 한번쯤은 품어봤음직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다.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류춘수, 선유도공원과 아이사선수촌을 설계한 조성룡, 느낌표도서관의 정기용, 인사동길의 김진애 등 건축에 대해 문외 하더라도 익히 들어봤을 13인의 건축가가 이른바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하게 사는' 집을 소개하는데, 말미에 김진애 건축가가 에필로그에서는 건축가들의 집에서 여덟 가지 특색을 찾았다고 소개하고 그 특색들을 풀어냈다.

"잡지에서 나오는 화려한 집이 꼭 좋은 집은 아니다. 주인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 배어나는, 집주인의 독특한 취향이 묻어나는, 집 스토리가 있는 집이 좋은 집"이라며 끝을 맺는 이 책은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하게 사는' 비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한다.

서울포럼/244쪽/16,000원/서울포럼 발행 02-514-983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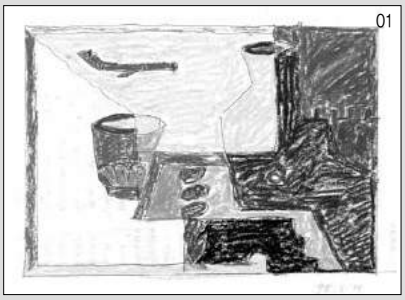
나의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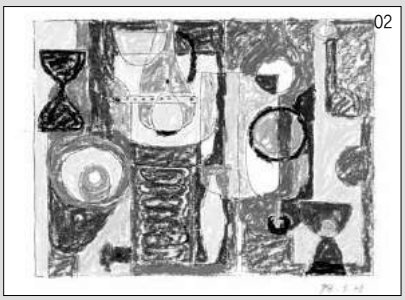
My Picture's story

김석환 / 터 · 울 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다시 회화전을 준비하자니 10년 전 1회를 준비할 때가 떠오른다. 그 때는 지금보다 마음의 부담이 더 컸었다. 처음 해보는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번거로움, 그리고 나의 작품을 많은 사람 앞에 내어 놓는다는 부담감도 많았다. 그래서 전시를 끝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벌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 그림이 쌓이고, 그림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 자체가 변화된 면도 생겼다. 또 그동안 일 년에 두 번 정도 내가 속한 한국풍경화가회와 건축가미술전 등 정기적인 단체전에 줄곧 참가해오다보니 그에 출품한 그림만도 족히 한자리에 모아놓을 만한 숫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때 내 작품 앞에서 스스로 갖게 되던 감회를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과 함께 느낌을 나누며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다시 전시를 열게 되었다.


01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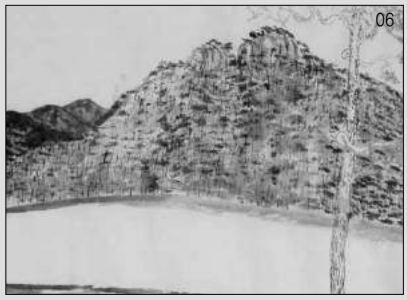
01_ 금비녀가 있는 정물 02_ 호리병과 피리가 있는 정물
03_ 밤섬 풍경 04_ 불암산의 여름 05_ 용문산의 보이는 봄날 풍경

첫 번 개인전 때, 그림은 그림으로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나의 그림에 대해 내 생각대로 교감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의미가 진솔히 전해질 것을 바랐다. 작품들 가운데는 수채화, 유화가 섞여 있었는데, 질료 속성에 구속을 덜 받는 수채화에서 나의 감각이 더 잘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무렵이라 별로 경험이 없었던 유화 기법을 익히고 싶어서 유화 제작에 나름대로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하지만 그 그림들에 대해 나의 느낌대로 표출되지 못한 불만이 있었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다. 먼저 전시가 임박했을 때 그림을 전시장에 내 놓는 것을 의식하여 조금씩 손질한 것이 현장에서 그릴 때 가졌던 감각을 손상한 결과로 나타나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그때에도 현장감을 중시하긴 마찬가지였으나 나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시 후 그 그림들에서 진솔한 느낌을 잃어버린 것이 매우 큰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캔버스 앞에 선다. 나는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그것을 확실히 의식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감성을 지닌 존재로써 대상을 대할 때 내면에 일어나는 감흥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러 갈 때마다 나는 그 날 어떤 풍경과 만날지 설렌다. 혼자 나갈 때도 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사생에 나가는 날이면 현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충동에 의해 바삐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연기 퍼지듯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앞에 두고 자리를 잡는다. 그날의 사생지 조건과 기후는 모두 감수한 채, 화구를 펼치고 사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림을 완성할 시간동안은 거의 무아지경이 된다. 땡볕이나 추운 날씨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곳에 그냥 있으라면 잠시도 머물기 어려울 것이다. 무료함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듯 시간은 짧게만 느껴진다. 화구를 펼쳐 구도의 대략을 잡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사생을 시작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발하고 느낀 느낌을 원근과 구도에 맞게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색을 찾기 위해 애를 쓰거나, 광선이 달라져 인상이 변하기 전에 빨리 화면에 옮기기 위해 그 물감을 서둘러 붓으로 칠할 때, 또 그림을 그려가다가 순간순간 명상에 잠기듯 바라보는 사이 시간은 금새 흘러버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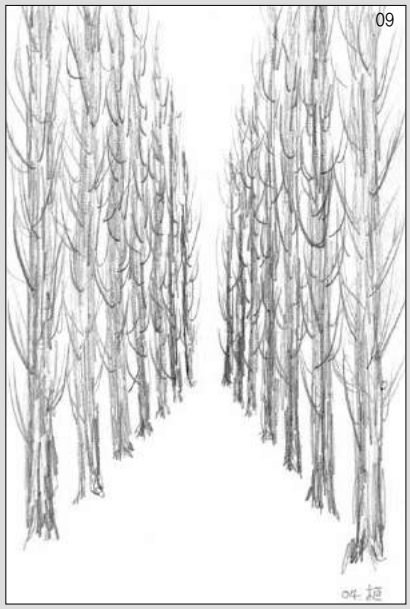
그처럼 감흥의 순간을 빠르게 옮기는 과정에서 화면에 의도한 선명한 감각이 나타날 때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그려진 그림 앞에 서면 늘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감각적 묘사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림이 완성되어갈 때면 묘사의 충실도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고 그를 위에 더 손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러나 완성도를 의식하여 손질을 하다 보면 좋았던 것까지 잃게 될 염려가 있고 손질이 가해질수록 더 칙칙해져서 야외 사생에서의 감각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경험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기로 한다. 그림을 그려가다가 어떤 순간 더 손질을 가하면 나의 감각과 다르게 변해버릴 염려가 느껴질 때 결단을 내려 붓질을 멈춘다. 동시에 부족한 아쉬움도 느끼지만 경험상 그 때가 멈출 용기를 발휘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새삼 의식한다. 1회전 무렵에는 그런 갈등 속에서 손질을 해 그림을 잃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단숨에 그려진 그림 위에 아예 손을 대지 않을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화풍이라고 여기고 있다.

나는 사생지에서 만난 구경꾼들로부터 그림 그리기에 대해 선망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그러나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물을 인식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과 직업인 건축에서처럼 현실적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아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그림 그리기는 문인이 글로 묘사하듯이 붓질을 통해 그


06

07

08


09

06_ 낙동강과 변산 07_ 아침햇살에 빛나는 물결
08_ 강상 09_ 가로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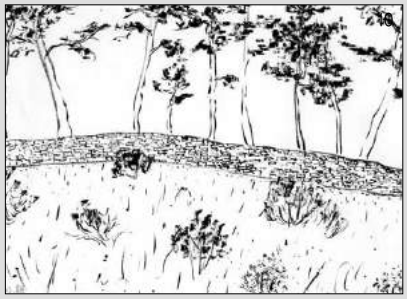
느낌을 화면에 표현하는 행위이다. 대상을 보고 생긴 감성이 갖가지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건축가로서 생각을 도면으로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린다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지 조형언어의 소양을 넓힐 생각을 갖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다분히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르 코르뷔제를 의식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의 의미가 유쾌하지 않으면 즐겁게 또는 치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신념이나 나의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좋은 그림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냥 휴일에 야외에 가서 그리는 자체가 정서적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회화의 진정한 힘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 화면 안에 공간이 담기고 또한 사물의 생명력이 담겨진다는 의미를 새롭게 체험하고부터 나는 그림 그리기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가치를 두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건축이 위대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표출되는 감각이 인간이 만든 것에서 발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근원적이고 위대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화면 안에는 공간의 무궁한 감각과 생명력 등 삼라만상의 기운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오는 생명의 감동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주 존재 자체의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의 힘도 결국 자연의 힘과 연관되어 형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건축은 기하학적이고 구체적이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주위에 기술적으로 생성된 특수한 양상을 띠고 있는 사물이다. 그리고 인공적인 사물은 엄밀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저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그림 그리기에 의의를 두는 것은 자연과의 교감이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며, 우주 저변의 총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 표출되는 질서와 생명력은 인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의 그림 그리기는 사물로부터 발생한 감성을 붓으로 물감을 찍어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의 진솔한 감각에 대한 감동의 기록이며, 그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만 풍경화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사물의 생생한 감각을 기록하기 위해, 그 분위기가 변하기 전에 빠르게 묘사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사생지에서 따로 식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한손에 김밥을 들고 먹으며 그리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 그리는 것이 본분의 일이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화우의 친분을 나눌 기회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화가의 붓질에는 그 인상을 기록하는 이의 감정이나 진솔함의 여부가 드러난다. 감동에 사로잡혀 그 인상을 표출하려 애쓰는 가운데 단 몇 번의 붓질로 사물의 인상과 힘이 담겨질 때가 있다.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감정이야말로 그리는 행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최상의 획득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상으로 볼 때 그것은 시간과 장소, 건강, 의지가 일치해야 한다. 사생에 임하기까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 정말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다. 시간, 차량 이동시의 정체, 기후 조건 등 사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피곤한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사생에 임하면 어느 순간 화면이 완성되어진 기쁨을 갖게 된다.

집에 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림부터 꺼내 액자에 넣거나 아니면 벽에 세워 두고 보게 된다. 클립 자국 등 손질을 해야 할 부분도 점검하고, 현장을 떠나 그 자체의 작품으로써 어떤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기도 한다. 다시 화구를 정리하는데 그런저런 시간이 흘러가며 피로를 느낀다. 휴일에 더 고된 중노동을 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이 수반되는 그림 그리기



10_ 돌담과 숲 11_ 산하 12_ 석조전 13_ 졸정원

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일부러 안보이게 치워 둘 때도 있다.

누구나 산에 가고 강가에 가서 정서적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그리지 않았으면 그 순간의 느낌으로 지나치고 말 일이지만 나는 그 느낌을 화폭에 담아 왔고 그 체험을 주변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야외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표현하려는 충동과 의지가 담긴 그림을 소중히 생각한다. 흘러간 세월과 더불어 조금 더 가까워진 그림 그리기의 길에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인간 감정의 산물이며, 인간 본성의 바탕을 이루게 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풍경 그리기를 진부한 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힘겨움이 수반되는 전시를 여는 것은 화가들에게 대중과 동떨어진 고독한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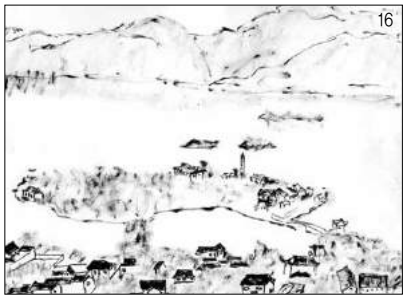
감상묘현(感想描現)

천지에 봄기운이 충만하다. 차가움에 갇혀 있던 생명이 봄볕을 쬐면 산천초목에 감도는 새 생명의 기운이 경이롭게 약동한다. 그 느낌은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의 계절을 지나온 끝에 마주 대하는 것이기에 더욱 감동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새롭게 마른가지에서 움터 자라난 초록 잎사귀는 곧 우거져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단풍이 되어 허전함을 불러일으킨다.

생명체인 나의 몸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연에 감응되고 마음에 감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감상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속에 잊혀지고 만다. 나의 그림은 언어로 시를 짓듯 나의 감상을 화폭에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묘사해 기록하면서 그것을 붙잡아 두는 기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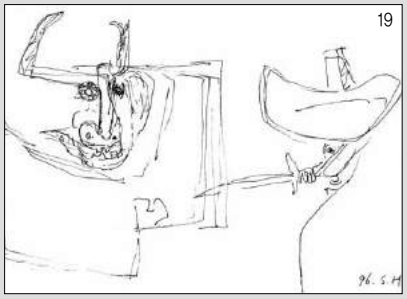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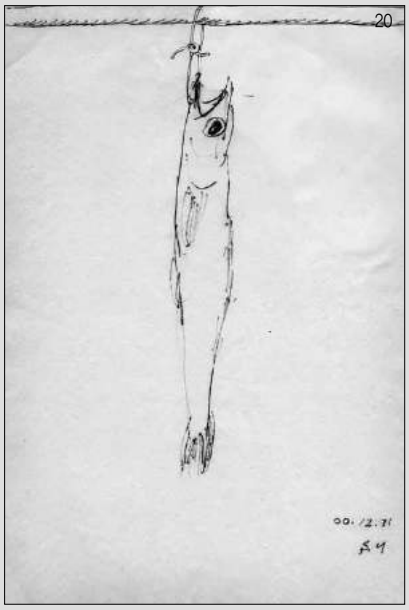
15


16

17

18


19


20

14_ 가로수-1 15_ 경복궁의 봄날 풍경 16_ 산하

17_ 이른봄의 북한 강변 18_ 장인 19_ 투우사 20_ 황태

Architectural Record

a+u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2월호

SANAA의 새로운 미술관, Enric Miralles의 사후 완공된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 타입별로 최신 경향을 살펴보는 특집에서는 부티크 상점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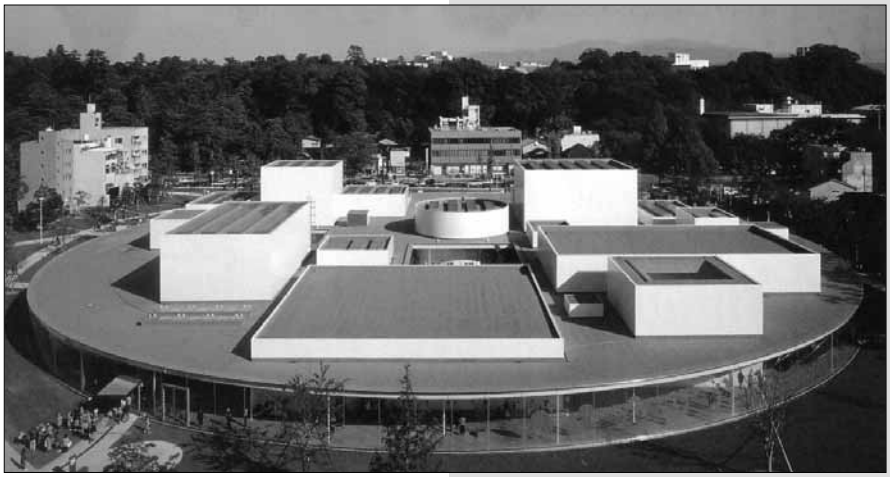
■ 근작소개

Kazuyo Sejima+Ryue Nishizawa / SANAA의 일본 카나자와 현대미술 21세기 미술관

전체 크기가 375ft에 달하는 이 박물관은 전체가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된 '자유지역'이다. 전체 구성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정면이나 후면과 같은 전통적인 위계로부터 탈피하고 있으며, 지하를 포함한 다섯 방향으로부터의 진입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14개의 갤러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저마다의 차별화된 크기와 높이를 지니고 있어(공간의 규격은 큐레이터에 의해 정해졌다) 전체적으로 원형 매스의 상부에 다양한 형태의 백색 박스가 돌출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4개의 중정을 통해 실내 곳곳에 빛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이에 미술품의 설치를 가미하여 제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설치작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영장'으로, 관람객들은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위를 쳐다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내부 프로그램은 미술 애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레스토랑, 뮤지엄 샵, 도서관, 탁아소, 시청각실, 대여전시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엄격한 기하학적 구성 속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유동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이 작품은 미술관과 지역 커뮤니티 회관을 융합하는 동시에 일본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실내공간을 통해 구현해내고 있다.

Enric Miralles Benedetta Tagliabue / EMBT와 RMJM의 스코틀랜드 의회

비록 예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스코틀랜드 의회는 다양한 재료와 조각적 언어의 혼합을 통해 역동적인 공간을 이끌어낸 역작이다. 의회 본당, 토론장, 만남의 타워, 가든 포이어 등 다양한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형적인 형태의 토론장 하부로 이루어지는 의회로의 진입부 벽면에는 백색, 흑색 화강석과 목재로 제작된 독특한 형태의 장식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창에 깊이감과 휴먼 스케일을 부여하기



SANAA의 일본 카나자와 현대미술 21세기 미술관

EMBT와 RMJM의 스코틀랜드 의회

위한 것이다. 혁신적인 목재 트러스 구조의 지붕으로 덮인 토론장에는 상부의 기울여진 유리를 통해 자연광이 도입되며, 토론장 외부에는 콘크리트 기둥이 돌출되어 토론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숲과 같은 이미지를 자아낸다. 쐐기 모양의 타워들은 회의실과 다양한 기능의 의회실을 수용하고 있으며, 가든 포이어 상부의 나뭇잎형 천창은 의회 중정으로 이어진다. 주위 지형의 흐름에 맞춰 이루어진 건물군의 유기적인 배치, 자연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감각적인 조형 언어가 돋보이는 스코틀랜드 의회는 Miralles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였으며, 그의 사후에 완공되어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재능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이외에 Architektengruppe Stuttgart의 독일 Rheinisches Landesmuseum, Daly Genik의 미국 캘리포니아 디자인대학 예술회관, SHoP Architects+Architecture Himma의 한국 헤이리 한길 북하우스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타입연구-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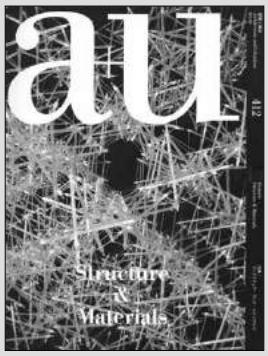
최근 혁신적인 건축 실험들이 벌어지는 분야 중 하나가 고급 부티크 상점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브랜드가 전세계의 상점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시켰지만 현재는 이러한 일관성에서 탈피하여 특정한 도시적 맥락에 맞는 독특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패션 자체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는 특정한 지역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상점이 지니는 독특한 정체성은 이제 그 형태적 차원을 넘어 물건이 구매되는 독특한 과정과 매커니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OMA-AMO의 미국 캘리포니아 Prada 상점은 기존의 차갑고 미니널한 고급 상점의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문이 없이 에어커튼으로만 처리된 입구, 땅 밑에 매입된 쇼윈도우, 계단식 디스플레이 체제 등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여 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 Jeffrey Hutchison & Associates의 일본 Barneys New York 상점, Giorgio Borruso Design의 미국 네바다주 Fornarina 상점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2005년도 AIA 명예상 수상작 소개, 1950년대 지어진 중국 베이징의 798 공업지역에서 열린 미술전 소식, 목조구조물로 유명한 환경론자 건축가 Jim Cutler와의 인터뷰가 실려있으며, 신간서적으로는 Alexander Tzonis와 Liane Lefaivre의 Critical Regionalism : Architecture and Identity in a Globalized World, 멕시코 건축가 Teodoro Gonzalez de Leon 작품집, 우루과이 건축가 Eladio Dieste 작품집이 소개되어 있다. 인테리어 부문에서는 Predock_Frame Architects의 J. Paul Getty 미술관 가족실, Herbert Lewis Kruse Blunck Architecture의 RenSt Loft, EDGE studio의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 도서관, 그리고 벨기에 디자인 쇼를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a+u

2005년 1월호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의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조형이나 공간이 나타나고, 컴퓨터 안에서의 가상체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a+u에서도 그 가능성을 추구하며 지면을 통해 소개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을 구축하는 것은 구조설계와 소재의 선정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구조와 소재의 조합에는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호에서는 매력적인 공간을 갖는 건축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의 외측에 존재하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건축자재를 대체하는 신소재를 소개하여 건축에 있어서의 소재의 가능성을 추구한 에세이에서는 건축가들이 신소재를 대하는 태도의 변환을 촉구하였다.

에세이 : 스마트 머티리얼(smart material)과 테크놀러지 - 미셸 에딩턴(Michelle Addington), 다니엘 L. 쇼덱(Daniel L. Schodeck)

서머크로믹 페인트(thermochromic paint, 열변색 페인트), 일렉트로루미네센트 텍스타일(electroluminescent textiles, 전자발광 섬유), 형상기억합금, 포토크로믹 글래스(photochromic glass, 광호환성 유리), 전도성 고분자, 스마트 윈도우, 인테리전트 환경. 디자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최근 10년간 극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단시간에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나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종종 '스마트(smart)'라고 표현

electroluminescent textiles(전자발광 섬유)

되는 이러한 신소재는 동태적인 물체나 환경을 디자인하여 주목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환경에 반응하여 건축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들은 스마트 머티리얼이 어떻게 하여 종래의 건축소재를 치환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제안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소재의 많은 부분은 다른 분야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상당히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미 상품화된 것도 있다. 일레트로크로믹(electrochromics, 通電變色)은 새로운 차량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백미러에 장착되고 있으며, 서모크로믹(thermochromics, 열변색)은 캔디바의 포장재료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겔(smart gels)은 신기한 상품이나 완구를 제조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피에조일렉트로닉스(piezoelectronics, 壓電性物質)는 스키나 자전거의 최고기종에 그 시장을 형성하였다. 건축가들도 이와 같은 신소재나 테크놀러지의 채용을 시험해오고 있다. 마치 그것이 규범적인 수법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 중의 하나인 것처럼 디자인 방법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마트 머티리얼이 산업혁명이래 점점 선택적으로 분화해간 물질과 소재개발에 대한 노력의 궤적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의 분야에서는 이들 소재의 대부분을 복합재료 등의 고성능소재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서 하나의 정황 혹은 하나의 상태에만 그 반응을 최적화시키도록 고안된 특수소재에 대한 개념은 두 종류 이상의 상황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고성능소재인 에어로겔(aerogel)은 유리의 열전도 저항을 최대화시켜 전도성 열전달을 최소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외부와 내부와의 온도차이가 큰 상황에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지만 다른 상황, 특히 일조량이 동시에 중요시되는 상황이 되면 최적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스마트 머티리얼은 복수의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여 기능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포토크로믹(photochromics, 광호환성) 소재는 태양복사에 대하여 불투명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유리의 광투과율을 동적으로 조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스마트 머티리얼 혹은 스마트 테크놀러지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용어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모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때 무언가의 방법으로 그 성질이나 동작을 변화시키는 소재나 기술에 이용되고 있다. 어떠한 소재가 갖는 이와 같은 '스마트함'은 모두 주로 2개의 메카니즘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된다. 조재의 분자구조 혹은 마이크로구조를 변화시킴으로서 소재의 내부 에너지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의 경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풋이 소재의 성상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성상은 그 요인이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이다. 이와 같은 범주에는 포토크로믹, 서모크로믹, 케모크로믹(chemochromics), 서모트로픽(thermotropics, 온도굴성), 마그네토레올러지컬(magnetorheological), 형상기억소재 등이 속한다.

스마트 머티리얼의 또 다른 메카니즘은 하나의 형식으로부터 방사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의 인풋 에너지를 다른 형식의 아웃풋 에너지로 변용시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직접성과 가역성을 띠게 된다. 소재는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이나 에너지의 타입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기전성(光起電性) 소재는 방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용시키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압전성, 열전성, 광기전성(photovoltaics), 열전성(pyrovoltaics), 광휘성 등의 물질이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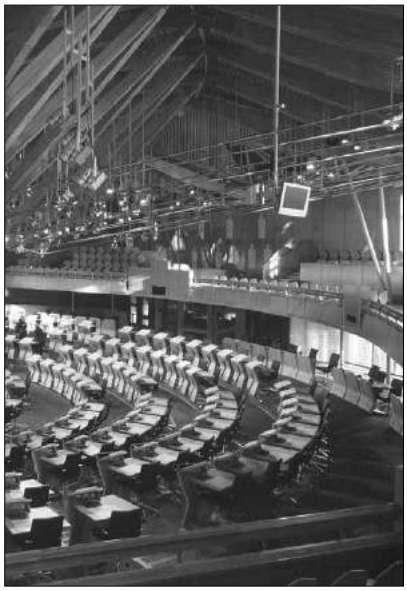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가진 재료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특정한 기능을 갖춘 기본적인 소재들을 조합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열전기성물질은 실제로는 반도체층을 포함한 서로 다른 소재로 구성된 다층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합품은 하나의 단순한 장치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용어는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장치를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디자이너들이 스마트 머티리얼에 대한 개념과 그 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이다. 즉 그 응용에 주관심을 두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사고방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머티리얼'의 용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머티리얼은 혹은 스마트 테크놀러지는 이들이 리얼타임으로 반응하는 즉시성, 하나의 환경상태에 반드시 반응하는 유동성, 인텔리전스가 소재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기작동성, 각각의 반응이 별개의 것이고 또한 예측이 가능한 선택성 그리고 응답이 활성화되는 대상이 국소적이라는 직접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5개의 특성을 근거로 우리는 스마트 머티리얼의 문제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돌아보자면, 현재 디자이너들이 스마트 머티리얼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특질의 일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건축가들은 신소재를 건축에 도입해 온 종래의 방법을 개념적으로 따라해 보려는 시도를 해왔다. 종래의 소재를 단순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법, 예를 들어 서모크로믹으로 이루어진 의자 등받이나 일렉트로크로믹으로 된 화장실 칸막이 문 등 그 신기함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작품을 통해 신 소재에 대한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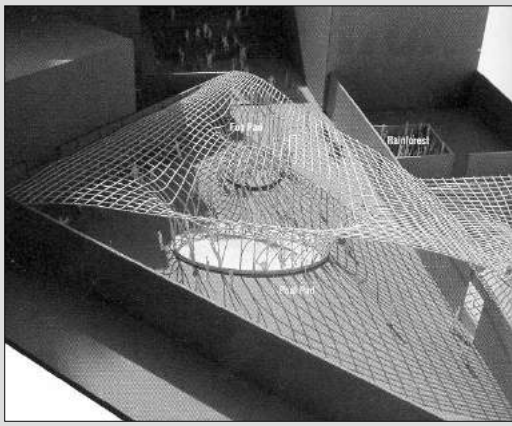
험을 해 왔다. 나아가 많은 수의 건축가들은 전체가 스마트 머티리얼으로 구성된 건물의 표면, 벽면, 파사드를 마음속에 품곤 한다. 그러나 스마트 머티리얼은 전통적인 건축재료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을 보여준다. 건물의 하중을 견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건축재료가 정적인 것에 반하여 스마트 머티리얼은 에너지의 장에 반응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동적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건축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투상법에 의한 도면 작성 등)이 정적인 건축 재료를 전제로 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건축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미지 혹은 이미지들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들은 주로 소재 선택의 결과이지 발생장치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 신소재 혹은 테크놀러지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어프로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전통적인 소재를 치환하는 것으로서 스마트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스마트 머티리얼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하고 싶은 가를 명확히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스마트 머티리얼의 사용을 통해 달성하고픈, 우리가 원하는 작동은 어떤 것인가?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건축가들이 종래에 재료를 사용해 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가능해진다. 여기서 우리들은 아마도 스마트 머티리얼에 대해 더욱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빛, 열, 음 그리고 동적인 환경에 대한 그들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많은 스마트 머티리얼이 작은 스케일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그러한 작은 활동들을 디자인의 컨텍스트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커다란 스케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은 스마트 머티리얼을 선택적이고도 개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스마트 머티리얼의 효과를 증폭시킬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 머티리얼을 적절히 사용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스코트랜드 의회당

작품소개 : 소개된 작품들에는 다양한 소재와 구조를 사용한 최근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엔릭 미랄레스와 베네데타 타글리아뷰(Enric Miralles + Benedetta Tagliabue)의 스코트랜드 의회당은 입면과 실내에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량의 목구조와 목재를 주 마감재료로 사용한 의사당 회의장이다. 이 회의장을 비롯하여 의회당 건물의 곳곳에는 건조중인 선박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랩 아키텍쳐 스튜디오(Lab architecture studio)와 베이츠 스마트(Bates Smart)가 협업한 오스트리아 멜버른의 페더레이션 스퀘어는 도시계획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며, 구조적 측면에서도 아트리움 공간의 처리 방식이 주목할 만 하다. 이 아트리움은 핀휠 그리드(pinwheel grid)라는 수학상의 기하도형을 기초로하여 만든 새로운 유형의 철과 유리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아트리움은 핀휠 그리드 즉 한정된 요소들을 조합하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구조체로 만들어가는 프렉탈한 구성을 3차원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엔 아키텍츠(nARCHITECTS)가 설계한 뉴욕 MoMA의 현대예술센터 중정의 '캐노피'는 대나무를 사용한 구조체이다. 이 캐노피는 엔아키텍츠가 강의하는 건축학과의 학생 및 최근 졸업생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7주간에 걸쳐 건설한 것이다. 건설 이전에도 그들은 6주간에 걸쳐 현장에서 다양한 구조 타입에 대한 실험을 거쳐 대나무 구조로 가능한 최대 스팬이나 최소곡률반경, 중첩되는 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구조체는 30,800피트(9,394m)의 대나무를 사용하였으며 37,000피트(11,285m)분의 스테인레스 스틸의 와이어를 사용하여 대나무들을 결합하였다. 최초로 주문한 1,100개의 대나무는 1주일간 죠지아주에서 벌목되었으며 배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당히 신선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 현장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수시트를 도포하였으며 하루 두 번 물을 뿌려 보존하였다.(번역 / 강상훈)

오스트리아 멜버른의 페더레이션 스퀘어



뉴욕 MoMA의 현대예술센터 중정의 '캐노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104
수원화성박물관 106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108
한국전력 평택지점 사옥 112
영흥에너지파크 116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Jongno Geriatrics Welfare Center

당선작 / E.D.A 건축사사무소(김휘열) + 원 건축사사무소(김시원)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1 외 5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노인종합복지관
대지면적 1,628.40㎡
건축면적 962.99㎡
연 면 적 2,989.38㎡
건 폐 율 59.14%
용 적 률 183.58%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4층
외부마감 점토벽돌 치장쌓기, 징크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설 계 팀 김태호, 백형철, 김도선

배치계획

도로 및 대지축에 순응하는 두개의 매스를 배치하고 Green Corridor(아트리움)를 통해 두개의 매스를 통합하고 주보행자 동선유입로인 대지 남측에 진입 및 휴게공간을 형성하여 공공성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동선계획

두개의 매스 각각에 수직 피난동선을 설치하고 아트리움 주위로 회랑을 설치하여 건물내 길찾기(Way Finding)가 쉽도록 하였다.

2층의 건강증진센타를 위한 별도의 진입동선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은 대지 북측에 계획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주방 서비스 및 장비 반입 동선을 확보하였다.

평면계획

각실을 유사 기능군별로 조닝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내부 칸막이는 경량칸막이로 계획하여 장래 시설변화에 따른 가변성을 확보하였고 내부의 회랑과 데크는 휴식, 담화, 전시, 외부활동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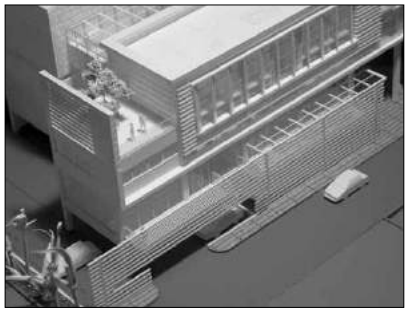
입면계획

장방형의 대지 및 매스에 부합하도록 수평성을 강조하였으며, 수평 및 수직 루버를 통하여 일사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입면에 변화를 부여하였다. 저층부에는 6m 전면도로에 대응하고 스크린 역할을 하는 목재루버로 기단부를 형성하였고 시각적 투영 및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 등으로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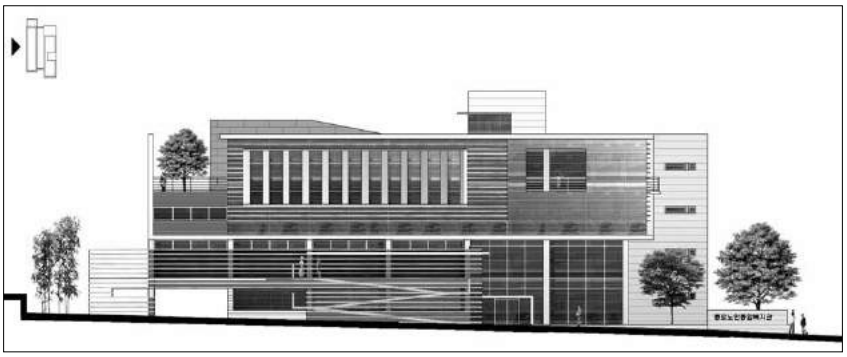
단면계획

기존지형에 순응하는 단면계획으로 토사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였으며, Green Corridors(아트리움)의 공간감을 휴먼스케일에 맞도록 계단식으로 구성하였고 지붕층에는 휴게데크, 하늘마당, 지압마당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외부공간을 건물 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3층 평면도


서측입면도

1층 평면도

수원화성박물관
Hwaseong Museum

당선작 /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3,173㎡
건축면적 2,382㎡
연 면 적 5,579.93㎡
건 폐 율 10.28%
용 적 률 16.2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93대 (장애인 주차 4대 포함)
외부마감 전벽돌, 알루미늄 복합패널, 로이복층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설 계 팀 박승홍, 이형재, 이인용, 이호락, 황재연, 윤창민, 임동우, 윤성호, 김성우

화성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축조정신과 축성과정, 화성신도시에 대한 모든 사적, 학술적 사항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화성 성곽 내에 세워진다. 무엇보다도 주력했던 부분은 부지가 실제 유적지인 화성 안에 건립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도 무난하게 세워질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화성의 성곽이나 수비시설물 들의 형태를 추상화하여 화성 안에 현대화된 화성을 표출하려 하였다.

또, 유적지 안에 건립되는 사적지 박물관으로 실제 사적과 건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화성을 걷다 보면 자신이 지나온 구불구불한 성벽과 성곽시설물들을 성가퀴 틈이나 총구를 통해 마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박물관에서도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전시실 곳곳의 틈을 통해 실물유적을 설명과 함께 볼 수 있고 화성의 공심돈을 공간화한 전망대에서 화성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바로 화성에만, 화성 안에만 가능한 건축적인 구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배치계획

박물관 부지는 화성행궁과 조성중인 행궁광장, 향후 복원될 중영, 관아, 공방거리와 함께 하는 화성역사관광존 안에 위치한다. 또한, 화성의 젖줄인 수원천에 연접하여 관광휴게존의 한 축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수원천으로 대지를 확장하여 천변 연계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대지 전면을 개방하는 배치로 행궁과 일체된 다양한 이벤트와 관광이 박물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평면계획

무엇보다도 상설전시장을 2층에 구성하여 소규모 박물관에 적절한 전시동선을 확보하고 1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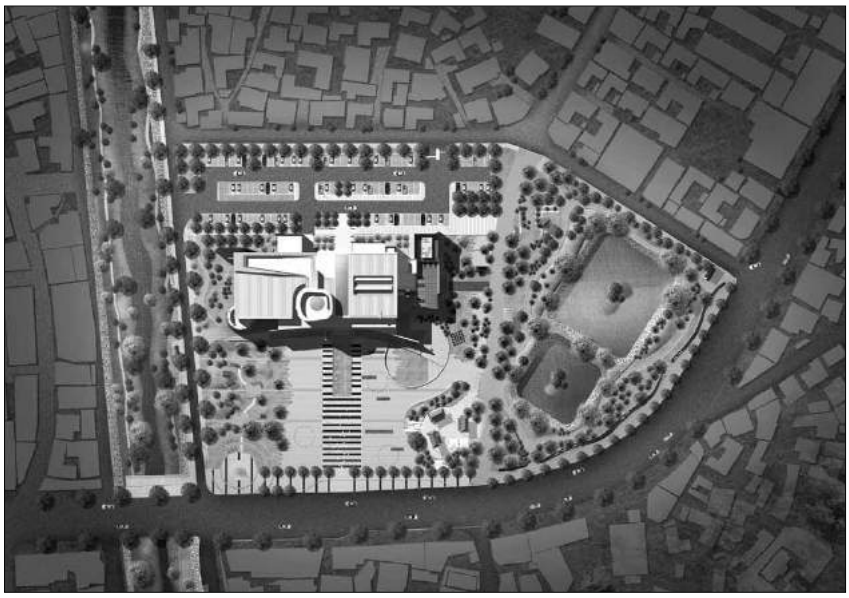
무료개방공간인 Free-zone으로 배치하여 박물관 활성화 유도하였다. 중앙의 메인홀을 중심으로 카페테리아는 전면 수공간과 연계되고 입장객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위치에 뮤지움 샵과 자료검색실을 배치했다. A/V실은 주차장에 인접시켜 개민 문화시설로의 역할을 고려했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의 장이 제공되도록 박물관 이용시간외에도 개방되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구현하는 열린 박물관을 실현하는 장치가 된다.

입면계획

화성의 조형, 공간을 모티브하여 상징성 및 인지성 확보하였다. 화성의 성벽을 이루는 전돌을 건축의 주재료로 삼고 전면을 개방하는 커튼월을 통해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를 꾀하였다. 중앙의 공심돈은 화성 시설물의 독자성을 대표하는 시설로 그 형태와 공간적인 구성을 추상화하여 건축의 중심으로 삼았다. 커튼월 뒤편에 위치해서 밤과 낮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매체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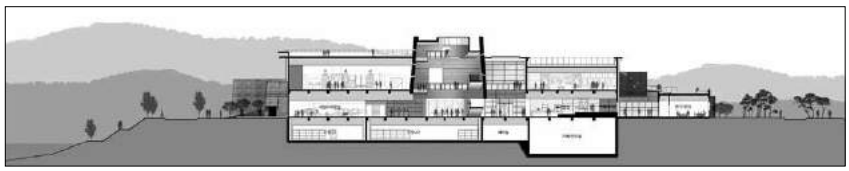
단면계획

전면의 Free Zone은 층을 오픈하고 천창을 두어 공간적인 개방감을 유도했다. 커튼월 뒤로 밖에서부터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전돌의 벽체는 박물관 안이 또 하나의 화성임을 표출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의 공심돈은 실제 공심돈의 소라각 계단 체험을 유도하고 이 공간이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Renovation of Myeongdong National Theater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 승 · 한종률)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5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대지면적 1,785.79㎡
건축면적 1,188.04㎡
연 면 적 4,959.13㎡
건 폐 율 66.53%
용 적 률 340.8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 계 팀 이 봉, 김우영, 김동훈, 노재만, 이윤범, 백은정, 한태권, 최정윤

프롤로그 : 예술의 빛과 시간의 산책

다시 막이 오른다…

예술의 빛이 피어오른다…

옛 국립극장 건물은 오랜 시간동안 명동 발전의 중심축에 놓여 있었지만, 현재는 그 발전의 흐름에서 벗어난 채 하나의 고착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새롭게 재탄생되는 국립극장은 명동(明洞)거리의 활기찬 에너지와 결합되어 명동문화의 새로운 빛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단순히 명동의 중심에 서 있는 정적인 건물이 아닌, 명동의 새로운 문화적 인터페이스로서 명동과 함께 호흡하는 건물이 되길 바란다.

공간구성계획

명동의 기억을 간직한 외부벽체는 그대로 보존되고, 명동거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적 이야기를 담는 재생의 그릇(공연장 매스)이 그 안에서 생성된다. 거리의 에너지가 건물 안으로 유입되어 과거의 벽과 공연장 매스 사이를 채워나가면서 명동국립극장은 명동의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인 예술의 빛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입면계획

조형적으로도 명동의 중심에서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는 듯한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형상으로 계획하였다. 빛을 담는 내부의 공연장 매스는 낮에는 보존 벽체의 배경으로서 명동거리를 투영하고, 밤에는 공연시작과 함께 하늘과 연결되는 듯한 빛을 발산하며 거리의 중심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정적인 외관이 아닌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명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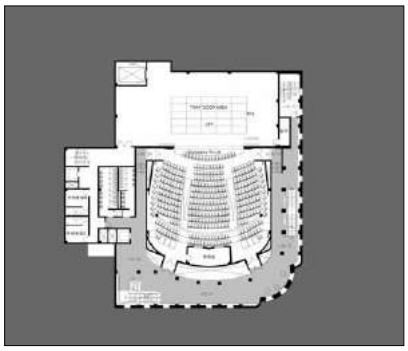
풍경을 담아내는 유동적인 외관으로 계획하였다.

보존 · 복원계획

오랜 시간동안 명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외부 벽체를 최대한 보존하고 일부는 복원한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벽을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보존벽체의 내벽을 복원한 후 투명한 유리로 감싸줌으로써 차음 및 단열효과를 얻게 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쇼케이스 내부에는 배우들의 소품, 의상, 사진 등 명동극장의 역사들이 전시된다. 관객들은 건물 안에서 기억을 담은 과거의 벽과 명동거리를 투영하는 새로운 현재의 벽 사이를 오가며 예술의 빛과 시간의 산책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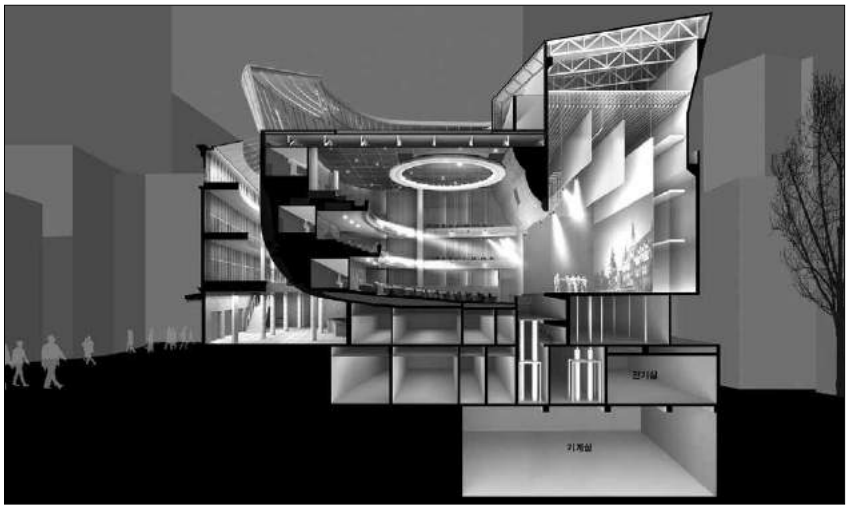
공연장 계획

무대가 정면과 좌우 3차원의 객석으로 둘러싸임으로써 단순히 보고 듣는 공연장이 아닌 관객과 배우가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즉 친밀감(Intimacy)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연장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음향적인 면에서도 연극전용극장으로서 음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공연의 일체감과 충만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주단면도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Renovation of Myeongdong National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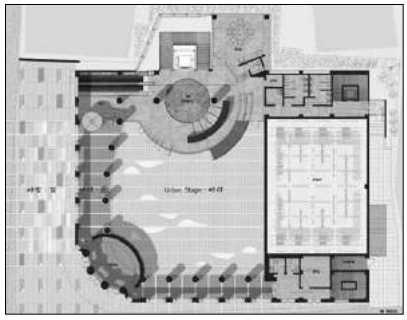
우수작 / (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변 용)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54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2종 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대지면적 1,785.79㎡
건축면적 905.96㎡
연 면 적 4,959.36㎡
건 폐 율 50.73%
용 적 률 137.03%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 계 팀 이기정, 홍승희, 김남환, 김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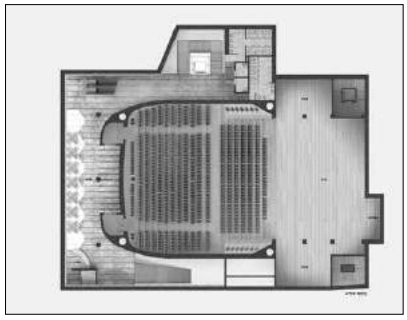
서울은 그리고 명동은, 무제약적으로 팽창되며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바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있던 작은 봉우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섬으로 태어나기도 하였으며, 물길이 땅이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민족의 비극적 다툼으로 폐허화되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생멸의 사이클은 몰지각함도 아니요, 매정함도 아니다. 다만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한 대응일 뿐이다.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이집 또한 영화관으로 태어나서 여섯 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꾸어가며 오늘의 오피스로 남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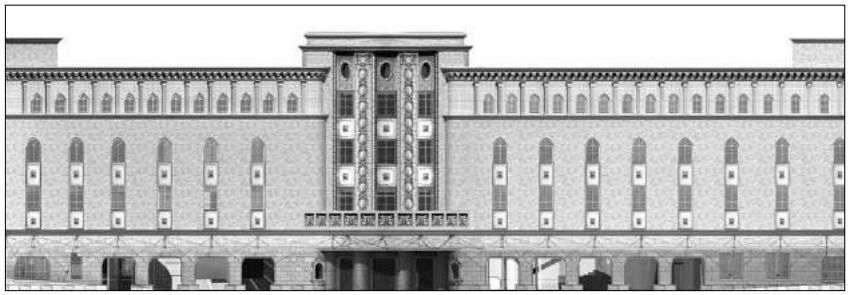
서울 명동의 시각적 시작점이자 중심인 이곳에 작으나 결코 작지 않은 열린 예술의 장(Urban Stage + Drama Stage), 아리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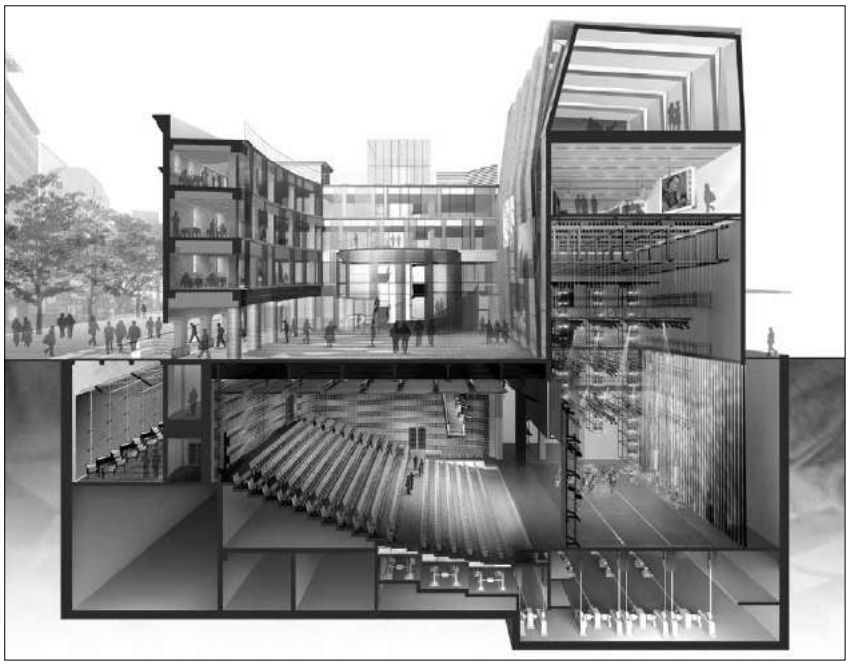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한국전력 평택지점

KEPCO Pyeongtaek Branch

당선작 / (주)다울건축사사무소(신동재)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767, 767-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7,873.7㎡
건축면적 2,116.90㎡
연 면 적 4,306.23㎡ - 특수차고 포함
건 폐 율 26.89% (법정:60%)
용 적 률 48.22%(법정:230%)-산정용 연면적 : 3,796.87㎡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내부마감 화강석, 카펫타일, 목재플로어링, 무늬목쉬트, 아크릴페인트
외부마감 화강석, 건조목재 사이딩, 투명복층유리, AL패널, 골 AL패널
설 계 팀 김중일, 지은권, 박준표, 이상경, 전종현, 백창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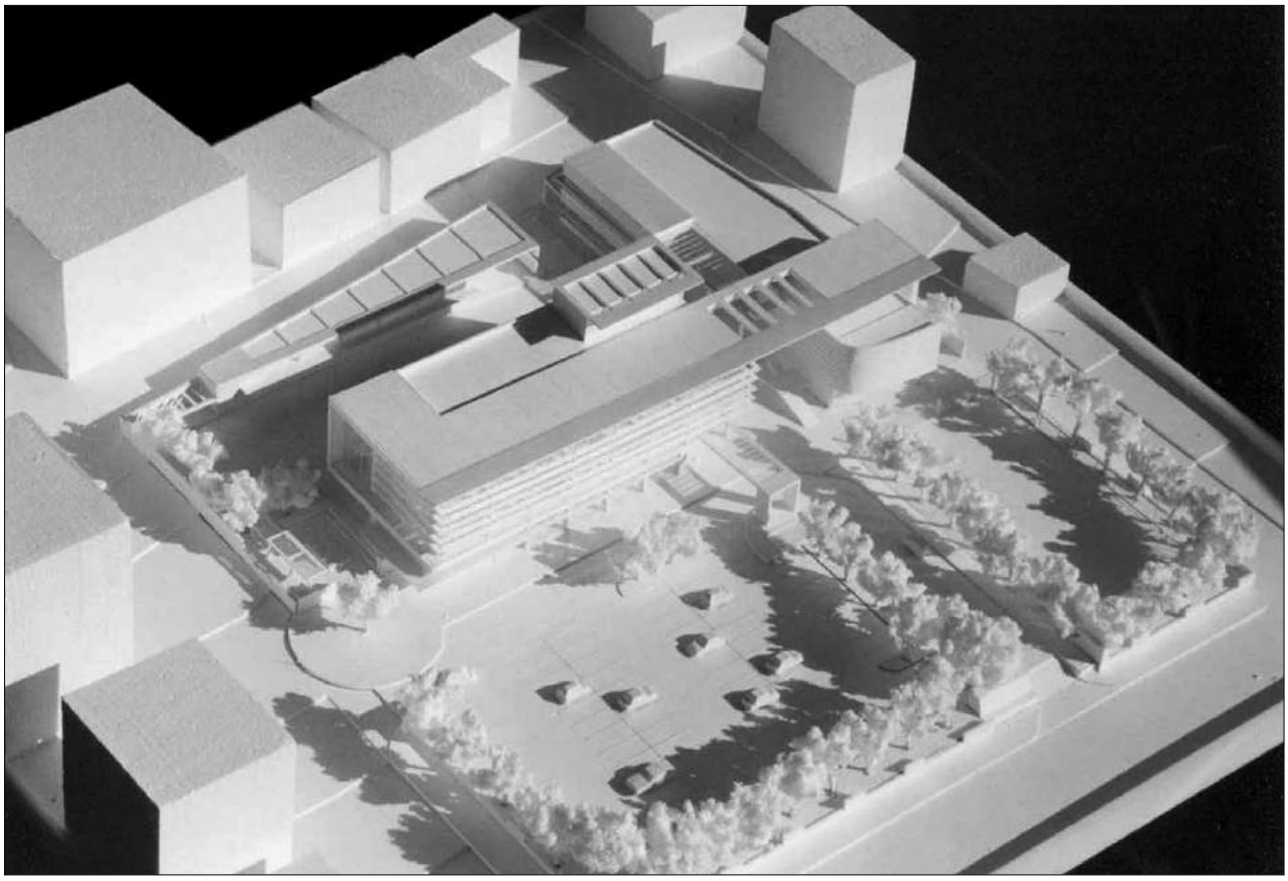
경부선 안성 IC에서 평택방향으로 진입 후 평택시청에서 서남측으로 500m지점에 위치하는 본 부지는 기존의 한국전력 평택지점이 위치한 일부 미관지구로서 25m도로와 20m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하는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이며, 5,356.5㎡의 767번지와 2,517.2㎡의 767-1번지로 나뉘어 있어 법규적 제한을, 준공 후 철거예정인 기존의 본관동과 별관동에 의해 공사 및 설계범위의 제한을 동시에 받는다.

본 계획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의해 제한된 계획부지의 영역에 각각의 공간성격을 부여함으로서 작업의 효율성 및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대지에 각각의 기능과 공간의 성격에 맞는 두 개의 건물을 구조적, 계획적 분리 배치하여 도시적 맥락에 어울리면서 새로운 정면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

따라서 본 계획안에서는 대지를 기능적인 공간구분에 따라 오픈된 주차영역, 건물의 주차영역, 건물의 업무영역, 오픈된 업무영역으로 나누고 심리적인 공간구분으로는 Private Space와 Public Space로 구분하여 성격에 맞는 실과 공간을 계획함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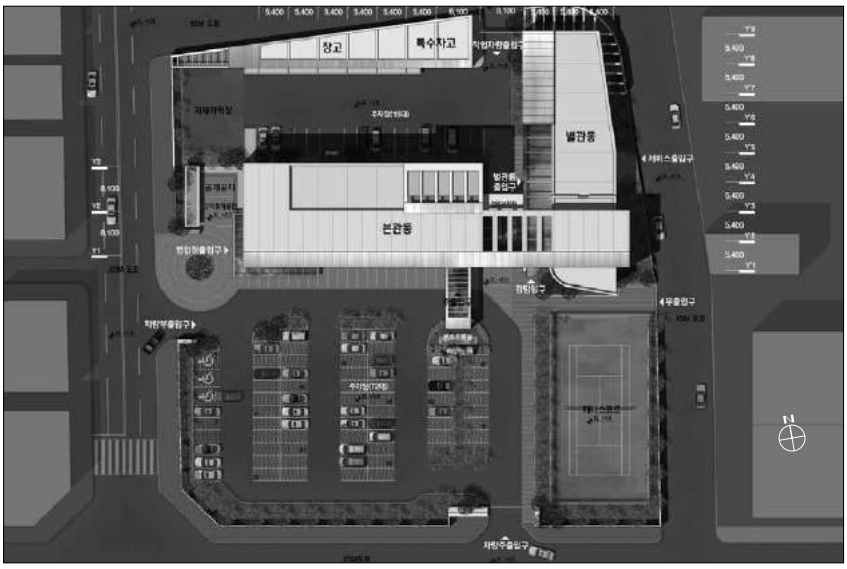
기능에 따라서는 각각의 공간과 Mass(매스)를 상호 연계하여 분리 조합하였는데 '영업부와 사업소 장실 등 사무공간이 위치하는 본관동 매스'와 '전기원동 및 식당, 강당 및 검침원실 등이 위치하는 전기원동 매스', '전기원용 창고 매스' 등 3개의 매스로 분리하고 입면적으로는 본관동 옥상 캐노피와 연결 브릿지를 통하여 구조적, 계획적으로 분리 배치된 본관동과 전기원동을 연결함으로서 건물의 위계를 나누는 한편 도로에 의한 도시축을 반영시켜 직각적인 결합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가로정면(Street Facade)을 형성하였다.

Core가 수행하던 공간간의 연계 역할을 수평적인 사무동 매스와 수직적인 전기원동 매스의 결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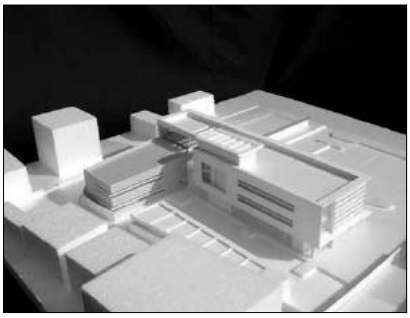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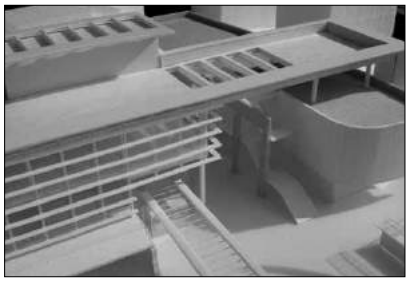
에 강당과 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의 서비스지원 공간들이 수행함으로서 기능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능적, 평면적 힌지 역할 수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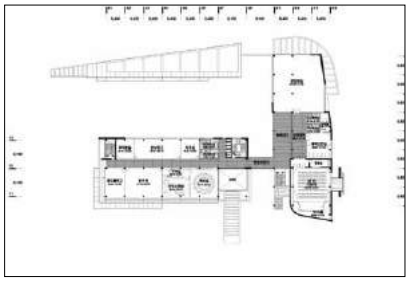
Hard한 영업부 매스와 분리하며 상부의 투명 매스를 휘감아 확장되는 Hard한 수평의 캐노피켜는 동측으로 이어져 2층의 전기원 매스를 감싸면서 비로소 완결된 구속력을 지니는 한편 정면 사무공간의 상부입면을 수평루버와 수직의 프레임으로 연결시켜 후면의 투명유리로 이루어진 커튼월과 조화시킴으로서 개방적인 정면성을 강조하고, 정면 주출입구의 캐노피 및 사선의 강당외벽을 통해 주진입을 유도하며 각각의 매스와 캐노피 켜를 통한 수평 · 수직적인 연속성과 상징성은 Solid와 Void, 동선, 공간, 축의 복합적인 조화에 의한 일체감으로 새로운 지점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한국전력 평택지점
KEPCO Pyeongtaek Branch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임준빈)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767, 767-1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7,873.70㎡
건축면적 1,640.89㎡
연 면 적 4,563.07㎡
건 폐 율 20.84%
용 적 률 51.9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내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비닐타일, 수성페인트, 암면 흡음텍스
외부마감 T3 알미늄, T18컬러복층유리, 적삼목
설 계 팀 이승남, 안삼철, 소재현

건축가의 기대지수

…공간을 채움으로 흐르게 하고, 공간을 비움으로 모이게 한다. 그 흐름과 모임에 만남을 갖고 그 만남에 여유가 생긴다. 업무동과 후생동이, 건물과 광장이, 직원과 주민이 그러하길 기대한다….

건축가의 주관적 사고와 그것이 객관화 될 수 있는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순간순간 건축적으로 실체화 되는 과정에서 그러하다. 사용자에 대한 기대는 테마광장이 주민을 맞이하는데서, 연계된 중정이 경계를 넘나드는데서, 업무-후생동간의 외부공간이 공유되는데서 그 시작점을 찾는다.

이번 '한전 평택지점 현상설계' 또한 주관적인 작업요소들이 객관화된 생명력을 부여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과 끝을 맞이한 듯 하다.

대지읽기

- 도시 축을 끼는 20m도로 및 4면이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 접근성이 다양함
- 대지의 남서쪽은 보행자 밀도가 높은 사거리로 Open Space를 필요로 함
- 신축 후 멸실 계획인 기존 본관동과 별관동의 남쪽위치로 신축건물 대지북쪽 결정
- 주 진입도로(남쪽)와 본대지의 레벨차가 1.8m로 현재 접근성 불리

배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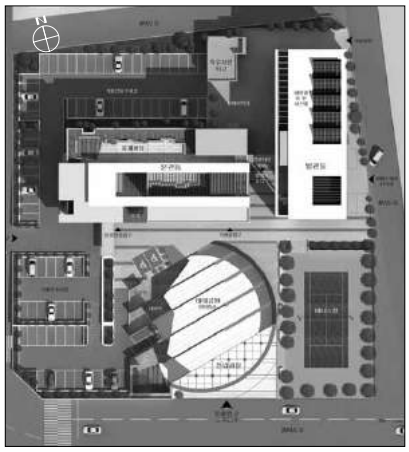
- 주 진입광장의 전면배치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 본관동 및 별관동의 분리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계획
- 이면도로를 이용한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전용 주차장의 명확한 분리
- 개방형 테마공원(한전홍보)의 계획으로 자연스런 레벨차 극복
- 한전로고를 이용한 바닥패턴의 형상화로 한전의 상징성 극대화

평면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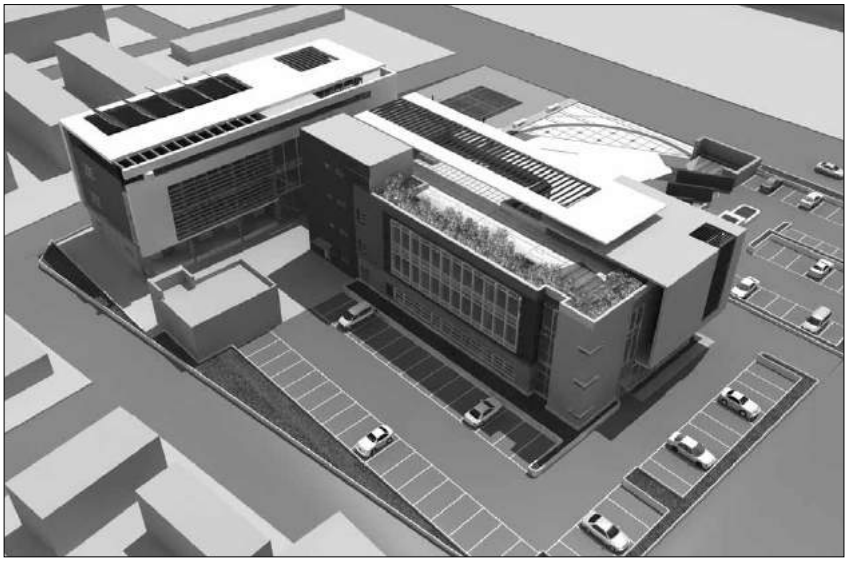
- 직원 및 고객의 출입동선 분리배치로 기능별 조닝의 명확화
- 주요실의 전면 남향배치로 사무공간의 쾌적성 고려 및 에너지 절감 효과
- 민원창구 내부 중정과 직원휴게공간의 연계로 민, 관의 연계성 고려
- 본관동과 별관동의 인접한 홀 배치 및 연결다리의 설치로 동선의 단축
- 외부계단 및 옥상정원의 적절한 계획으로 직원 휴게 공간의 활성화

입면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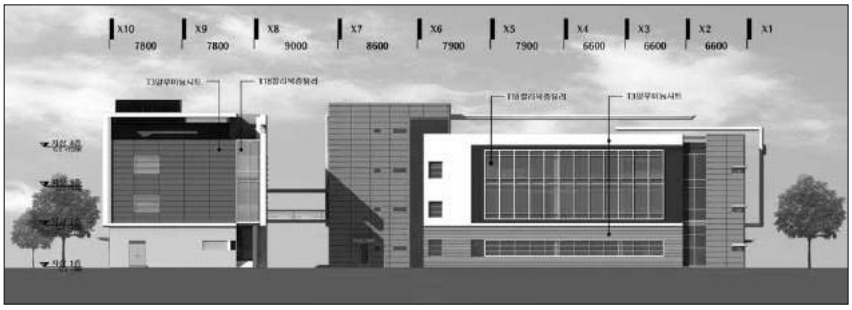
- Double Skin을 이용한 진입부의 투명성으로 지역주민의 친근한 접근성 및 관공서의 투명성 상징
- 엮어지는 캐노피의 형상화로 지역주민의 포용성 상징
- 주민이용을 고려한 별관동의 역동적인 매스형상으로 한전의 진취적 의지 표현
- 알미늄 쉬트 및 유리면의 사용으로 경쾌한 전체적 이미지구성



배치도



3층 평면도



배면도

1층 평면도

영흥에너지파크
Yeongheung Energy Park

당선작 /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익수 · 문영학)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0-0 전 일대
지역지구 보존녹지지역, 전원개발사업지구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54,540㎡
건축면적 3,610.11㎡
연 면 적 5,407.89㎡
건 폐 율 6.63%
용 적 률 9.93%
구 조 철골조
규 모 지상 2층
내부마감 바닥용 적삼목,화강석마감,카펫타일 등
외부마감 THK18 투명복층유리, 화강석버너마감, 적삼목 사이딩
설 계 팀 정승용, 신석우, 류한규, 박종수, 장익준

배치계획

- 빛과 물, 바람 등 에너지원의 형상화
- Green Network의 구성으로 친환경공간 구성
- 관리, 관람객, 서비스 체계의 최적화
- 기존지형에 순응하며 기존 훼손지형을 전시부분으로 계획
- 관광객증가에 따른 향후 주차장의 배치와 확장성 고려

평면계획

- 관리동선의 중앙배치로 인한(관리, 이용자, 서비스)의 합리성
- 아트리움, 옥상정원의 도입으로 자연친화공간 구성
- 지역 주민시설의 전면 집약화로 공공성확보
- 용도별 환경을 고려한 적정조닝(업무시설, 전시시설, 문화시설)
- 다목적 시설의 가변성 확보를 위한 Flat Slab 형식구현

입면계획

- 태양광 집광판(BIPV) 등 대체에너지원의 입면요소화
- 전신동의 과감한 필로티와 사선의 도입으로 역동성 및 미래 Vision 표현
- 개방적 필로티와 브릿지를 이용한 입면파사드의 시각적 연속성확보
- 투명유리와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이용한 Sign 및 개방성 표현
- 영흥도의 이미지 Bridge, The Ship, 야간등대 등 입면요소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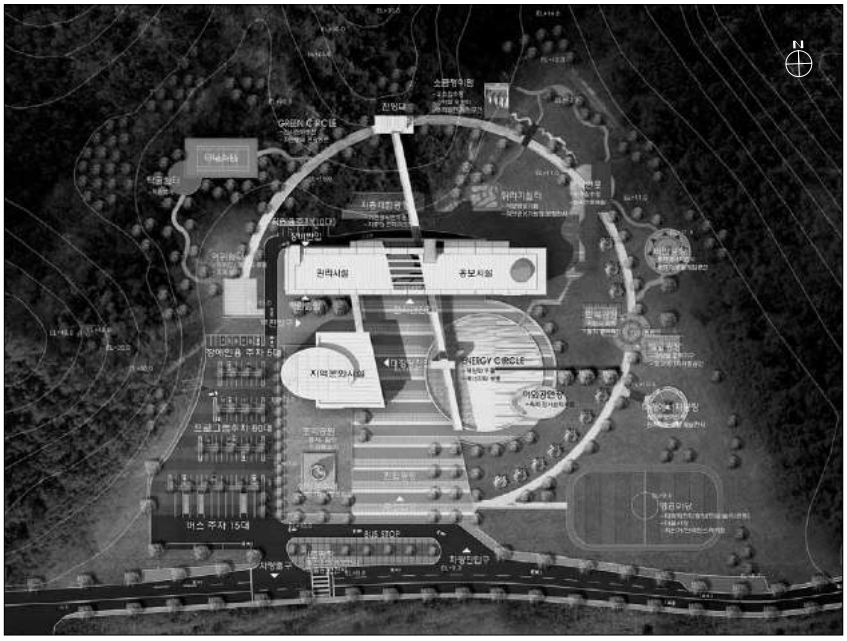
단면계획

- 물품, 장비 반입을 고려한 관리,설비실들의 저층배치
- 자연(빛, 바람, 물)유입을 고려한 개방적필로티, 브릿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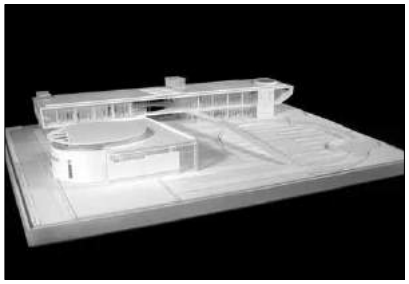
- 아트리움을 이용한 자연 냉난방 계획
- 전면 바다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문화시설, 홍보시설, 전망대의 레벨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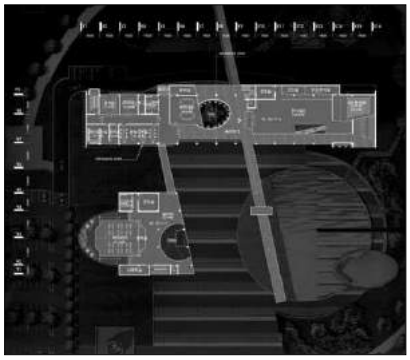
조경,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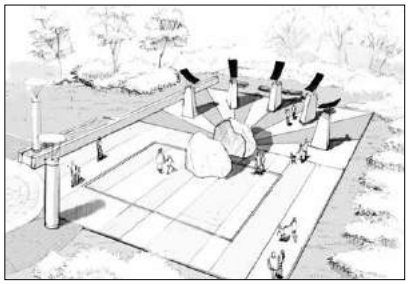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의 조각공원 다목적 잔디광장 도입
- 에너지원을 형상화한 에너지서클, 그린 네트워크 조경계획
- 에너지의 생성원리를 쉽게 체험할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소금쟁이댐, 쥐라기 쉼터, 지층체험광장, 빛의 광장, 화력광장 계획)
- 인간과 자규를 위한 에너지 전시관으로서의 조닝계획
- 강요되지않은 선택동선을 이용한 입체적 공간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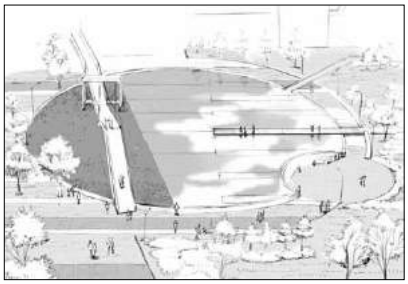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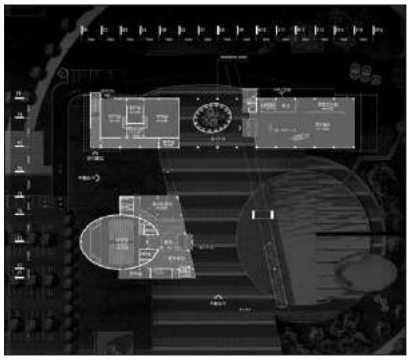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영흥에너지파크
Yeongheung Energy Park

우수작 / (주)다울건축사사무소(신동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80-0 전 일대
지역지구	보전녹지지역
용 도	전시시설, 업무시설, 공연시설
대지면적	54,450.00㎡
건축면적	5,425.55㎡
연 면 적	5,385.89㎡
건 폐 율	9.96% (법정:20%-보전녹지지역 적용)
용 적 률	9.10% (법정:50%-보전녹지지역 적용)
구 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내부마감	화강석, 카펫타일, 목재플로어링, 무늬목쉬트, 아크릴페인트
외부마감	투명로이복층유리, 반투명복층유리, 내후성강판, 건조목재사이딩, 고압적층패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티타늄아연판
설 계 팀	김중일, 지은권, 박준표, 이상경, 전종현, 백창윤

조화의 문

옹진군 영흥도의 영흥화력본부 입구에 위치한 부지는 바다로 열리고 진입도로가 있는 남측의 전면과 중앙의 넓은 평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야산으로 이루어져 자연친화적인 조성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대지이다.

본 계획안에서는 환경과 지역과 테크놀로지를 잇는 "조화의 문"을 Concept으로 하여 대지에 영향을 미치는 봉우리들의 흐름을 상부 전망데크를 통해 상호 연계시키고 분리 배치된 홍보전시관과 문화센터를 투명한 유리 Mass(매스)를 통해 데크와 Gate처럼 결합시킴으로서 데크 아래 조화의 광장이 생태의 식생(습지, 초목, 수로, 토양)과 목재 데크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자연지형의 흐름, 물 · 바람 · 햇빛의 흐름, 동선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자 전이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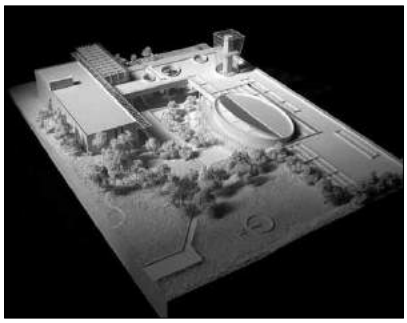
기능의 분리,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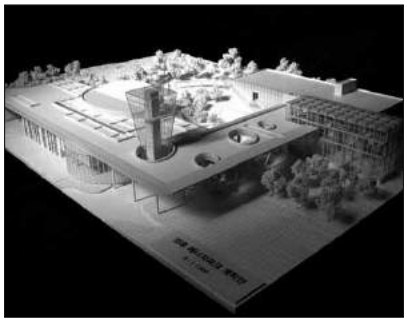
홍보관을 구성하는 기능을 본 계획안에서는 2가지의 클러스터로 묶어 '관람자를 위한 전시 공간, 다목적의 대공연장 공간'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능을 동선 흐름의 연속성과 공간의 연속성 및 전망데크와 전망타워로 연계하여 유기적인 결합을 유도함으로서 수평 · 수직적인 상징성과 함께 Void와 Solid의 조화를 통해 외부환경을 실내로 유입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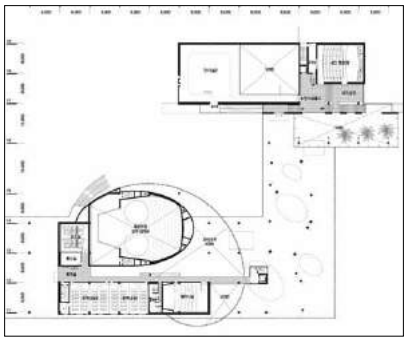
흐름과 연속성

수평의 거대한 Deck는 문화센터와 홍보전시관의 Solid한 매스로 지지되고 각 내부동선은 길게 직선적인 켜를 형성한다. 여기에 투명한 로비와 전망타워의 유리 조형은 주간에는 빛의 유입경로이며 야간에는 빛의 발광체로서 등대와 같은 상징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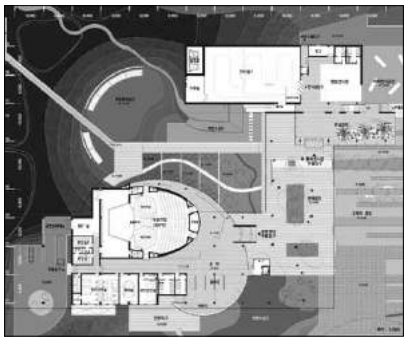
이처럼 자연 지형의 흐름에서 파생되어 조화의 광장과 조화의 문을 지나쳐 전망데크로 이어지고 바다로의 극적인 View를 체험하며 홍보전시관을 통해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이용자동선의 연속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전체적인 구성을 완결한다.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배치도

남측면도

2005년 건축허가 현황(2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2월)			누계 (1~2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68	6,339	−37.7%	18,529	15,121	−18.4%
	연면적	7,734,462	5,621,763	−27.3%	14,476,304	14,023,695	−3.1%
주거용	동 수	3,371	1,541	−54.3%	5,612	3,641	−35.1%
	연면적	3,153,002	1,921,507	−39.1%	4,830,478	5,977,856	23.8%
상업용	동 수	3,377	2,084	−38.3%	6,074	4,611	−24.1%
	연면적	2,327,060	1,469,682	−36.8%	4,261,655	3,025,017	−29.0%
공업용	동 수	1,454	1,064	−26.8%	3,152	2,691	−14.6%
	연면적	900,974	858,824	−4.7%	2,381,288	1,839,149	−22.8%
문교및 사회용	동 수	572	492	−14.0%	1,139	1,278	12.2%
	연면적	588,895	683,824	16.1%	1,171,527	1,322,170	12.9%
기 타	동 수	1,394	1,158	−16.9%	2,552	2,900	13.6%
	연면적	764,531	687,926	−10.0%	1,831,356	1,859,503	1.5%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2월)			누계 (1~2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68	6,339	−37.7%	18,529	15,121	−18.4%
	연면적	7,734,462	5,621,763	−27.3%	14,476,304	14,023,695	−3.1%
철 근 철골조	동 수	8,817	5,618	−36.3%	16,301	13,433	−17.6%
	연면적	7,513,272	5,556,184	−26.0%	14,180,712	13,879,892	−2.1%
조적조	동 수	1,172	582	−50.3%	1,950	1,404	−28.0%
	연면적	196,946	47,462	−75.9%	261,570	108,244	−58.6%
목 조	동 수	179	139	−22.3%	278	284	2.2%
	연면적	24,244	18,117	−25.3%	34,022	35,559	4.5%
기 타	동 수	0	0		−	0	
	연면적	0	0		−	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2월)			누계 (1~2월)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4년	2005년	증가율
계	동 수	10,168	6,339	−37.7%	18,529	15,121	−18.4%
	연면적	7,734,462	5,621,763	−27.3%	14,476,304	14,023,695	−3.1%
수도권	동 수	3,537	2,000	−43.5%	6,632	5,200	−21.6%
	연면적	3,722,377	2,427,259	−34.8%	7,147,362	6,845,505	−4.2%
서 울	동 수	728	322	−55.8%	1,294	795	−38.6%
	연면적	1,044,634	799,412	−23.5%	2,136,096	1,498,636	−29.8%
인 천	동 수	345	217	−37.1%	682	486	−28.7%
	연면적	455,821	471,361	3.4%	772,111	773,574	0.2%
경기도	동 수	2,464	1,461	−40.7%	4,656	3,919	−15.8%
	연면적	2,221,922	1,156,486	−48.0%	4,239,155	4,573,295	7.9%
지 방	동 수	6,631	4,339	−34.6%	11,897	9,921	−16.6%
	연면적	4,012,085	3,194,504	−20.4%	7,328,942	7,178,190	−2.1%
부 산	동 수	510	242	−52.5%	942	586	−37.8%
	연면적	457,079	267,977	−41.4%	1,063,014	723,943	−31.9%
대 구	동 수	414	218	−47.3%	739	500	−32.3%
	연면적	218,000	308,611	41.6%	420,857	653,752	55.3%
광 주	동 수	231	144	−37.7%	408	437	7.1%
	연면적	188,185	90,566	−51.9%	267,354	490,170	83.3%
대 전	동 수	283	101	−64.3%	475	270	−43.2%
	연면적	569,523	38,631	−93.2%	671,331	179,499	−73.3%
울 산	동 수	307	184	−40.1%	575	433	−24.7%
	연면적	107,979	74,458	−31.0%	180,471	193,358	7.1%
강 원	동 수	501	326	−34.9%	899	688	−23.5%
	연면적	270,296	222,463	−17.7%	416,920	498,462	19.6%
충 북	동 수	509	323	−36.5%	899	702	−21.9%
	연면적	421,891	239,842	−43.2%	838,743	599,302	−28.5%
충 남	동 수	656	437	−33.4%	1,191	959	−19.5%
	연면적	539,617	371,961	−31.1%	1,066,702	623,343	−41.6%
전 북	동 수	438	327	−25.3%	779	795	2.1%
	연면적	185,104	295,764	59.8%	290,012	570,439	96.7%
전 남	동 수	489	417	−14.7%	959	942	−1.8%
	연면적	115,826	120,645	4.2%	327,889	420,668	28.3%
경 북	동 수	985	683	−30.7%	1,686	1,521	−9.8%
	연면적	344,999	520,936	51.0%	719,536	963,133	33.9%
경 남	동 수	1,020	775	−24.0%	1,768	1,696	−4.1%
	연면적	520,928	588,832	13.0%	899,356	1,143,702	27.2%
제 주	동 수	288	162	−43.8	577	392	−32.1%
	연면적	72,658	53,818	−25.9%	166,757	118,419	−29.0%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5년 2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03	5,103	224	446	27	83	2	8	0	0	5,356	5,640	1,464	1,464	271	535	81	244	26	104	16	80	7	42	7	49	5	48	1,877	2,566	9	9	7,242	8,215	100.0%	100.0%
서울	1,256	1,256	66	132	14	44					1,336	1,432	864	864	168	336	48	144	17	68	8	40	4	24	6	42	3	27	1,118	1,545	8	8	2,462	2,985	34.0%	36.3%
부산	529	529	27	54	3	9					559	592	70	70	11	22	7	21	3	12	4	20	2	12					97	157			656	749	9.1%	9.1%
대구	424	424	31	62	4	12	2	8			461	506	41	41	18	36	5	15	1	4	2	10							67	106			528	612	7.3%	7.4%
인천	220	220	2	4	1	3					223	227	51	51	5	10													56	61			279	288	3.9%	3.5%
광주	192	192	2	4							194	196	32	32	11	22	3	9	2	8			1	6	1	7			50	84			244	280	3.4%	3.4%
대전	200	200	19	38	2	6					221	244	25	25	8	16	2	6	1	4							1	11	37	62			258	306	3.6%	3.7%
울산	155	155	6	12	1	3					162	170	14	14	2	4	2	6											18	24			180	194	2.5%	2.4%
경기	649	649	27	52							676	701	217	217	28	49	8	25			1	5							254	296			930	997	12.8%	12.1%
강원	157	157	5	10							162	167	20	20	4	8					1	5							25	33			187	200	2.6%	2.4%
충북	165	165	8	16							173	181	19	19	5	10	1	3	1	4							1	10	27	46			200	227	2.8%	2.8%
충남	155	155	4	8							159	163	31	31			2	6	1	4									34	41			193	204	2.7%	2.5%
전북	179	179	3	6							182	185	20	20	3	6	1	3											24	29			206	214	2.8%	2.6%
전남	130	130									130	130	8	8			1	3											9	11			139	141	1.9%	1.7%
경북	270	270	9	18	1	3					280	291	27	27	1	2	1	3											29	32	1	1	310	324	4.3%	3.9%
경남	320	320	14	28	1	3					335	351	19	19	7	14													26	33			361	384	5.0%	4.7%
제주	102	102	1	2							103	104	6	6															6	6			109	110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205	10	8,215	100.0%	28
서울	2,982	3	2,985	36.3%	17
부산	748	1	749	9.1%	9
대구	612	0	612	7.4%	0
인천	288	0	288	3.5%	0
광주	280	0	280	3.4%	0
대전	305	1	306	3.7%	0
울산	194	0	194	2.4%	0
경기	995	2	997	12.1%	2
강원	200	0	200	2.4%	0
충북	227	0	227	2.8%	0
충남	201	3	204	2.5%	0
전북	214	0	214	2.6%	0
전남	141	0	141	1.7%	0
경북	324	0	324	3.9%	0
경남	384	0	384	4.7%	0
제주	110	0	11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640	2,566	9	8,215	
비율	68.7%	31.2%	0.1%	100.0%	
사무소수	5,356	1,877	9	7,242	
비율	74.0%	25.9%	0.1%	100.0%	